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 제1권 하

2017.11.1 ~ 2018.5.9



## 발간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행했던 각종 연설과 주요 회의 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한 메시지도 수록했습니다. 모두 286개로 역대 대통령 연설문집 중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가 거둔 성과가 있다면 모두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각 페이지 오른쪽 위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넣었습니다. 전자책도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집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통령의 말과 글을 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년 문재인정부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남은 4년 동안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차례

### 2017년 11월

|              |                                          |    |
|--------------|------------------------------------------|----|
| 2017. 11. 1  |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 12 |
| 2017. 11. 3  |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25 |
| 2017. 11. 5  | 오사카 '사천왕사 왓소 2017' 서면 축하                 | 30 |
| 2017. 11. 7  |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한 만찬                       | 32 |
| 2017. 11. 7  |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35 |
| 2017. 11. 8  |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 39 |
| 2017. 11. 9  |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 44 |
| 2017. 11. 9  |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MOU 서명식 및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50 |
| 2017. 11. 10 | (베트남 방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 54 |
| 2017. 11. 13 | (필리핀 방문)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 연설            | 56 |
| 2017. 11. 13 | (필리핀 방문)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62 |
| 2017. 11. 14 | (필리핀 방문) 필리핀 동포 간담회                      | 64 |
| 2017. 11. 16 | 포항 지진 피해 관련 SNS 메시지                      | 68 |
| 2017. 11. 22 |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                       | 70 |
| 2017. 11. 23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 70주년 축전                    | 73 |
| 2017. 11. 24 |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점검                           | 74 |
| 2017. 11. 28 |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 79 |
| 2017. 11. 29 |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방한 만찬                    | 82 |
| 2017. 11. 30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및 벤처 창업 페스티벌                 | 85 |

### 2017년 12월

|              |                                  |     |
|--------------|----------------------------------|-----|
| 2017. 12. 3  | 제53회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서면 축하          | 90  |
| 2017. 12. 5  |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                   | 92  |
| 2017. 12. 5  | 2017 인터넷 기업인의 밤 영상 축하            | 97  |
| 2017. 12. 6  | 종교지도자 간담회                        | 99  |
| 2017. 12. 8  |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 간담회              | 101 |
| 2017. 12. 13 | (중국 방문) 중국 동포 간담회                | 105 |
| 2017. 12. 13 | (중국 방문) 한중 비즈니스 포럼               | 109 |
| 2017. 12. 14 |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 116 |
| 2017. 12. 15 | (중국 방문) 베이징(北京)대학 연설             | 119 |
| 2017. 12. 16 | (중국 방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 130 |
| 2017. 12. 16 | (중국 방문) 한중 산업협력 충청 포럼            | 132 |
| 2017. 12. 18 | 2017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간담회              | 136 |
| 2017. 12. 19 | KTX 경강선(서울~강릉) 시승 및 오찬 간담회       | 141 |
| 2017. 12. 19 |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워크숍 격려 방문 | 143 |
| 2017. 12. 19 |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1주년 기념 서면 축하        | 145 |
| 2017. 12. 21 |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 147 |
| 2017. 12. 2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 151 |
| 2017. 12. 27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 155 |
| 2017. 12. 28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 160 |

|              |                                  |     |
|--------------|----------------------------------|-----|
| 2017. 12. 28 |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 162 |
| 2017. 12. 28 | 일본군 위안부 TF 조사 결과 관련 SNS 메시지..... | 165 |

## 2018년 1월

|             |                                           |     |
|-------------|-------------------------------------------|-----|
| 2018. 1. 1  | 2018 신년 산행 SNS 메시지 .....                  | 168 |
| 2018. 1. 2  | 2018 무술년 신년 인사회 .....                     | 170 |
| 2018. 1. 3  | 쇄빙LNG선박 건조 현장 방문 .....                    | 174 |
| 2018. 1. 3  | 2018 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회 영상 축하 .....            | 178 |
| 2018. 1. 4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초청 오찬 간담회 .....               | 180 |
| 2018. 1. 5  |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인사 및 오찬 간담회 .....             | 183 |
| 2018. 1. 5  | 2018 여성계 신년 인사회 영상 축하 .....               | 187 |
| 2018. 1. 9  | 2018 농업인 신년 인사회 영상 축하 .....               | 189 |
| 2018. 1. 10 | 2018 신년 기자회견 .....                        | 191 |
| 2018. 1. 10 | 제13회 미주 한인의 날 서면 축하 .....                 | 201 |
| 2018. 1. 12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식 .....                  | 203 |
| 2018. 1. 13 | 문익환 목사 24주기 추도사 .....                     | 207 |
| 2018. 1. 14 | 대한불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6주년 봉축 법요식 축전 ..... | 209 |
| 2018. 1. 16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                 | 210 |
| 2018. 1. 17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및 오찬 간담회 .....    | 214 |
| 2018. 1. 19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 217 |
| 2018. 1. 19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 221 |
| 2018. 1. 22 | 규제혁신 토론회 .....                            | 223 |

|             |                                   |     |
|-------------|-----------------------------------|-----|
| 2018. 1. 23 |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 영상 축하 ..... | 227 |
| 2018. 1. 24 |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                 | 229 |
| 2018. 1. 27 | 밀양 화재 현장 방문 .....                 | 232 |
| 2018. 1. 30 | 장차관 워크숍 .....                     | 234 |

## 2018년 2월

|             |                                       |     |
|-------------|---------------------------------------|-----|
| 2018. 2. 1  |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 .....                    | 240 |
| 2018. 2. 1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               | 244 |
| 2018. 2. 1  | 고(故) 황병기 선생 조전 .....                  | 249 |
| 2018. 2. 2  |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식 간담회 .....                | 250 |
| 2018. 2. 5  | 제132차 IOC총회 개회식 .....                 | 253 |
| 2018. 2. 5  | 제132차 IOC총회 개회식 서면 축하 .....           | 259 |
| 2018. 2. 5  | 평창동계올림픽 IOC 위원 소개행사 .....             | 262 |
| 2018. 2. 5  |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감사 SNS 메시지 .....        | 265 |
| 2018. 2. 9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              | 266 |
| 2018. 2. 9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           | 271 |
| 2018. 2. 11 |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축전 .....   | 273 |
| 2018. 2. 12 |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 수여식 .....           | 274 |
| 2018. 2. 15 | 국민께 드리는 2018 무술년 신년 영상 인사 .....       | 280 |
| 2018. 2. 19 |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은메달 축전 ..... | 282 |
| 2018. 2. 22 |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                  | 283 |
| 2018. 2. 25 |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           | 286 |

|             |                                  |     |
|-------------|----------------------------------|-----|
| 2018. 2. 28 | 제58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         | 288 |
| 2018. 2. 28 | 육군학생군사학교 제5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 2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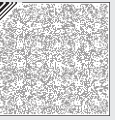
## 2018년 3월

|             |                                     |     |
|-------------|-------------------------------------|-----|
| 2018. 3. 1  |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 294 |
| 2018. 3. 2  |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 .....              | 301 |
| 2018. 3. 2  | 육군3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 303 |
| 2018. 3. 6  |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식 및 임관식 .....         | 304 |
| 2018. 3. 8  |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                  | 309 |
| 2018. 3. 8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서훈 수여식 .....         | 313 |
| 2018. 3. 8  | 공군사관학교 제6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 314 |
| 2018. 3. 8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서면 축하 ..... | 315 |
| 2018. 3. 8  |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서면 축하 .....             | 317 |
| 2018. 3. 9  |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식 사전 리셉션 .....           | 319 |
| 2018. 3. 9  | 북미정상회담 환영 SNS 메시지 .....             | 323 |
| 2018. 3. 9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8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 324 |
| 2018. 3. 13 |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    | 325 |
| 2018. 3. 13 | 해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 329 |
| 2018. 3. 15 |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  | 330 |
| 2018. 3. 15 |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 조전 .....             | 334 |
| 2018. 3. 16 |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                  | 335 |
| 2018. 3. 18 |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        | 340 |

|             |                                         |     |
|-------------|-----------------------------------------|-----|
| 2018. 3. 19 |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                      | 342 |
| 2018. 3. 20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                | 345 |
| 2018. 3. 22 |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 ..... | 347 |
| 2018. 3. 22 | (베트남 방문) 베트남 동포 만찬 간담회 .....            | 349 |
| 2018. 3. 23 |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 353 |
| 2018. 3. 23 | (베트남 방문) 아세안 청년일자리 협약식 및 취업 박람회 .....   | 356 |
| 2018. 3. 23 |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 358 |
| 2018. 3. 25 | (UAE 방문) UAE 동포 간담회 .....               | 363 |
| 2018. 3. 26 | (UAE 방문) UAE 원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 .....     | 367 |
| 2018. 3. 26 | 국민개헌안 발표 SNS 메시지 .....                  | 371 |
| 2018. 3. 26 |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전문 .....              | 373 |
| 2018. 3. 27 | (UAE 방문) 아크부대 방문 .....                  | 374 |
| 2018. 3. 27 | (UAE 방문) 한·UAE 비즈니스 포럼 .....            | 377 |
| 2018. 3. 29 | 아리랑무용단 고국 공연 서면 축하 .....                | 382 |

## 2018년 4월

|             |                                     |     |
|-------------|-------------------------------------|-----|
| 2018. 4. 1  |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축전 .....        | 384 |
| 2018. 4. 3  |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             | 385 |
| 2018. 4. 4  | 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 .....                   | 390 |
| 2018. 4. 5  | 제12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서면 축하 ..... | 394 |
| 2018. 4. 6  |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축전 .....               | 396 |
| 2018. 4. 11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           | 3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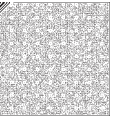


|             |                               |     |
|-------------|-------------------------------|-----|
| 2018. 4. 12 |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 .....     | 400 |
| 2018. 4. 13 |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 .....  | 403 |
| 2018. 4. 15 | 세월호 4주기 메시지 .....             | 406 |
| 2018. 4. 17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 .....    | 408 |
| 2018. 4. 18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 412 |
| 2018. 4. 19 |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          | 416 |
| 2018. 4. 20 | 민간 주도 혁신성장 현장 방문 .....        | 419 |
| 2018. 4. 27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 | 423 |
| 2018. 4. 27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 .....   | 427 |

## 2018년 5월

|                                 |                           |     |
|---------------------------------|---------------------------|-----|
| 2018. 5. 1                      | 근로자의 날 SNS 메시지 .....      | 436 |
| 2018. 5. 9                      | 제7차 한일중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 438 |
| 2018. 5. 9                      |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         | 441 |
| 2018. 5. 10                     | 취임 1주년 SNS 메시지 .....      | 444 |
| 부록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에 따른 찾아보기 ..... |                           | 447 |

# 2017. 11



##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2017. 11.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 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 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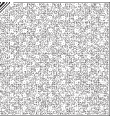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은 대대적인 금모으기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 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 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 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선배 세대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를 지켜 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 갔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바꾸어 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우리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민주적인 나라,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 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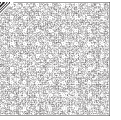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 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 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 권력기관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 여망(興望)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채용 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 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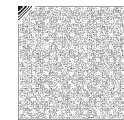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9조 2,0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 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요양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 채용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 지원금과 세제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 증대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 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 원 편성



했습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 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超)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超)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 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기반으로 한국형 창작 활동 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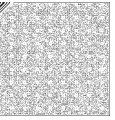
국민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도 책임을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Biocide) 안전 관리예산 183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 연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 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 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국방 예산, 안전 예산, 일자리 예산, 아동수당, 창업 예산 등이 씨줄·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 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 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 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 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안보 문제에 대응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

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 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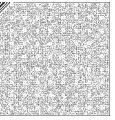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롭습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쳐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017. 11.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쉰다섯 번째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365일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합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대피할 때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화마(火魔)와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직 명예와 보람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돌보고 계신 10만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난 현장으로 밤낮 없이 뛰어가는 소방관의 뒤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가슴을 졸일 것입니다. 소방관의 용기와 긍지의 원천이 되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특히 올해는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감회와 기쁨이 남다를 것입니다. 더 커진 책임감으로 이 자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에 이어져 온 소방의 역사는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은 백성을 아낀 세종대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소방은 항상 최전선에서 국민안전을 지켰습니다. 재난 형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지금 소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소방청은 육상 재난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뿐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에서 국민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 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독립된 소방청에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방충혼탑을 참배했습니다. 충혼탑에 새겨진 순직 소방관들께 국민을 대신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방화복도 없이 화마와 맞섰던 시절이 있었고, 사다리차도 없이 대형 화재를 상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소방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기까지 선배 소방관들의 무한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께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국가는 그만큼 예우를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선 소방서와 소방학교, 화재 현장에서 사명감에 넘치는 소방관들을 만나 왔습니다. 모두 긍지가 높았지만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강기봉 소방관과 빈소에 서 만났던 동료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와 구급 업무를 담당했던 강 소방관이 구조 업무에 투입되었던 것도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고질적 인력 부족은 업무 과중을 넘어 국민안전과 소방관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 인

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1만 9,000여 명이나 부족합니다. 정부는 올해 1,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인력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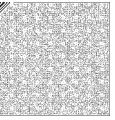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소방관들이 해 온 역할은 눈부십니다. 지난해 소방관들은 하루 평균 120여 건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매일 2,000회 구조 출동을 했고, 화재와 사고를 당한 368명의 국민을 구조해 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뒤에는 소방관들의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언론 보도로 알게 되는 순직 사고 외에도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하루 한 명꼴로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상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과 참혹한 사고 현장,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으로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소방관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병원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은 분명히 숭고한 직업입니다. 동시에 좋은 직업도 되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 주는 ‘국가의 손’입니다. 국민이 소방을 신뢰하는 만큼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고 개선해야 합니다. 소방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특수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길러 나가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소방청은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 지역이나 연령·장애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소방 시설을 특별히 살피고,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등 위험에 특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병력 등록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몸이 아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확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119를 호출하면 구조될 수 있다고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관 여러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믿음에 보답해 왔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쉼다섯 번째를 맞는 ‘소방의 날’이 여러분의 긍지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과 소방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사카 ‘사천왕사 왓소 2017’ 서면 축하

2017. 11. 5

사랑하는 재일동포 여러분, 일본 국민과 오사카 시민 여러분, 친선과 우정의 퍼레이드를 펼쳐 주실 한일 양국의 학생 여러분!

‘사천왕사 왓소 2017’ 축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 주신 오사카 왓소문화교류협회 이노쿠마 카네키츠(猪熊兼勝)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한일 양국 간 교류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입니다.

고대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나라들은 하나가 아니었으면서도 하나였습니다. 특히 일본 오사카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오사카는 한반도를 떠난 고구려·백제·신라·조선인들이 가장 먼저 닿은 항구이자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오늘 축제의 개막을 맞아 먼 옛날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오사카 나루터에 당도했을 때 선조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안도감과 그들을 맞은 따뜻한 환영의 손길이 그려집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으로 길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바다를 건널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은 우정과 환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술·문화·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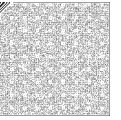
사천왕사 왓소에는 한국과 일본이 지향해야 할 공동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천왕사 왓소 2017’의 주제는 ‘실을 짓다, 자아내다(つむぐ)’입니다. 이 축제에 참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국민이 만남으로 인연의 실을 ‘짓고’, 인연과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집을 짓고, 옷을 짓고, 시를 짓듯 평화와 번영의 네트워크를 ‘짓는’ 바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천왕사 왓소 2017 축제가 옛 선인들이 서로를 생각했던 마음을 되살리고, 한일 양국의 우의를 더욱 굳건히 다져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축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민방한 만찬

2017. 11. 7

내일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에는 첫 번째 생일을 특별하게 축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년을 어떻게 축하드릴까 고민 끝에 한국 국민으로 모셔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께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보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첫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25년 만의 국민방문이며, 나와 우리 정부가 맞는 첫 국민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방미 때 내가 받았던 환대에 보답할 기회가 이렇게 빨리 주어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왔는데, 오늘 내외분을 청와대 경내로 모셔서 같이 지내다 보니 아주 오랜 벗처럼 막역한 느낌이 듭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자유 세계 재건을 위한 트루먼(Truman, Harry Shippe) 대통령의 위대한 구상을 회고하셨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에 따라 전쟁이 발발한 한반도에 미군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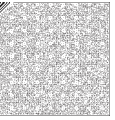
의 유엔군 참전이 이뤄졌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함께 흘린 애국심의 붉은 피로 한미동맹이 탄생했습니다. 나는 지난 6월 워싱턴 장진호 전투비에 현화했습니다.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킨 한미동맹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지금도 양국이 함께 피 흘리며 지킨 이 땅의 평화가 다시 위협받고 있지만, 한미동맹이 그 위협을 막아 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세계 최대, 최첨단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바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 주는 상징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 힘의 우위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내일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지금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위대한 미국과 함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평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인권·빈곤 해결 등 인류를 위한 공동 가치 구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이야말로 6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합의한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길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더욱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모두 잔을 채워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다니까?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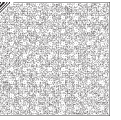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년을 축하하며, 내외분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두 분 늘 건강하십시오. 건배!

##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11. 7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내외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25년 만의 국빈방문이며, 저와 우리 정부가 맞는 첫 국빈이기도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아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차례 만남과 소통을 통해 깊은 신뢰와 우의를 맺어 왔습니다. 오늘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 시키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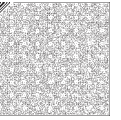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2017. 11. 7)

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오늘 한미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기여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평택 기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리는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뜨거운 우정을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의 과실을 인류와 함께 나눔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범세계



적인 도전 과제인 테러리즘, 여성 인권, 보건 등에 대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면서 신뢰와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 간 우의와 연대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정취 속에서 한미 양국과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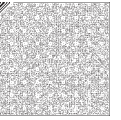
2017. 11. 8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저는 지금 막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아세안(ASEAN) 순방 첫 일정으로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수랏 인드리아르소(Surat Indrijarso) 차관보를 포함해서 한국과 인연이 깊은 귀한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따뜻한 우정과 응원이 순방 기간 동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방문으로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주변 4대국을 넘어 시야를 넓혀야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 아세안·인도·호주·EU까지 특사를 보내 우리 뜻을 알리고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5월 역대 최초 아세안 특사단의 자카르타(Jakarta) 방문으로 동포 여러분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2017. 11. 8)

포 여러분께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아세안 지역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로 교역·투자 규모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큼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입니다. 바닷길이 멀지만 교류 역사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 시대 또는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는 이미 동남아 지역과 교역했고, 조선 태종 때는 자바국 사신 일행이 두 차례나 우리 조선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두 나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식민 지배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었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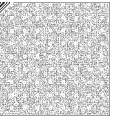
무엇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류와 함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여기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도 인도네시아 자연과 문화와 음식을 좋아하고, 인도네시아를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양국 간 실질 협력의 분야와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3,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인도네시아는 잠수함과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와 공동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의 역할과 기여가 참으로 컸습니다. 1960년대 후반 칼리만탄(Kalimantan) 산림 개발로 시작된 한인 사회는 이제 3만 1,000명에 이릅니다. 이국 땅에 맨손으로 건너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오늘의 성취를 일구어 낸 우리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이제 저와 정부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포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영사 조력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크실 것입니다. 40년 전 1세대 동포 여러분이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를 세운 뜻과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말, 우리 문화와 역사 교육, 모국 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인도네시아 국민이 많이 믿는 이슬람교에는 “공동체란 마치 사람 몸과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형제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많이 닮았습니다. 저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사람중심 국정철학과 서민행복, 소통 등에서 닮은 면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큼니다.

마침 인도네시아로 오는 데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우리 원양어선이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선원 11명을 구조했습니다. 타고 있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서 표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 10명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중국 선원이었고요. 그렇게 좋은 일들도 있고 해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아주 잘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는 촛불혁명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나라답고 정의로운 나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동포들께서 두 번 다시 부끄러워할 일 없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세월 이곳에서 우정과 신뢰를 쌓아 온 우리 동포들과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위촉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홍보위원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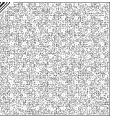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려 주시고 참여를 권해 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겨울의 아름다움과 신비, 우리 민족의 간절한 평화 염원까지 한류문화 체험과 함께 이야깃거리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모국 방문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동포 여러분과 함께라면 평창을 밝힐 성화,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 내년 8월 자카르타-팔렘방(Jakarta-Palembang)아시안게임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2020년 도쿄(東京)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로 타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정신이 한반도와 아시아 전역에 실현되도록 하나 된 열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모레는 베트남으로 가야 하는데 7박 8일 외교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2017. 11. 9

로산 로슬라니(Rosan Roeslani) 인도네시아 상의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양국 기업인과 정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내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하는 아세안 국가입니다. 게다가 나로서는 최초의 해외 국민방문입니다. 오늘 조금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류가 언제부터입니까?

양국이 공식 수교한 것은 1973년입니다만, 이미 6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자바국의 사신이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바(Java) 국왕이 인도네시아 토산물을 보냈고, 조선의 국왕 태종이 옷과 음식을 주며 사신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절단이었으니, 아마도 민간의 교류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이번 방문이 먼 바닷길을 건넌 선조들을 기리고 우리의 오래된 우정과 친선을 확인하면서 공동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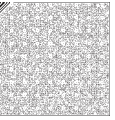
양국 기업인 여러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소중한 친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 투자대상국이며, 첫 번째 해외 유전 공동개발 국가이자 제1호 플랜트 수출국입니다. 또한 2006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마스터플랜’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되는 등 활발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양국이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양국 간 교역 확대 수준을 넘어 아세안과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나와 한국정부가 준비한 ‘6가지 중점 협력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발전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양국 경제부처 간 장관급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제협력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양국 정상에 함께한 자리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등 산업 협력 MOU, 교통 협력 MOU, 보건·의료 협력 MOU가 그 첫발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X/IFX : Korean Fighter eXperimental/Indonesian Fighter eXperimental)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 능력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새롭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양국의 ICT 분야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평창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할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간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기업의 투자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한국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크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철소 증설과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이 좋은 사례입니다. 특별히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분야가 자동차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품질 경쟁력과 우수한 부품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수출국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자동차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전면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합니다.

넷째, 사람중심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저소득층 주거 지역 개선, 발전소 증설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미 양국은 치르본(Cirebon)1 발전소 같은 여러 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이 참여한 발전소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고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자립섬 시범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경전철, 서민주택,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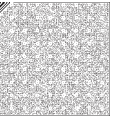
다섯째, 양국 중소·중견기업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TASK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사업을 통해 한국의 산업 기술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지원 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통관 및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국 간 통관 간소화 협정을 체결할 것도 제안합니다.

여섯째, 교역 품목 확대를 통해 전체 교역 규모가 더 커지게 하겠습니다. 교역 품목을 경기변동에 민감한 화석연료와 기초 원자재에서 꾸준히 교역할 수 있는 기계, 소재·부품, 소비재로 늘려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랑하는 팜오일, 농산물 등 친환경 상품 교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과 더불어 아세안과의 교류·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新)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품 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하겠습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 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 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깊은 협력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이번 순방을 준비하면서 양국이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삼 놀랐습니다.

양국은 식민지 아픔을 함께 겪었고 권위주의 정부를 거쳐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도 함께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같은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한국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나와 조코위 대통령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서민가정에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늦게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상호 이해가 양국의 공동번영에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리마 까시(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MOU 서명식 및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11. 9

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보고르궁(Istana Bogor)에 초청해 주신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을 위해 인상적인 공식 환영식을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조코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저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와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 모두 사람을 우선하고 포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조코위 대통령과 신뢰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와 우의는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인권, 민주주의 신장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그간 활발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



한·인도네시아 MOU 서명식 및 정상 공동 언론 발표(2017. 11. 9)

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네 가지 부문에서 특별히 협력을 새롭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안보부문에 있어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체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은 야심차게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포함하여 앞으로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포용적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서로 노력하여 양국 간 교역액을 현 수준의 2배인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 관리, 교통, 전력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협력을 확대하고 자동차, 관광, 콘텐츠산업, 친환경 에너지, IT, 해양,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가계 소득 중대를 통한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다는 공동 인식 하에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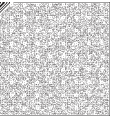
셋째, 돈독한 양국 관계를 위한 굳건한 디딤돌인 양국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나라를 방문하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국민을 더욱 잘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2월 대한민국 평창의 동계올림픽과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Palembang)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국민 간 교류 촉진 계기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들 두 국제 행사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우리 두 정상은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조코위 대통령께 우리의 대(對)아세안 관계 강화 정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가 적극 성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코위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에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께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계신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은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저는 조코위 대통령께 내년 중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통 통제 때문에 불편이 많았을 텐데도 적극 협조해 주신 자카르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프리마 까지(감사합니다).



[베트남 방문]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2017. 11. 10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APEC은 지난 30년간 아주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각계 기업의 경제협력 구심점이 되었고, 연내 무역 규모는 매년 7% 이상 증가했습니다. APEC이 추구해 온 자유무역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정신이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PEC정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BAC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조속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 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APEC 성장과 역내 공동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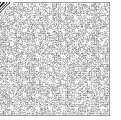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유무역 혜택이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재취업 지원

원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 방법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극심한 경제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역과 성장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각국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성장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전 세계 교역의 45%를 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시장입니다. APEC이 가는 길이 세계 경제가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APEC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 내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방문]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 연설

2017. 11. 13

존경하는 조이 컨셉시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장님, 아세안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세안이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세안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안보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 발전 격차를 극복한 통합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입니다. 아세안공동체 출범은 인구 6억 3,000만 명, GDP 2조 6,000억 달러의 거대한 공동체, 중위연령 28세, 연 5% 성장의 젊고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시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투자처입니다. 한국도 아세안의 5번째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중요한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난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친구입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으로 고통 받을 때 아세안 국가가 도움을 주었습

\* ABIS(ASEAN Business Investment Summit :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니다. 냉전 시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자존을 지켜야 했던 어려움도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서로 도와 가며 함께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합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취임 직후 아세안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의 소중한 경험을 우리 비전으로 되살린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3P공동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입니다.

아세안 경제인 여러분!

첫째, ‘사람중심의 국민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나의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중심공동체 비전과 일치합니다.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학생 간 다층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나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여 깊은 우정을 나누겠습니다.

국민 간 빈번한 만남과 교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민이 더욱 쉽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Visa)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초청하는 아세안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세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지원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양측의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미래 지도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9월 내가 자란 부산에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최초로



‘아세안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유일의 디지털화된 앙코르와트(Angkor Wat) 사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아세안을 이해하고 교류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09년 설립한 한·아세안센터는 무역박람회, 상담 등을 통해 아세안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등 양측 경제인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세안 주재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안전한 평화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 50만 명의 아세안 국민이 살고, 한 해 600만 명의 한국인이 아세안을 방문합니다.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는 그 자체로도 서로의 안전과 평화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나는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 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평화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안보 협력,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호혜적 경제협력을 지향합니다. 이는 한국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 혜택을 양쪽이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현지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 공유를 통해 해당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게 한국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오늘 그중에서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Connectivity)을 높일 수 있는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협력은 교통 분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하노이(Hanoi)와 호찌민(Hochiminh)에 메트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 경전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 지하철은 한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겪은 대도시 교통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대도시의 과밀화와 교통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세안 국가 간 고속철도 건설도 역내 통합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고속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아세안 국가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제2협력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전소 건설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아세안과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Batam)의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미래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3협력은 수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한국은 태국 후웨이루앙강 하류 유역 개발, 라오스 세남노이(Xe Namnoy) 수력발전, 필리핀 루존(Luzon) 지역 수력발전과 불라칸(Bulacan)주 상수도 사업, 인도네시아 까리안-세르퐁(Karian-Serpong) 상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사업 노하우도 함께 지원될 것입니다.

제4협력은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지능·정보화와 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5세대 이동통신망을 평창동계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하고, 내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도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스마트 시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건설에도 참여하겠습니다. 그 경험을 다른 나라와도 나누겠습니다.

경제협력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속도 있게 이뤄집니다. 한국은 아세안 관련 기금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2019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400만 달러로 확대하겠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으로 자유무역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2020년까지 상호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시한 4개 중점 협력 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경제인 여러분!

올해는 아세안 출범 50주년, ASEAN+3 창설 20주년, 한·아세안 FTA 체결 1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나는 이 행사에 이어 아세안 정상들과도 내 구상을 협의할 것입니다.

정상들의 의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양측 국민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특히 경제 지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정부는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석 달 후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화 봉송 로봇, 자율주행 버스, 5G 이동통신,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 등 최첨단 ICT 기술도 선보일 것입니다. 한국의 평창을 찾아 주십시오.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과 다양한 문화도 즐기시고, 첨단기술과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방문]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7. 11. 13

필리핀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그리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캄보디아 훈센(Hun Sen)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지난 50년 아세안이 이뤄 낸 발전과 성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세안은 복잡한 지역 정세 속에서도 꾸준히 통합을 진전시켜 왔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아세안공동체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나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정부 출범 직후 아세안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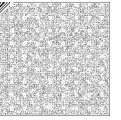
나는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새로운 도약과 발전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 양측 협력 관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폭과 깊이에서 더욱 강화된 협력이 우리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17. 11. 13)

오늘 나는 양측의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한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아세안공동체의 비전이 양측 상생 협력과 공동번영으로 결실을 맺는 공동체입니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서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정상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아세안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필리핀 방문] 필리핀 동포 간담회

2017. 11. 14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 심지어 멀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귀한 필리핀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한국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고 귀국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 함께 감사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APEC, 아세안 7박 8일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일정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을 뵈니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순방길은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공간이 더 넓고 더 크게 확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대국 중심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방으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더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럽, 남쪽으로는 아세안·인도까지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다자안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실천적 대안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APEC과 ASEAN 회원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국정철학이 아세안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세안 정상과 기업인에게 사람과 상품 이동이 자유롭고,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면서, 차세대를 함께 키워 나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아세안을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가자는 제안에 아세안 각국이 공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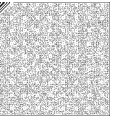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가 연내 방중 초청을 받는 등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3년 만에 3%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층 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이번 순방 잘했다, 꽤 성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장이 동포 여러분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동남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상군을 파병해서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1948년 수교 이래 폭넓은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필리핀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연간 150만 명쯤 됩니다. 필리핀에서도 우리 K-POP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한식과 한국 패션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한인 사회의 역할과 기



여가 아주 컸습니다. 우리 필리핀 한인 사회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에 남았던 소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9만 3,000여 명에 이릅니다. 한인 사회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면서 동포의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한인총연합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동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고, 또 필리핀에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함께 도왔습니다. 한인총연합회가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단합과 발전, 그리고 양국 관계 증진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부도 동포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확장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가 무고하게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한인 밀집 지역에 CCTV와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담당 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사건·사고 피해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동포 여러분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여행객과 동포의 치안을 책임지고 계신 필리핀 경찰과 검찰 관계자 여러분도 특별히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테르테 대통령께도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필리핀 치안기관과 공조도 더욱 확대하고, 또 고위급이 직접 챙기도록 외교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

성을 가지고 현지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인총연합회 회장님 말씀대로 필리핀인들에게 우리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도 더 많이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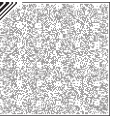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1년여 전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한민국이 이제 정의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세안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저와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필리핀 ‘바할라나(Bahala Na) 정신’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낙관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포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모국방문추진위원회도 결성하셨다고 하니 정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반드시 평화의 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 아세안과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이 이름 그대로 평화와 번창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켜 봅시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포항 지진 피해 관련 SNS 메시지

2017. 11. 16

어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부처도 힘을 모아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공단, 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도 철저히 점검해 국민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수능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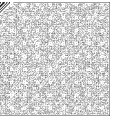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

2017. 11. 22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巨山)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온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영삼이라는 이름은 그 가운데서도 높이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화의 고난을 헤쳐 오신 손명순 여사님과 유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서는 1954년 5월 남해 푸른 섬 거제도에서 만 26세 나이로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주주의와 역사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찾아 담대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1970년대에는 유신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었고, YH무역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했으며, 1979년 10월 유신정권으로부터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촉발된 부마민주항쟁은 결국 유신정권을 몰락시켰습니다.

1980년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투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다시 불

타올랐습니다. 5·18민주화운동 3주기에 시작한 단식은 23일간 목숨을 걸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드리워진 독재의 어둠을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불러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서는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독재 권력과 맞서 온몸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거제도의 젊은 조선 의원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40여 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 독재의 끝 ‘문민정부’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역사에서 제자리를 찾았던 때가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서는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13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 개혁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법과 정의에 기초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군사 독재 시대에 대한 역사적 청산도 이루어졌습니다. 군 사(私)조직을 척결하고, 광주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신속했던 개혁 원동력은 민주화와 함께 커진 국민의 역량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연 문민 시대는 민주주의를 상식으로 여기는 세대를 길러 냈습니다. 권력의 부당한 강요와 명령에 맞서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거부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늘어났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손명순 여사님과 유족 여러분!

오늘 저는 문민정부가 연 민주주의의 지평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유훈을 되새깁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국민 화합과 통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여정에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나 거기 있는 큰 산처럼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 70주년 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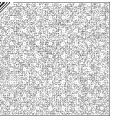
2017. 11. 2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70년 동안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하윤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육의 중심에 계신 한국교총과 우리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이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점검

2017. 11. 24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계신데도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도우면서 잘 감당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우리 포항시민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진작 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총리께서 직접 현장에 와서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가 다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초기 수습 과정이 지난 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렀기 때문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시험이 어제 아주 무사히 잘 치러져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포항 지역 수험생 수가 전국 수험생 수의 1%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1%가 채 안 되는 숫자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고, 불안한 가운데 시험을 치른다면 그만큼 불공정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능시험을 연기했습니다.

수능시험 연기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일이고 전국에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또 수능시험 일자에 맞춰져 있는 학사 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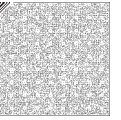
다.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께서도 수능 연기 결정에 대해 지지하고, 오히려 ‘포항 지역 수험생들 힘내라’라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국민 모두께 참 고맙습니다. 저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출발하는데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빠르게 추워지고 있고 아직 여진 걱정도 남아 있어서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설명하셨지만,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 계속 거주하기 힘든 건축물은 하루빨리 철거하고, 그분들이 이주해 갈 수 있는 집을 빨리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없어서 보강 공사를 하면 되는 집은 빨리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포항시, 경상북도와 함께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울산시민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액상화 현상도 중앙정부가 함께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열발전소 걱정도 많은데, 지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재난을 당하면 재난에 대한 물적 피해도 피해지만 많은 정신적 상처들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 지원과 상담·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0명 넘는 전문가들이 내려와 있는데, 상주하면서 또는 찾아가서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일들이 끝나면 전반적인 지진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점검(2017. 11. 24)

시설, 서민들이 주거하는 서민 주거 시설이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곳에 대한 안전 점검과 내진 보강을 아주 서두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이 큰 원전, 공단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두르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서 재난 대응을 하는데, 재난특별교부금을 재해가 발생한 이후 대책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진 발생 전에 내진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제도를 고치는 일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택을 새롭게 재건축해야 될 경우에 임시 거주 시설이 필요한데, 기존 6개월은 너무 짧으니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충분히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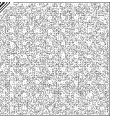
대성아파트의 경우 적어도 세 동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과정도 주민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하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절차와 다릅니다. 훨씬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부문도 포항시나 경상북도가 경제성과 문화재 보호 취지를 잘 조화시키면 합의점들을 빨리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LH가 개인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입주 보증금 지원도 1억 원으로 늘리도록 이미 결정했습니다.

반파·전파 주택 지원금이 아주 적다는 말씀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번 경주 지진 때보다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반파·전파 주택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이 모아 주신 의연금 배분을 통해서도 돕고, 정부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무이자나 저리로 융자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걱정됩니다. 이렇게 피해를 복구한다 해도 지역경제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함께 중앙정부가 신경 쓰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회의나 행사를 가급적 포항시에 와서 하도록 하면 포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포항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재개발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역으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만 하필이면 포항·경주·울산 지역 지하에 활성단층지대가 있어서 동남권 지역이 특히 더 지진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동남권 지역에 원전·석유화학단지 등 위험 시설도 많고, 경주에는 핵폐기물처리장도 있어서 걱정이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지하 단층지대 조사도 서둘러서 앞으로 지진대책을 더욱 근본적으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들어서 있는 원전시설이나 공단시설은 어쨌든 설계 수명 기간 동안에는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진 보강을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나가는 한편, 국민께서 의연금도 모아 주고 자원봉사도 하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기에 충분히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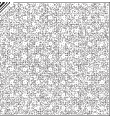
2017. 11. 28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모든 국무위원,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면서 속도를 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혁신성장은 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 전략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혁신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는 모두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신혁신 전략, 독일 인더스트리4.0, 일본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의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첫째로 혁신성장에 관해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정부는 민간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성장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선정하는 혁신성장 선도 사업들은 혁신성장이 무엇인지 국민께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산업 등은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되는 선도 사업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입니다. 민간의 상상력을 낚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방안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혁신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성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적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돼 적시에 집행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살려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민방한 만찬

2017. 11. 29

아유보완(안녕하세요).

일찍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스리랑카에서 오신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귀한 스리랑카 손님을 맞아 더없이 기쁩니다.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 뜻깊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의 이번 국민방문으로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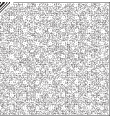
스리랑카는 원래 빼어난 자연환경과 찬란한 불교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양의 진주입니다. 거기에 시리세나 대통령의 통합 지도력이 더해져 스리랑카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인권이 개선되었습니다. 연 4% 이상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 수출 확대, 투자 유치, 관광산업 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발전과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국민이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 가고 계신 시리세나 대통령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스리랑카 국민께도 진심 어린 성원을 보냅니다.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민방한(2017. 11. 29)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는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역시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흔을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국은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을 실천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 수준도 아주 높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깊은 문화적·정서적 유대감이 양국의 미래 협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수교 이래 양국 간 무역액 규모가 30배 늘었습니다. 인적 교류는 200배 증가했습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2만 5,000명의 근면·성실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역·투자·개발협력·농업·인적교류·문화교류·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시아와 함께 번영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스리랑카를 포함한 서남아·아세안 국가와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때 원하는 것이 음식과 옷이 아니라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대한민국을 사람이 먼저인 나라, 인권과 정의가 우선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스리랑카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리세나 대통령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시리세나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아름다운 섬 스리랑카를 위하여, 그리고 양국의 공동번영과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및 벤처 창업 페스티벌

2017.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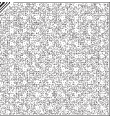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디어 출범식을 갖습니다.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한 지 57년, 중소기업청이 출범한 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매우 기쁘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고, 중소기업의 세일즈맨이 되어서 매일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각오를 많은 분들, 온 국민 앞에서 밝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일입니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기간산업과 대기업 육성



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빠르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 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드디어 출범하게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인 정부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중소·벤처기업처럼, 그리고 창업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신, 도전정신으로 일할 것을 당부합니다.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장으로부터 박수 받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77%의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거래 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 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의 3불(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입니다. 여러분 권익을堂堂하게 요구하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더 큰 꿈을 가져 주실 것도 당부합니다.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손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도 채 안 되는 9만 4,000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수출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으로 북으로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학 장관의 다짐을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게로 퍼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고 문재인정부 업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 12



## 제53회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서면 축하

2017. 12. 3

제53회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의 도쿄(東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일협력위원회는 창립 이래 50여 년간 양국 민간 교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로 53회를 맞는 협력위원회 합동총회는 양국 교류의 깊은 역사를 보여 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 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양국의 교류·협력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국 간에는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협력적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한일협력위원회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동선언이 양국 관계 진전에 큰 역할을 했듯이 이번 합동총회가 양국 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합동총회에서는 '한일 미래의 과제와 협력'에 대한 토론이 열립니

다. 상호 호혜적인 양국 관계 미래상을 그려 가기 위한 다양한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합동총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일협력위원회 관계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

2017. 12.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오늘은 한결 발걸음이 가볍고 가슴 뿌듯합니다. 제54회 무역의 날을 맞아 저는 여러분이 이룬 빛나는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무역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입니다. 무역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6위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 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 하고 국민께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겨 냈습니다. 정치위기뿐 아니라 경제위기도 이겨 냈습니다. 특히 무역인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수출을 오히려 크게 늘렸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 낸 값진 성과여서 더욱 자랑스롭습니다. 국내 생산 현장과 세계시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린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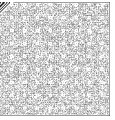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2017. 12. 5)

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그동안 수출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무역의 역사는 곧 경제발전의 역사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도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



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 4,000여 개, 불과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상(受賞)한 기업들처럼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어(Buyer) 발굴부터 계약·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확대는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도 스마트 팜을 통해 혁신창업과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무역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이 자

신과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도록 요청합니다. 정부도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우수 기업 사이의 제휴와 협력도 지원할 것입니다. 자체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통화 양적 완화의 축소, 유가 인상, 원화 강세 등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이겨 내려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계로 더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영역을 넓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무역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교역 상대국은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극동 지역에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경제협력 다리(9-Bridges 전략)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세안과는 사람중심의 번영과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성공도 결국 무역



인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세계를 향해 힘껏 달려 나갑시다. 저와 정부가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무역이 이끈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무역인 여러분과 우리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해 꿈을 키우고 이뤄 나갑시다. 무역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무역인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7 인터넷 기업인의 밤 영상 축사

2017. 12. 5

인터넷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인터넷 기업인의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인터넷 기업인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ADSL 상용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팅, 그래픽 기반 온라인 게임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 세계 최초로 서비스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 ‘벤처기업의 신화’를 만든 첫 번째 세대도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포털, 게임,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창 의와 도전정신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온 여러분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창업가, 인터넷 기업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 앞에 다시 섰습니다. 2000년대 정보화 물결을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조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의 전환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 것처럼 혁신기술 연구·개발 강화, 창업 지원과 신산업 규제완화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창업 기업인과 인터넷 기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기업인의 밤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산업 생태계 구성원 간에 상생과 혁신을 모색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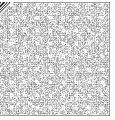
## 종교지도자 간담회

2017. 12. 6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을 청와대에 모시는 게 아주 늦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이 아주 대단한 저력을 보여 줍니다.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위기를 다 이겨 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려 냈습니다. 저는 촛불혁명이 그렇게 장기간 계속되고 그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도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명예롭게 시종일관 진행됐던 것은 종교의 힘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미국 방문부터 시작해 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여러 외교 무대에 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를 되살린 쾌거'로 다들 높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상당히 대접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우리 경제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시경제지표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늘어나서 아마 이달 12월 14일 무렵에는 교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취임 이후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시경제지표는 좋지만 경제호황의 결과가 아직 서민가계에 미치지 못해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청년일자리가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그 점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이겨 내면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치르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계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으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평화올림픽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 그리고 동북아 평화까지 이끌어 가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내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오늘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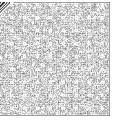
##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 간담회

2017. 12. 8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항상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먼저 전방과 후방, 지상·해상·공중, 해외 파병지에서 조국이 부여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주한미군 여러분의 기여에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장병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국민의 일상을 지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 지진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에서 보여 준 헌신적인 복구·구조 지원 활동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시에도 늘 국민과 함께 해 온 것은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 최전선에서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평화 수호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체가 바로 군입니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군 전체가 이 점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군과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육해공군은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JSA(Joint Security Area :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병사 귀순 상황에서 보여 준 한미 장병들의 대응 조치와 구호 활동 역시 평소 축적된 훈련이 긴박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군의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국민께서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안보와 평화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여러분은 군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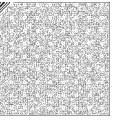
첫째,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합니다.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방위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군의 한미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 개혁 목표입니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듭니다.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자군(自軍)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발전에 맞춰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갑시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 나갑시다. 장병의 인권과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 스스로가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설계자이고 집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이 가장 영예롭고 보람된 제복이 되도록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동



계페럴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대, 그리고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방문] 중국 동포 간담회

2017.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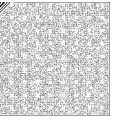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여기 베이징(北京)도 날씨가 꽤 추운데, 오시는 길에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니 아주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교민 여러분!

그동안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여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와 온 국민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한중 관계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지난 10월 말 중국도 호응해 왔습니다. 한중 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국민방문으로 양국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에게 소중한 한중 양국 커플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중국 사위, 중국 며느리지요. 잠깐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추자현·우효광 부부를 비롯해 양국을 하나로 이어 주는 한중 커플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한중 양국은 오랫동안 긴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중국이 번영할 때 한국도 함께 번영했고, 중국이 쇠퇴할 때 한국도 함께 쇠퇴했습니다. 두 나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도 함께 겪었고, 함께 항일 투쟁을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 왔습니다. 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입니다. 한국인은 중국인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한국인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희생자를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망명지에서 치열하게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 후손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십니다. 중국 곳곳에는 우리 애국선열의 혼과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만리타향(萬里他鄉)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애국심의 바탕에는 불의와 억압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지가 되어 준 중국 인민의 우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후손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는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애국애족의 정신과 한중 우호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서로 활약하신 김동진 지사의 따님 김연령 님과 손자 김과 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원으로 활동하신 김철남 지사의 아드님 김중평 님과 김정평 님, 조국 독립과 중국 혁명에 김산이라는 이름으로 투신하신 장지락 지사의 아드님 고영광 님, 그리고 애국지사 김진성 선생의 아드님 재중독립유공

자유족회 김세룡 회장님이시죠? 대표적인 몇 분만 거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의 후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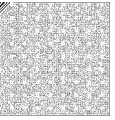
사랑하는 교민 여러분!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25년간 양국 간 교역과 인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2만 5,000여 개에 이르고, 최근에는 혁신창업을 통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조선 시대 중국과의 인삼 무역으로 거상이 된 임상옥은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한중 관계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를 경제 분야 발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시켜서 한중 관계가 외부 갈등 요인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어 왔으나 한중 FTA 후속 협상인 투자·서비스 협상에 박차를 가해 FTA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중국한국인회를 비롯하여 중국 내 한인 단체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민 사회와 진출 기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양국 공동번영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민 여러분!

곧 있으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1988년 동서양 진영이 모두 참석했던 서울올림픽은 전 세계 냉전 종식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도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재중한인회가 SNS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으로 평창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국민에게 큰 감동과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모아진 하나 된 열정이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중 양국의 우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한중 양국은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국의 이익과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정의 중심에는 지난 25년을 견인해 왔고 다가올 25년을 이끌고 나갈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힘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여정에 모아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해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방문]

## 한중 비즈니스 포럼

2017.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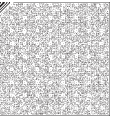
존경하는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님, 지양쥬웨이(姜增偉)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위원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입니다. 한국인은 중국인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가 존엄합니다. 사람의 목숨과 존엄함을 어떤 이유로든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이제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수교 이후 다섯 번째 중국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은 변화에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 25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한중 양국은 상



호 경제발전에 든든한 협력자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중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양꼬치와 칭다오(靑島) 맥주를 즐깁니다. 요즘은 중국 쓰촨(四川) 요리 마라탕(麻辣燙)이 새로운 유행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배우고, 《삼국지》와 《수호지》를 읽으며 호연지기를 길러 왔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에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본질적 유대 속에 양국은 지난 25년간 폭넓게 교류해 온 결과 오랜 우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인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한국 속담처럼 나는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모든 분야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보호무역주의와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과 중국은 모두 새로운 지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은 한국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인민이 정치의 중심임을 분명히 하고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통해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한국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목표로 삼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사람중심 경제’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강조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 패러다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25년의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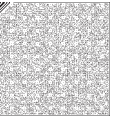
첫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여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양국의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을 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과 분야로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 경쟁적 산업의 제3국 공동 진출로 호혜상생(互惠相生)의 협력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에 기반한 사람중심 협력입니다.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숫자 8(八)이 ‘부(富)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 사랑받는 숫자라고 들었습니다. 한중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8대 협력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발효 3년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입니다. 양국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역·관세·비관세 장벽 등 교역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양국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을 열고 반도체·철강 등 산업별 민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역 분야 다양화와 디지털 무역으로 양국 교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역 및 투자를 전통 제조업에서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국은 발전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타오족(海淘族)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한국의 식품·화장품·유아용품을 구입하는 주된 고객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티엔마오(天貓: T-mall), 타오바오(淘寶網)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제품을 직접 구매합니다. 배송·통관·반품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양국 기업의 상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확대하여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국 모두 혁신경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드론, 전기차 등의 신산업 분야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험을 중국과 공유하여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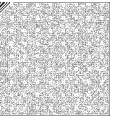
넷째,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대응하여 ‘대중창업(大眾創業), 만중창신(萬眾創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1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 창업과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분야도 협력을 강화할 유망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최대 생산국이며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아울러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 Grid)’와 같은 초국가적 광역 전력망을 연계하고 에너지 신기술 공동 개발로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환경 분야 협력은 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연설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기치로 ‘생태환경 개발’을 향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대기 정화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 저감 기술을 중국의 제철과 석탄 화력 분야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청정 생산 공정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개발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프라 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입니다. 중국은 60여 개 연선(沿線) 국가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도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이웃 국가들과 발전적 미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양국 공통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중 기업의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을 제안합니다. 수단 신공항 건설,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등 이미 한중 공동 진출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중 공동투자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신개발은행(NDB : New Development Bank) 같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발전에 함께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째입니다. 사람중심의 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과 베이징(北京), 인천과 상하이(上海)는 비행시간 2시간 거리입니다. 양국 국민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일일생활권입니다. 한국에는 한류(漢流)문화가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중국에도 한류(韓流)문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한중 합작 투자를 통해 양국의 드라마와 공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교류하겠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협력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 압도적 1위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에도 7만 3,000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문 교류와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하여 미래의 지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25년간 양국이 우정과 협력의 물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25년은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배를 띄워야 합니다. 중국의 번영은 한국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번영은 중국의 번영에 도움이 됩니다.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

체입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반드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경제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양 국가의 발전입니다.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나와 한국 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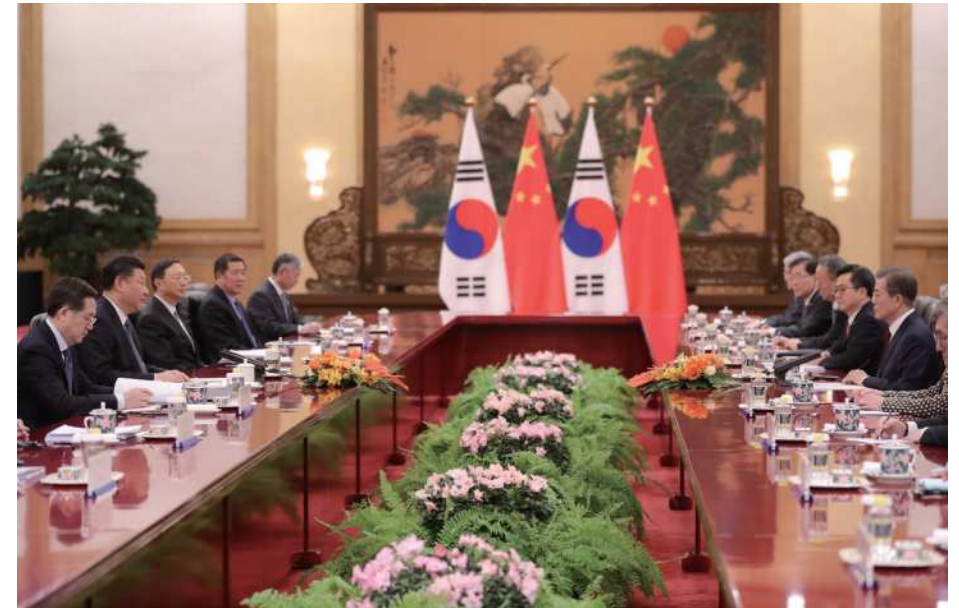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2017. 12. 14

국민으로 초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시진핑(習近平) 주석님과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난징대학살 80주년 국가 추도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교 바로 다음해인 1993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방문인데, 매번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중국의 발전상에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동북아에서 탈냉전 질서의 서막을 연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후 25년간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매일 300여 편에 가까운 항공편으로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그간 우리 양국과 양 국민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통해 이룩한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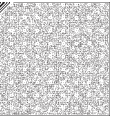
저는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시 주석님이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은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중 정상회담(2017. 12. 14)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께서 민주적인 리더십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환경 발전과 같은 가치를 제시하신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저의 정치 철학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였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수교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양국은 일방의 경제발전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왕지래(觀往知來)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 나가기 위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방문] 베이징(北京)대학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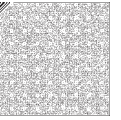
2017. 12. 15

베이징(北京)대학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하오핑(郝平) 당서기님, 린젠화(林建華) 총장님, 따지아 하오(大家好 :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학이며 최고의 명문 베이징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약 2주 후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 베이징대학 개교 12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입니다.

베이징대학의 4대 자랑거리가 일탑호도(一塔湖圖)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캠퍼스 중앙의 호수 ‘미명호(未名湖 : 이름 없는 호수)’, 거기에 비치는 보야탑(博雅塔)의 모습은 과연 명불허전(名不虛傳)입니다. 아울러 1,0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여러분의 큰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말고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곳은 중국 현대사의 발자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세기 초 여러분의 선배들은 5·4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름을 다 열



베이징(北京)대학 연설(2017. 12. 15)

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애국·민주·진보·과학의 전통에 따라 중국의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5·4운동을 주도한 천두슈(陳獨秀), 중국 공산당을 창시한 리따자오(李大釗)를 비롯하여 역사적 인물들은 물론 오늘 내가 오후에 만날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베이징대학의 동문입니다.

한국의 근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 중에도 이곳 베이징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1920년대 베이징대학 사학과에서 수학하였던 이윤재 선생은 우리말과 글 말살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켜 내서 나라를 잃은 어두운 시절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오늘날 베이징대학에는 1,000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정신, 창의적 발상, 다른 문화적 배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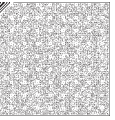
‘두루 포용(兼容并包)’하는 베이징대학의 개방적 학풍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분 모두 ‘신창타이(新常態)’ 중국과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베이징대학의 자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베이징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 속에서 더욱 빛나듯 한중 관계도 수천 년에 걸친 교류와 우호 친선의 역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베이징을 다녀온 후 중국을 배우자는 뜻으로 《북학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며 집은 금색으로 채색되었다. 수레를 타고 다니며 어느 곳이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니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대 베이징에 온 홍대용이란 학자는 엄성(嚴誠), 육비(陸飛), 반정균(潘庭筠) 등 중국 학자들과 ‘천애지기(天涯知己)’를 맺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알아주는 각별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도량이 넓고 기운이 시원스럽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이 ‘천애지기’가 수만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인 유학생 6만 8,0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인 유학생 7만 3,0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양국을 오간 사람의 숫자는 1,30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가까움 속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문화와 정서를 공유해 왔습니다.

지난여름 한국에서 중국의 세계적 화가 치바이스(齊白石)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나의 아내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나는 치바이스의 10권짜리 도록 전집을



보면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정서적 공감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지금도 매일 같이 중국문화를 접합니다. 많은 소년들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읽고, 청년들은 루쉰(魯迅)의 <광인일기(狂人日記)>와 <아큐정전(阿Q正傳)>을 읽습니다.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는 여전히 삶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와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한국인들은 좋아합니다.

나도 <삼국지연의>를 좋아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은 유비가 백성들을 이끌고 신야(新野)에서 강릉(江陵)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입니다. 적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루 10리밖에 전진하지 못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유비의 모습은 ‘사람이 먼저’라는 나의 정치철학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 ‘한류(韓流)’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한류(漢流)’는 더욱 오래 되고 폭이 넓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중국의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다오(靑島) 맥주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중국의 쓰촨(四川) 요리 마라탕(麻辣燙)이 한국의 대학가에서 새로운 유행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문물을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비취색으로 빛나는 고려청자, 세계 최초로 발명된 고려의 금속활자, 조선의 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등은 당대의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중국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한류(韓流)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공통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어온 역사가 길고 함께하는 추억이 많기 때문에 한류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가 눈부시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오랜 세월 쌓아온 추억과 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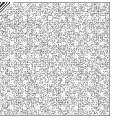
학생 여러분!

1992년 한중 수교는 동북아의 냉전 구도를 허물고, 끊어졌던 교류의 역사를 다시 이으려는 양국 지도자들의 위대한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나는 수교 직후인 1993년, 내가 변호사로 일하던 부산시 변호사회와 중국 상하이(上海)시 율사회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교 이후 비교적 일찍 중국을 방문한 셈입니다. 그 후 몇 번 더 중국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은 변화의 모습에 놀라고 감동받습니다.

1993년 당시 상하이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만큼이나 지난 25년간 양국 관계 역시 상전벽해라 할 만큼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으며, 동북아가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협력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번영하고 개방적이었을 때 한국도 함께 번영하며 개방적인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당나라와 한국의 통일신라, 송나라와 한국의 고려, 명나라와 한국의 조선 초기가 양국이 함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대표적인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였고 중국이 이끄는 동양 문명은 서양 문명보다 앞섰습니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단지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依法治國)과 의덕치국(依德治國),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 전략 속에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中國夢)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나는 중국이 더 많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이 꿈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입니다.

베이징대학 학생 여러분!

내가 중국에 도착한 13일은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 국가 추도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인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과 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행했던 역사로 인해 희생되거나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께 위로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과거를 직시하고 성찰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虹口)공원에서 조선 청년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곳에서 개최된 일제의 전승 축하 기념식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봉길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거사로 한국의 항일운동은 중국과 더 깊게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고 사형 당했지만 지금 ‘루쉰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홍커우공원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매원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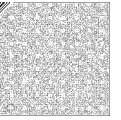
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의 관우는 충의와 의리의 상징으로 서울의 동묘를 비롯해 여러 지방에 관제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완도군에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한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陳璘) 장군을 함께 기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진린 장군의 후손 2,000여 명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광주시에는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율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한국의 항일 군사학교였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저우 봉기(廣州起義: 광저우 코뮌)에도 참여한 김산입니다. 그는 연안에서 항일군정대학의 교수를 지낸 중국 공산당의 동지입니다. 나는 엿그제 13일 그의 손자 고우원 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국인이지만 조선인 할아버지를 존경하며 한국과 중국 사이의 깊은 우정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입니다. 나는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러한 동지적 신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는 한국과 중국이 ‘식민 제국주의’를 함께 이겨 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5차례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6차 핵실험도 감행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과 이



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립과 대결이 아닙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절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뤄 내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 2월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스포츠인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중국을 포함한 157개국의 공동 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바라는 세계인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일본 도쿄(東京)에서 하계올림픽이, 2022년에는 이곳 베이징에서 다음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동북아에서 연속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공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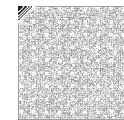
한국 국민도 우다징(武大靖), 판커신(范可新), 리즈쥘(李佳軍) 등 중국 동계 스포츠 스타들의 경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두 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국민의 많은 응원을 당부합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지난여름 휴가기간 중 《명견만리》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중국의 3.0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중국의 젊은이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도전정신으로 탄생한 것이 알리바바(Alibaba)·텐센트(Tencent)와 같은 세계적 기업일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학 중인 양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뛰고자 하는 누구보다도 강한 도전정신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의 여러 대학은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이 한 팀을 이뤄 한중 기업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양국 젊은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드론, 가상현실,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ICT 강국의 전통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양국은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지도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 25년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놀라운 만한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중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더욱 무한합니다. 양국은 경제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중국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양국의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또한 수교 25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증명하듯이 양국은 한쪽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ICT,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여성, 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간 전략적 정책 협력을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제19차 당대회에서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과 ‘중국의 꿈(中國夢)’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정부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기조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의 소강사회의 꿈과 한국의 사람중심 경제 목표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숫자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본정신이 같기 때문입니다. 한중 양국이 이러한 정책 목표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중 양국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발전, 더 나아가 인류 공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베이징대학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하오핑 당 서기님, 린젠화 총장님!

왕안석(王安石)의 시 <명비곡(明妃曲)>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人生樂在相之心(인생락재상지심) :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나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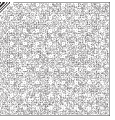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이어진 한중 교류의 역사는 양국 간의 우호와 신뢰가 결코 쉽게 흔들릴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소통과 이해’를 국정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서예 작품 한 점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소통하다’는 의미를 가진 ‘통(通)’이라는 글자가 쓰인 서예작품입니다. <주역(周易)>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 “窮即變 變即通 通即久(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말의 ‘통’ 자를 따서 쓴 것입니다. 양국 정상·정부·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신뢰 구축과 관계 발전의 기본이라는 뜻으로 드린 선물입니다. 두 나라가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성 있는 ‘전략적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도자 간에, 정부 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양국 국민 공통의 염원이며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만큼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5년 전의 수교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양국이 함께 열어 나갈 새로운 25년도 많은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중국의 대문호 루쉰 선생은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밝은 미래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방문]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2017. 12. 16

여기 충칭(重慶)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는 곳이고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광복군이라 하면 우리는 비정규적인 군대, 조선 독립을 위해 총을 들었던 비정규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던 우리 광복군은 정식으로 군대 편제를 갖추고 군사훈련을 받고, 군복도 갖추고, 국내로 진공(進攻)해서 일제에 맞서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던 정규 군대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군의 진공 작전을 앞두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작전을 실행하지 못한 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두고두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선열이 중국 각지를 떠돌면서 항일 독립운동에 바쳤던 피와 눈물, 그리고 혼과 숨결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열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선열의 후손을 이렇게 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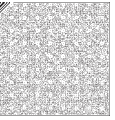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건국 100주년이 되도록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대로 기념하고 기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안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종찬 위원장이 건립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김자동 회장이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지는 마련됐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해서 조기에 임시정부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 흩어진 독립운동 사적지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임시정부 청사는 다행스럽게 충칭시의 지원 덕분에 그래도 보존이 잘됐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충칭시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아직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복원하기로 양국 정부 간 합의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양국 관계가 주춤하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때 다시 한번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고, 시진핑 주석도 관심을 가지기로 하셨습니다. 총사령부 건물도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보니 가슴이 메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맞이하는 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격 있는 나라로 우뚝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중국 방문]

##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

2017. 12. 16

장궈칭(張國淸) 시장님, 오우순칭 비서장님, 송쉐(熊雪) 상무위원회 주임님,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양국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경제와 정치의 요충지인 이곳 충칭(重慶)에서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충칭은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한국인이 즐겨 읽는 <삼국지>의 영웅들, 유비·관우·장비가 웅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충칭은 또한 한국인에게 매우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한국 독립운동의 혼과 숨결이 서려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곳 충칭에서 중국 인민과 함께 고국 광복의 기쁜 소식에 서로 열싸안았을 선조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양국 기업인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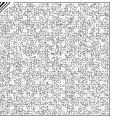
오늘의 충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권의 거점 지역으로 매년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칭의 새 역사를 70여 개 한국의 대기업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역사 현장에

서 우의와 협력의 길을 열고 있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를 잇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인류 문명의 통로였던 실크로드를 내륙과 해양 양면에서 21세기 호혜상생(互惠相生)의 연결망으로 부활시키는 일대일로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와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물은 만나고 모일수록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동도합(志同道合), 뜻이 같으면 길도 합쳐지는 법입니다. 일대일로 구상과 신북방·신남방정책 간의 연계는 양국을 비롯한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인류 공영을 이끄는 힘찬 물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한 한중 협력의 네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역내 국가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은 6대 경제회랑(經濟走廊) 건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경제회랑이 유라시아 동쪽 끝,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한반도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적극 추진 중인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간 연결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과 만난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항공·해상 운송망이 사통팔달(四通八達)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 육성, 초국가 간 전력망 연계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크로드도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평을 양국이 선구적으로 열어 가는 협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중 기업 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국건설은행이 양국 기업의 인프라 시장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KDB산업은행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공동 출자하여 신흥 아시아펀드를 조성한 것처럼 다자 개발은행과 협력도 강화하여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중투자협력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와 금융 지원의 기반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 간의 교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은 역내 무역 장벽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동반자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는 일대일로 구상의 5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무역창통(貿易暢通)'과 맥을 같이합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의 흐름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전자통관·무역시스템 도입, 통관·검역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적용을 통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경제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양국 교역에 든든한 교량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그 교량을 더 확장하기 위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한중 경제가 더 폭넓게 개방되고 풍성한 호혜상생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양국은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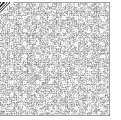
끝으로 충칭을 비롯한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 5개 성과 경제협력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도 중국 33개 성 및성급시(省級市)와 640여 건의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경제발전 전략을 갖춘 도시 간, 경제특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국 기업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양국 기업인 여러분!

나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펴는 중국의 꿈(中國夢)과 만났습니다. 충칭에서는 담대한 꿈의 도약대인 일대일로 구상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충칭은 양국 국민의 깊은 인연과 공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도시입니다. 오늘 포럼이 '겹경사'라는 충칭의 이름 유래처럼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경사, 양국 기업 발전을 위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사, 또한 충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경사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양국 기업인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17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간담회

2017. 12. 18

재외공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오셨고, 관계부처 장관님들도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 외교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얼굴로 뛰고 계신 공관장들과 이렇게 한자리에서 마주하니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 갖게 된 자리인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돌아보면 취임 후 7개월간 한 달가량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7개국을 방문했고 유엔총회, G20 정상회의,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다자회의에 참가했으며, 정상급 회담을 40여 회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민 영접을 세 번 했고 많은 외빈을 접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외교는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외교 공백을 채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잘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4대국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혀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원칙, 사람중심 경제와 같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큰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치실까요?

재외공관장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정부의 국정철학을 외교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 바로 국익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서 분단된 채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라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과 동떨어진 한반도 남쪽의 섬처럼 될 수도 있고, 대륙과 해양으로 두루 통하는 길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조건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국익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안보와 평화와 경제 번영을 안정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끄는 외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가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입



니다. 국익중심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실용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 우방국과의 전통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다변화를 모색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주변 4대국과의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 가면서도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에 더 많은 외교적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년에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과 므타(MIKTA : Mexico · 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와 같은 중견국 외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연계하여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외교부가 되어주시길 당부합니다. 외교부가 중심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국익 중심의 외교는 비단 외교부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 외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외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외공관장 여러분!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국익 중심 외교는 곧 국민 중심 외교입니다. 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그간 정상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교의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을 존중했고, 덕분에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외교가 헤쳐가야 할 난제일수록 국민의 상식, 국민의 지혜에서 답을 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익을 실현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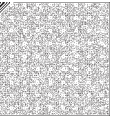
것은 결국 국민을 이롭게 하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과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외교정책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때 우리의 외교 역량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주적 외교 공간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달 발리(Bali) 섬에 고립되었던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와 국민에게 재외공관은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외공관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외공관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동포와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외여행객 2,000만 시대, 재외동포 740만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장 여러분!

최근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리더십 아래 ‘공감의 혁신’ 로드맵과 이행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외교부 명운이 조직 혁신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 성공하고 국익과 국민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역량 높은 인재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사기와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합리적인 차별 요소들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그간 우리 외교가 국력이 비슷한 다른 국가, 폭증한 외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여러분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력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인프



라 확충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서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공관장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재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외교를 해 주십시오. 우리 외교는 힘이나 돈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동남아 순방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중심 외교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사가 현지어로 노래를 부르고, 현지어로 시를 낭송하면서 주재국 국민과 마음을 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외교 현장은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충성 없는 전쟁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공감과 지지를 끌어 내는 것은 결국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것은 이제 재외공관장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외공관장 여러분!

곧 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민의 힘찬 성원을 받으며 그간 준비해 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태극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임지도 올림픽 경기장의 치열한 승부 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금메달의 영광도 없고 국민의 환호도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익과 국민중심의 외교를 위해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모두 쏟아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TX 경강선(서울~강릉) 시승 및 오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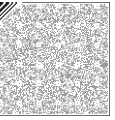
2017. 12. 19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우 평창’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대통령과의 식사에 당첨됐을 때 아마 청와대로 초청돼서 아주 근사한 식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은데, 혹시 실망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이 열차가 공식 개통되기 전에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1호 승객,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KTX 기차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전무(全無), 그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영 없다는 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좀처럼 깨어지지 않을 기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청와대에서 아주 큰 밥상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착실히 잘하고 있고, KTX 경강선이 22일에 개통되는 등 교통 인프라도 올해 안으로 완비가 될 계획이거든요. 준비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부터는 홍보와 붐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홍보와 붐업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밥도 ‘강원 나물밥’으로 특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평창동계올림픽



KTX 경강선(서울~강릉) 시승 및 오찬 간담회(2017. 12. 19)

픽을 위해서 강원도분들이 외국 손님을 맞이할 때 내놓을 특별한 식단으로 준비한 것 같으니 다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워크숍 격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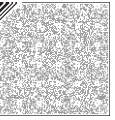
2017. 12. 19

자원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대회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한 자원봉사자 리더들은 20세 대학생부터 50대 중년까지 남녀노소가 다 함께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열정 하나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자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말 그대로 ‘하나 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장 최일선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력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봉사 하나하나가 올림픽 성공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곧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기꺼이 자원봉사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이웃이 고통 받고 있을 때 많은 국민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함께하고 돕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헌신 덕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창(平昌)이라는 이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자 워크숍 격려 방문(2017. 12. 19)

를 그대로 평화와 번창의 올림픽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1주년 기념 서면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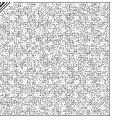
2017. 12. 19

안녕하십니까?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1주년 기념 행사 개최와 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현봉학 박사님과의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1950년 겨울 홍남부두에 가득했던 절망과 탄식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 낸 현봉학 박사님의 숭고한 용기와 사랑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저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방문했고,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찾아 미군의 숭고한 희생과 홍남철수작전에서 보여 주었던 인도주의를 기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많은 국민은 장진호전투에 이은 홍남철수, 그리고 현봉학 박사님의 헌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장진호 용사들과 미 해병대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켜 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분이 바로 현봉학 박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45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박사님은 뛰어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의대 교수로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전력하셨고, 한미 양국 의학계의 교류와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고문을 맡아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남북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생의 정신이 더욱 소중해지고 있는 지금 박사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국과 인류를 사랑했던 박사님의 따뜻한 마음,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셨던 의로운 뜻을 이어 가고 승화시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봉학 박사님의 생애와 업적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길 당부합니다.

고(故) 현봉학 박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2017. 12. 21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을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공부문과 보건의료, 그리고 금융산업 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어서 더 뜻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노동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왔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께서 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가 뜻깊은 제안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 성과급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뜻깊은 일입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 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 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서 마침내 노사정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 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을 정상화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양보와 희생의 어려움과 함께 노사 간 신뢰와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사회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을 배제한 과거 성장중심 전략을 바꾸어 극심한 경제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 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 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별 교섭

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전북대병원, 경기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부터 상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 전체가 함께할 것이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동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한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다 고맙습니다만 특별히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기운 듬뿍 받고 빨리 쾌유하시라고 다들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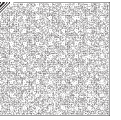
2017. 12. 26

새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첫 모임입니다. 조금 마음이 급했는데 이렇게 첫 모임을 갖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이 전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선 민간위원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가 되었고, 여성위원 비중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다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재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큼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40만 명대도 무너지고 36만 명,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은 1.06 또는 1.07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세계적으로 초저출산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 보면 무려 200조 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2017. 12. 26)

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벌써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저출산대책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대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 정부 대책이 저출산

분위기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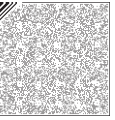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저출산대책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저출산대책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모아 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당부하자면 기존에 있어 왔던 저출산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의 삶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해 나가면서, 또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논의에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대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은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까지 확장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들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일을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2017. 1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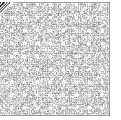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  
다. 자문위원직을 기꺼이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두 부의장님을 비롯해 한 분 한 분이 귀중한 분들입니다. 거시경제분과 주  
상영 교수님, 민생경제분과 김홍균 교수님, 혁신경제분과 김기찬 교수님, 대외경  
제분과 정영록 교수님, 모두 고맙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 기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은 물론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  
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 정부는 자문  
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로 국정기조를 이끌어가기 위한 ‘경제정책회의’를 신설  
했습니다. 자문회의의 활성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  
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붓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 소득 주도 성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적표도 다행스럽습니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정부 각 부처와 또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Echo-boom)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자신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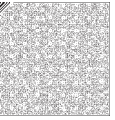
일자리란 국민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19조 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2017. 12. 27)

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 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합니다.

혁신성장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등 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



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백지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건설해 보는 것입니다.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누가, 또 어느 나라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이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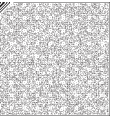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 관계 피해 구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

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이 경제 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자신을 가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좋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2017. 12. 28

반갑습니다. 부의장님과 여러 자문위원님들을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갈 자문위원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기구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문재인정부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세계적 물리학자인 염한웅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연구·개발·벤처기업·법률·과학·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들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구성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젊어지고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남녀 비율도 반반을 이루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대화와 혁신으로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과학기술과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기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혁신성장이 새 정부의 주요 성장 전

략이기 때문에 자문회의와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국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권을 초월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비전 실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과학기술은 발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체감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자문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진·미세먼지·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과학자와 장애·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2017. 12. 28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왕성한 호기심과 도전정신,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과학 인재 여러분!

이 자리에는 장애와 질병을 딛고 과학자의 길로 힘찬 발걸음을 걷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공부의 성과를 지역의 어린이들, 배움을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후진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인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꿈은 세상과 통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열정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 줄 수 있을 만큼 크고 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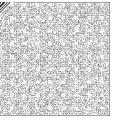


‘도전하는 내일, 사람을 향한 꿈’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2017. 12. 28)

미래 과학자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과학의 길에 먼저 발걸음을 내디딘 수많은 선배들, 인류의 지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 혁신은 그분들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걸어갈 과학자의 길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박사후 연구원의 적정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연수와 같은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청년과학자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



혁신 실험실 연구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일자리는 국민 일자리를 만드는 산실이기도 합니다.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가 기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 연구·개발과 연구산업을 활성화해 과학기술 인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겠습니다. 또한 임기 내에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두 배 수준인 2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자의 인내와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집중과 소통,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룰 때 탄생합니다. 충분히 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병역과 출산, 육아로 인한 젊은 과학자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과학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과학입국(科學立國)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헤치고,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 가는 선두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과 모험의 길에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뜻과 포부가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TF 조사 결과 관련 SNS 메시지

2017. 12. 28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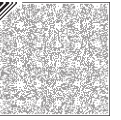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 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2018. 1



## 2018 신년 산행 SNS 메시지

2018. 1. 1

북한산 비봉 사모바위에서 무술년 새해 새 아침의 일출을 맞았습니다.

저는 새해 새 아침의 해맞이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유명한 곳을 찾기도 하고, 가까운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양산에서 살 땐 마침 집 뒷산 봉우리에서 동해의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새해 첫 새벽마다 그곳에 올랐습니다.

새해 새 아침에 새로운 기운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소망을 되새겨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한 것 같지 않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작년엔 광주 무등산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았습니다. 그때 품었던 소망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은 대단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바로 세웠습니다.

새해 새 일출을 보며 새로운 소망들을 품습니다.

새해엔 국민이 나아진 삶으로 보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동계



2018 신년 산행(2018. 1. 1)

패럴림픽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합니다. 재해, 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새해를 온 국민과 함께 희망과 긍정, 낙관으로 맞고 싶습니다.

북한산에 오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듯이,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엔 더 큰 복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 2018 무술년 신년 인사회

2018. 1. 2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부 요인을 비롯한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 한 해를 특별하게 기억하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능을 앞두고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포항여고 학생이 왔습니다.

정규직의 꿈을 이룬 비정규직 노동자도 계십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과 맨손으로 아이를 구조한 소방관 등 작년 한 해에 있었던 미담의 주인공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환영의 큰 박수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작년은 참으로 극적인 한 해였습니다. 2017년은 우리 역사에 촛불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경탄시킨 세계사적 쾌거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회담하고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촛불혁명이 우리 외교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강대국의 주변부처럼 바라보면서 왜소하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강한 중견국

가로서 주체적이고 당당해질 때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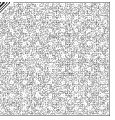
작년 우리 경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으로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하며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값진 성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를 위해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도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나라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삶도 바뀔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국민께서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도 계속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이 국가와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 일이고,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 대화가 꽃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 갈등 사안을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노사 간에도 상생을 위한 뜻있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



고 힘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여야 대화, 국회와 정부 간의 대화도 한층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비난하기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못 해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모아져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루게 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새 아침이 되면 많은 국민이 첫 해맞이를 하며 소망을 빕니다. 저도 어제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소망을 빌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마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회담의 뜻을 밝혀 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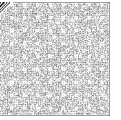
또 하나는 국민안전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와 사고를 겪으면서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에 잠긴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이 갖게 된 집단적 염원입니다. 그

러나 지난 한 해 우리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무술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술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쇄빙LNG선박 건조 현장 방문

2018. 1.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바닷바람이 아주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세계 최초·최고의 쇄빙LNG 운반선 위에 올라 자긍심을 가득 느끼고 있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른 새해의 태양과 여러분의 열정으로 가슴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또한 고향 거제에 오니 제가 가졌던 꿈,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되새기게 됩니다.

바다를 향한 대한민국 조선업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우리 국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는 국민께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이곳 거제도 대우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배는 북극해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세계 최초의 쇄빙LNG운반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 2014년에 총 15척의 선박을 수주하였습니다. 이 선박의 1호선은 작년 8월 노르웨이 함페르페스트(Hammerfest)에서 출항하여 안전하게 대한민국 보령항에 입항했습니다. 다른 쇄빙선 호위 없이 자체 쇄빙

기능만으로 북극 항로 운항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기존의 남방 항로에 비해 운송 거리·시간·비용을 3분의 1이나 절감했습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이룬 쾌거입니다. 동시에 기업인과 노동자, 조선산업 종사자 모든 분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우리 조선산업의 기술 수준과 개척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러시아 북극 탐험가 이름을 딴 5호선 블라디미르 루자노프호가 내일 거제를 떠나 시험 운항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출항을 축하하고 시험 운항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여러분, 조선산업 관계자 여러분!

영하 52℃ 극한 환경에서 2m 두께의 얼음을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이 쇄빙선 위에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개방·통상 국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강국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조선산업은 수주 감소로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조선산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걱정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LNG운반선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 힘든 시기만 잘 이겨 낸다면 우리가 다시 조선 강국



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은 2~3년 후부터는 조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환경·연비 등 해운 규제 강화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LNG연료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불황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정부는 LNG연료선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쇄빙연구선, 밀수감시선 등 공공 선박의 발주를 늘리겠습니다. 19억 달러 규모의 선박 발주 프로그램, 노후 선박 교체 지원 보조금 등을 통해 민간 선사의 LNG연료선 발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은 해양 플랜트 수요 창출로 조선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자율 운항 기술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자재 실증(實證), 자율운항 핵심 기술과 선박 개발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해운업·금융·기자재 협력 업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도 서두르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1/4분기 중에 마련하여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선산업 종사자 여러분!

저는 오늘 조선업 종사자들이 땀으로 담금질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해양을 누비고 얼어붙은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만났습니다. 이곳 거제 학동의 동백나무 숲은 겨울 추위를 뚫고 붉은 꽃을 피워 냈습니다. 여러분은 사상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북극을 향해 희망의 쇄빙선을 띄웠습

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희망을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올해 무술년은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황금은 경제를, 개는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부지런하게 나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올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희망을 완성해 냅시다. 내일 출항하는 쇄빙선처럼 올 한 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 2018 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회 영상 축사

2018. 1. 3

존경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정치 격동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700만 촛불이 요구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에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촛불이 만든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개혁의 완수를 위해 우리는 더 굳게 손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부와 시민을 잇는 가교가 되고 때로는 매서운 감시자로 촛불민심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영역에서 성과를 냈지만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지만 당국 간 관계가 단절된 상황일수록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건강을 잃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새해에는 시민사회단체도 시민사회 활동가도 아프지 말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초청 오찬 간담회

2018. 1. 4

우리 할머니들, 새해에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나이로 아흔하나, 만으로 아흔이시거든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저희 어머니도 자주 못 뵙니다만 할머니들하고 같은 연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뵙는 게 마치 저희 어머니 뵙는 것 같은 반가운 마음입니다.

부산에서 1990년대 초반에 부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설립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수요집회에도 여러 번 갔었고, 나눔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대구에 문옥주 할머니 묘소에 참배도 하면서 할머니들을 쫓 만나 왔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할머니들 몇 분을 개별적으로 뵈는 적만 있어서 모두 함께 청와대에 모셔야겠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 때문에 다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청와대에서 할머니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입원해 계시다고 해서 방금 제가 연세대병원에 문병을 하고 왔습니다. 국가가 할머니들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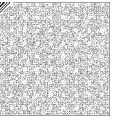
그리고 오늘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나눔의 집에서 할머



일본군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2018. 1. 4)

니들하고 오랫동안 함께해 온 단체들과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국민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들은 아주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 드리고 한을 풀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 할머니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일본과 하게 되어서 정말 할머니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합의는 내용이 잘못됐



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였고, 절차적으로도 피해자인 우리 할머니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어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외교부에서 TF를 통해서 내용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합의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편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작년 촛불집회 때 광화문 단상에 오르셔서 아리랑을 부르시며 “내 나이가 아흔인데, 내 나이가 딱 활동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위안부 문제는 진실을 찾고 정의를 찾을 때까지 건강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인사 및 오찬 간담회

2018. 1. 5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노인의 날 행사에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려서 죄송했는데, 오늘 이렇게 청와대로 모시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새해를 맞아서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무술년 새해 어르신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어야 자식들도 잘될 텐데’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바람 속에서 나무뿌리가 더 굳게 내리듯 나라가 굳건히 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전 세계가 경이롭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부지런하고 바른 품성을 물려주신 어르신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망국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후대들이 민주주의에서도 세



게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 양면으로 초석을 잘 다져 주신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올해는 대한민국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더 존경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달 9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입니다. 88서울올림픽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5,00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6배나 성장해서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는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서울올림픽 이후 30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침 북한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의 뜻을 밝혀 왔습니다. 아직 성급한 낙관이나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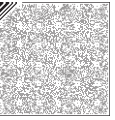
경제도 더욱 키워 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다. 자식 세대가 일자리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님 잘 모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

이 어르신들의 행복이고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 혜택이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이 “내 삶이 좋아졌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챙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사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만 원인 기초연금 기준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568억 원을 투입해 공익 활동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활동수당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는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1,117억 원 증액했습니다. 4만 7,000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는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틀니를 하실 때도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플란트 비용 부담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1,400여억 원을 투입해 지금 전국 252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24만여 명이 추가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아직 정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50년간 해 오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새해에도 큰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늘 국가 원로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올겨울 추위가 유난히 매섭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내년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18 여성계 신년 인사회 영상 축사

2018.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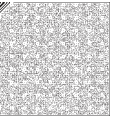
존경하는 여성계 지도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성평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덕분입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성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의 슬로건처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평등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모두가 함께, 더 힘차게 노력해 가야겠습니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마음껏 꿈꾸고 일할 수 있도록 공



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하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여성 폭력 범죄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쉬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다면 우리의 노력이 국민께서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새해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18 농업인 신년 인사회 영상 축사

2018.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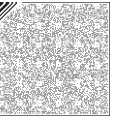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업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농업인 신년 인사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지켜 온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민은 아니지만 농촌에 살면서 농민들의 노고와 애환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말로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인 현실, 풍년이 들어도 기뻐할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 소득과 직결된 쌀 수급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 격리를 비롯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책으로 폭락했던 수확기 산지 쌀값을 평년 수준까지 회복시켰습니다. 「청탁금지법」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인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정부는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물론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 모두 농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



어 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가 농업과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북돋우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8년 새해 농업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18 신년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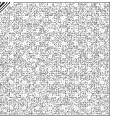
2018. 1.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주셨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께 응답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일 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의 질로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를 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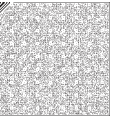
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 2,000개의 스마트 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께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아 억울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장을 중소기업과 국민께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 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불완전 금융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2018 신년 기자회견(2018. 1.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 안전, 산업 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청

소년 폭력, 젠더 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범정부적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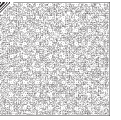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과로사회(過勞社會)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는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줄여 드립니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8,600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판로 개척도 도울 것입니다. 3월에 정책금융기관



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 이용권이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나고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국민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 작년 중증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육아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 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직장맘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신고리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됩니다.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꽉 막혀 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합의했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야 합니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핵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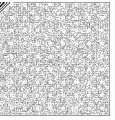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 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 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께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 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에게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 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시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3회 미주 한인의 날 서면 축하

2018.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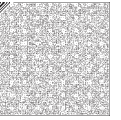
사랑하는 미주동포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3회 미주 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만났던 미주 동포들 생각이 납니다. 거리 곳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작년 한 해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15년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제물포항에서 출발해 1903년 1월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항에 도착한 102명의 선조들이 첫 한인 이민자였습니다. 이후 각지로 흩어진 한인들은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에 뿌리내렸습니다. 미국인들도 우정과 환대로 동포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미국의 친구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주 한인들의 애국심은 대한민국 역사의 마디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국권 회복과 경제발전에 기꺼이 힘을 보태 주셨고, 지난겨울에는 촛불로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미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동포들의 개척정신과 근면함은 더욱 빛났습니다.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들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미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러한 동포들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2005년에 ‘미주 한인  
인의 날’을 만장일치로 지정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성장은 한민족과 740만 해외 동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됩니  
다. 여러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동포들이 피  
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테러나 범죄, 자연재해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연  
락이 닿고 끝까지 힘이 되어 주는 조국이 되겠습니다. 동포 사회의 역량 확대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세대들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  
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곧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국민은 언  
제나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뜨겁습니다.

다행히 북한도 우리의 열의에 호응해 왔습니다. 막혔던 남북대화 채널이 복원  
되었습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얼마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평화올림  
픽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과 미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서울올림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에 손 잡고’ 노래와 함께 냉전  
구도 종식과 동서 화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2월 평창에서 평화와 화합의 역  
사가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  
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식

2018. 1. 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공항 관계자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힘찬 기상을 보았습니다. 세계의 하늘을 열기 위  
해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양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  
어줄 인천국제공항의 도약을 힘껏 응원합니다.

이 자리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 온 주인공들, 건설 관계자와 공항 종사자 여  
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바다 위에 기적처럼 건설되었습니  
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건설 기술의 집결체입니다. 대규모 복합 공사인 3단  
계 건설도 우리 기술로 이루어 냈습니다. 건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에 국민과 외국인의 발걸음이 늘어날수록 공항 종사자 여러분의 손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안전·검역·이용 편의를 책임지는 여러분의 어깨가 더욱 무  
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국민 일상과 안전을 소중  
히 지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 Airport Service  
Quality) 1위라는 금자탑이 돌아왔습니다. 공항 평가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성장시켜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여객터미널의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의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터미널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이 위치 기반으로 길을 안내하고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니, 이제 복잡한 공항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탑승 수속과 보안 검색 속도입니다. 항공권 발권뿐만 아니라 수하물 위탁도 자율수속기(Self Check-in)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은 360도 회전 검색대가 설치되어 더 정밀한 검색은 물론 검색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3차원 안내 지도를 통해 탑승구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속 시간이 총 50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터미널 안에 설치된 공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겨울에도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승객들이 잠시 쉬어갈 만합니다.

모든 시스템에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승객 편의와 편안함을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 공항’이 구현되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 공항 종합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취항사가 52개에

서 90개로 늘고, 연결되는 도시도 119개에서 186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용 승객 수는 6,200만 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공항은 한 나라의 국력과 국제 교류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입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세계 5위의 국제 관문 공항으로 발돋움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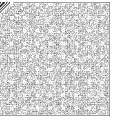
그렇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개방·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물류 허브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항공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 더 편리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여행 상품과 창의적인 서비스로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2023년까지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항공 화물 경쟁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항공 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운송 화물이고, 인천국제공항이 수출 항공 화물의 99%를 담당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화물 운송 세계 2위지만 후발 국가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양적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물류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 허브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서비스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운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수출 분야를 개척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공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취임 3일 후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



제가 현안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연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만들어 낸 소중한 결정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의 모범 사례를 보여 준다는 각오로 노사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항은 수많은 기관과 기업,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90개 항공사, 23개 정부기관 등 900여 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분만 5만여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계기관이 한마음이 되어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 공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관계자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2여객터미널도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첫선을 보입니다.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동식물 검역을 강화하고, 테러 방지와 안전대책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친절な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저도 우리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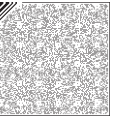
## 문익환 목사 24주기 추도사

2018. 1. 13

작년 목사님 23주기 추모식이 열린 모란공원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바람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돌아온 날 밤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수천, 수만의 촛불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쑥 나타나 “힘들지 않아? 수고 많지?” 하시며 환하게 웃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월 7일 국민과 함께 본 영화에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하루 전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한 목사님이 26명의 열사 이름을 온몸으로 외쳐 부르고 계셨습니다. 1987년 6월의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6월 민주항쟁을 완성한 국민이 열사들에게 바치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1976년 3·1구국선언으로 터져 나와 1994년 1월 18일 잠드실 때까지 용솟음친 민주와 통일의 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9년 3월 김구 선생과 윤동주, 장준하와 전태일의 마음을 안고 도착한 평양에서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 은 민족의 부활이다”라는 말씀으로 평화와 통일, 번영을 향한 이정표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싹트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따라 국민의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건넌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지 않는 겨울은 없습니다. 가끔 찾아와 “어때, 힘들지 않아? 수고 많지?”하며 응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럽습니다.

## 대한불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6주년 봉축 법요식 축전

2018.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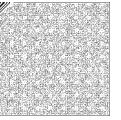
대한불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6주년 봉축 법요식을 축하드립니다.

대조사께서는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천태종을 중창하시고, 애국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의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새 불교운동을 이끄셨습니다.

“일심(一心)이 상청정(常淸淨)하면 처처(處處)에 연화개(蓮花開)”라는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도와 봉사를 실천해 온 천태종은 불교계의 큰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번영이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은덕이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2018. 1. 16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더 많은 분과 더 폭넓게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초에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제 분야 새해 소망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게 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부처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꾸었습니다. 수출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

해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생계형 적합 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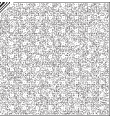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했습니다. 2+1추가고용제는 이미 정률제(定率制)로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 비율제로 지원하기로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4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더해서 3분의 1명분을 더 지원하고, 5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더해서 3분의 2명분을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기존의 18만 개 사업체에서 앞으로는 66만 개 사업체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원 한도도 기업당 3명에서 30명 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창업과 재도전도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을 잘 실천하겠습니다. 정부가 8,600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 지원에 이어서 3월에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 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님, 어디 계시죠? 김정애 대표님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음식점하



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대책을 곧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도 정책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높은 상가 임대료,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40시간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 온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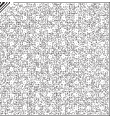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100% 정규직화를 이룬 기업, 수 년간 노사분규 제로를 달성한 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기업도 있습니다. 노사 간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불어 잘사는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및 오찬 간담회

2018. 1. 17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의 목표가 금메달 8개를 포함한 메달 20개, 종합 4위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도 추위를 녹여 낼 정도로 후끈후끈한 진천선수촌 선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를 보고, 자신 있는 아주 힘찬 대답을 들으니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수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또 경기에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까지 정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여러분 앞에는 영광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만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어떤 성적을 올려야겠다, 꼭 어떤 메달을 따야겠다’고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금

메달입니다. 국민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저 평소 실력대로만 하자’ 그렇게 편한 마음 가지고 경기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많은데,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 여러분이죠? 주인공인 선수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답답합니다. 지난겨울 그 추운 밤 길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를 염원했습니다. 지금도 고위공직자들의 국정농단, 부패범죄 그리고 채용비리처럼 특권과 반칙을 보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상처와 아픈 마음을 위안 받고 치유받는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그 이상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 흥행을 도와서 흑자대회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쫄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참가하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 입장을 하게 되는지, 일부 종목은 단일팀까지 할 수 있게 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동 입장을 하거나 단일팀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훨씬 더 좋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북한과 단일팀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 전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워크를 맞추려면 또 그만큼 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를



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아마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보면서 감동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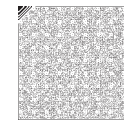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2018. 1. 19

김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별연맹 위원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작년 10월에 노동계와 대화를 할 때 김주영 위원장님이 산별연맹 위원장님들과도 간담회를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답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노총 지도자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하고도 만날 계획입니다.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노동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이며,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노총이 동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거 80년대 노동운동이 대분출하던 그때부터 오랫동안 노동변호사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지금까지 저만큼 많은 노동 변론을 한 변호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인연으로 제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 변호사를 몇 년 동안 하기도 했습니



다. 또 한편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와 그 이후에도 한국노총과는 동지적 관계를 맺어 왔는데, 우선 2011년 12월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이 창당될 때 저와 한국노총은 창당 동기였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한국노총, 당시에 야권 대통합운동을 했던 시민단체로서 '혁신과 통합'까지 3자가 모여서 민주통합당을 창당했는데, 그때 혁신과 통합의 대표로 참여를 한 게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원 되고 대선 후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2년 대선 경선·본선 때 도움을 받았고, 지난겨울 우리가 함께 촛불을 들었고, 2017년 대선 경선·본선 때도 한국노총 동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예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 주신 분도 계시고 지지 선언을 조직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설령 그렇게 직접 나서지 못했더라도 마음은 다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동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 왔지만 굳이 나누어 본다면, 노동변호사를 하던 시절에는 제가 노동계를 좀 더 돕는 편이었다면, 정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꼭 함께해 주신 한국노총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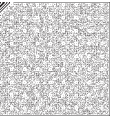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운명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노총과 저는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국노총처럼 선명한 관점을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도 당연히 함께해야 하지만 경영계도 함께해야 되고, 노동 말고도 다른 국정 분야까지도 함께 챙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 존중 사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향한

큰 목표는 함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정부만의 힘으로 또는 대통령만의 힘으로 이룰 수도 없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만의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경영계로부터도 협력을 받고 해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노동부의 숙원이었던 양대 지침을 폐지했고, 비정규직 문제도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보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노동의 유연안정성,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까지도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하고 거기에 경영계의 협력까지 함께 받아 내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한국노총, 저와 정부는 계속해서 동지적인 관계로서 협력을 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사정 대화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기다리다 보니 벌써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가 앞으로 내부의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서 여러 달 더 가고 이러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뭔가 큰일 같은 것을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올해, 내년 정도이거든요. 더 지나면 우리가 큰 변화를 이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동지적인 입장에서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과 함께 좀 더 속도를 내서 올해 적어도 상반기 정도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대화와 성과들이 나오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님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님이 협의해서 1월 24일로 예정됐는데, 민주노총 형편으로 1월 30일로 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노총도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문성현 위원장님과 김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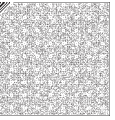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2018. 1. 19

반갑습니다. 새로 지도부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만난 게 무려 11년 만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에서도 꽤 여러 번 만나고, 마치면 밖에 나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이었고 이석행 위원장이던 시절에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참여정부에서만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후 10년 이상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주노총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노동을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10년 이상 만남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노·정 관계가 아주 크게 어그러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자주 보십시오.

저는 민주노총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 노동운동이 대분출되던 시기부터 오랫동안 노동변호사를 해 왔습니다. 1세대 노동변호사인 셈이죠. 특히 창원·울산·거제 쪽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이던 그 시절에 제가 그 한가운데 섰기 때문에 아마 노동 사건 변론도 저처럼 많이 한 변호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부산에서 노동운동단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



표를 맡기도 하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설립될 때 저도 힘을 좀 보태고, 지도위원 등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야 된다는 큰 목표는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고 그 출발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나겠지만 청와대 참모들도 빈번하게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계와 함께하겠다는 제 의지로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을 노동계 출신으로 모셨습니다. 양 노총과 함께하고 싶은 욕심으로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모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전히 노동계하고 동지적인, 적어도 같은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는 동지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의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잘해 보십시오.

## 규제혁신 토론회

2018. 1. 22

우리나라에서 규제혁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전담기구를 두고 규제를 개혁해 온 것만 해도 국민의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계속되면서 국민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는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활력을 더 키워 나가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에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 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 했습니다.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 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 공장도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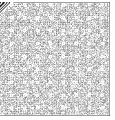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

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규제혁신으로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규제혁신은 청년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입니다.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됩니다.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의 대전



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규제혁신은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 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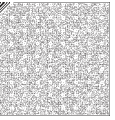
2018. 1. 23

사랑하는 세종기지 대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의 무한한 잠재력에 일찍 눈뜬 선각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세종기지로 극지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자 북극 다산과학기지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도 이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세계기상기구(WMO)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청정 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를 발견한 성과 등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쾌거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과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원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롭습니다.

빛나는 성취 뒤에는 극지 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고(故) 전재규 연구원의 사고 소식에 안타까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세종기지에 모인 국민의 위로와 격려가 극지연구소 설립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와 같은 연구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연구진과 기술·의료·행정 지원 인력이 하나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기지 대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기지 리모델링이 마무리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30년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남극 내 다른 나라 기지와 활발히 교류하며 기후변화와 미래 자원 개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세종기지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과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는 산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인 극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제2쇄빙연구선과 코리안 루트와 같이 가슴 뛰는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극지 연구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개척정신과 열정은 미래세대에게 남기는 소중한 가치와 유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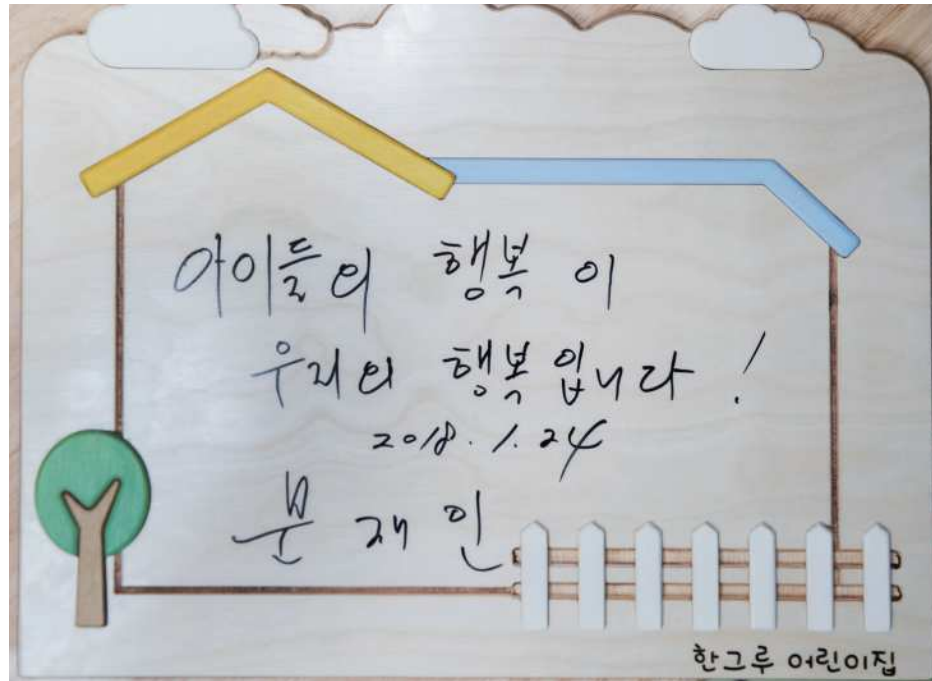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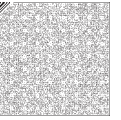
2018. 1. 24

평일이기도 하고, 날씨가 정말 추운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마도 오늘 날씨는 잊어버려도 가장 추운 날이라는 사실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그루어린이집 와서 보니까 정말 아주 밝고, 쾌적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가 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 공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도봉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했으니 참으로 장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 보육부문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보육부문 예산이 무려 8조 7,000억 원쯤 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우리나라 80년대 초 총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보육부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한그루 어린이집' 방명록(2018. 1. 24)

투입하고 있는 거죠.

보육에 대한 부담을 나라가 덜어 드리려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시는 분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직장에서 일이 늦어지면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는 어린이집·유치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시간연장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보육의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 부족해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10명에 1명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10.3% 정도이거든요. 지금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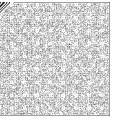
자 수만 30만 명이어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보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여야겠다.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40% 정도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다행히 추가경정예산 덕분에 원래 국가가 세웠던 목표보다 배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거든요. 금년에는 450개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이런 속도로 나가면 임기 말까지는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서 나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아쉬움, 또 국가가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초보 아빠인 류수영 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국가 보육정책이 가야 할 방향 또는 보완할 점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복건복지부 장관도 오셨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도 오셨고, 정책실장·사회수석 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면 반영률이 100%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밀양 화재 현장 방문

2018. 1. 27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밀양시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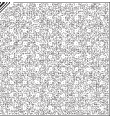
이번 화재 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하고는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리 출동해서, 초기 대응에 나서서 화재가 2층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는데, 그럼에도 유독가스나 연기 때문에 질식해 돌아가신 분이 발생했습니다. 고령 환자라든지, 중환자들이 많아서 자력으로 탈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았던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 화재 방재라든지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과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은 스프링클러나 방재 시설 규제에서 차이가 있고, 바닥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전 관리 업무가 차이 나는데, 이제는 성격이나 면적이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실태에 따라서 안전 관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관련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현실화될 수

있게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물주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나 지원 등을 통해서 가급적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 지원도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안 절차를 빠르게 마쳐야 입관을 할 수 있고 장례식장을 확보해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행정안전부가 사고수습지원본부를 맡았는데 밀양시가 양 부처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유가족들이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신한 환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해 의료 지원이나 복지 지원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소방서장 말씀대로 안에 있는 환자들을 피신시키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밀양시민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밀양시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장차관 워크숍

2018. 1. 30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처 장차관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나라 안팎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은 새해 정부 업무 보고를 종합해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국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희생과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온 주역은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민께 더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안전 진단을 위해 점검 담당자를 공개하는 안전진단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 진단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는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신고리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았듯이 정책의 옳고 그름에



장차관 워크숍(2018. 1. 30)

앞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합니다. 혁신의 방향이 국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특히 소중한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 주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적어도 채용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장관 여러분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정부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거나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또는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모두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오늘 워크숍이 각 부처를 이끄는 우리 장관들 사이에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8. 2

##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

2018. 2. 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님, 한화큐셀 남성우 대표이사님, 류성주 공장장님, 최시학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님, 이시중 충북지사님, 송기섭 진천군수님, 모두 반갑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기업 방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화큐셀을 방문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한화큐셀을 업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오늘 아주 기쁜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더 채용하는, 일자리정책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1,500명 직원으로 3조 3교대로 운영하던 것을 4조 3교대로 전환하면서 5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주 56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단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급여가 줄게 될 텐데,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급여는 최소한 기존의 90%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고 노사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 또한 신규로 채용하는 500명이 대부분 청년이기 때문에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2018. 2. 1)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대부분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배출된 지역 인재들이라서 지역 인재 채용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6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던 것을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으로 바뀌고 더 일찍 퇴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휴식이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 준다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나누기 모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고용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큐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사 대표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화큐셀 업어 드리기 위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짜로 업어 드릴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한화큐셀에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아마 아직도 한화큐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년도에 태양광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태양광발전 분야는 우리 수준이 세계적 수준보다 떨어져 있겠거니 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화큐셀은 불과 몇 년 만에 태양광산업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이 됐고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 영역, 기술 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면서도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에 대해서 한화큐셀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화큐셀은 정부가 하고 있는 3020정책,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부합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를 우리 혁신성장의 선도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화큐셀이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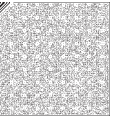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미국이 태양광 셀과 모듈에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화큐셀을 비롯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손놓지 않고 기업에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화되도록 기업과 함께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3020정책을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내수시장도 빠르게 늘려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큐셀에서도 노사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혁신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한화

큐셀이 입주할 하고 태양광과 관련된 다른 기업 연구 시설이 집적되면서 진천은 그야말로 태양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제조업체 증가율이라든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이 진천혁신도시와 충청북도의 효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천혁신도시가 세계 최고의 태양광산업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2018. 2.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도지사님들, 정부 관계자, 지역 혁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에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입니다.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수산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습니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많은 분의 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시민, 연기군민, 충청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수고하신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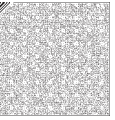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말하기는 까마득히 멀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 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더 발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표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고 싶은 삶터·쉼터·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정주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교통·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혁신성장 선도 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2만 개 보급 사업은 지역의 제조업 혁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대표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지역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지역에서 다닌 청년이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대구의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북대를 졸업한 경력단절 워킹맘이 남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인재 목표제'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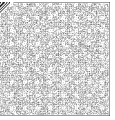
3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이 오픈 캠퍼스를 통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 나가는 일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30분 이내에 보건·보육 등 편의 시설을 이용하고, 한 시간 이내에 복지·문화·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100원 택시'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 교통 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1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창업농과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담 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골고루 잘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관하여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지사님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갑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중앙과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지역 혁신가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혁신 리더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지역 혁신 체계도 조속히 구축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故) 황병기 선생 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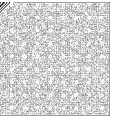
2018. 2. 1

우리의 소리 한 자락이 사라진 듯 마음이 아픕니다. 고(故) 황병기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부산 피난길에서 처음 가야금 소리를 어린 가슴에 품고, 평생 국악을 지키고 키워 내셨습니다. 고인이 있어서 가야금 연주는 진정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인의 모습을 무대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업적은 후대를 통해 길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고인의 연주를 오래도록 만날 것입니다.

부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식 간담회

2018. 2. 2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님 오셨습니까? 유영민 장관님이 옛날에 지은 책 제목이 《상상, 현실이 되다》였는데 오늘 제가 정말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금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에서 판교IC까지 7km 구간 정도를 수소차, 완전 자율주행차로, 정말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오로지 차가 스스로 차간 거리도 조정하고 차선 변경도 하면서 시속 110km까지 속도를 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평창까지 갈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주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까지 갈 수도 있지만 한 7km 정도만 맛보기로 달린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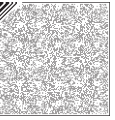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주행장이 아니라 일반 고속도로에서 탑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비서실에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잘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아주 조심조심 운행하고 여차하면 사람이 조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탑승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110km에 맞춰서 아주 빠르게 운행을 하면서 앞차하고 거리를 맞추고 차선도 변경하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생산을 처음 시작한 게 1975년도 ‘포니’였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차량을 우리가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됐다고 온 국민이 감격했습니다. 꿈에 부풀었죠. 그때로부터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세계 6대 자동차 생산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요즘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세계가 빠르게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미래 자동차로 변해 가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뒤쳐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는데, 오늘 제가 탑승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주행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소 차량도 한 번 충전하면 600km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도로에 스마트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고 정밀 안내 지도만 갖춰지면 어디든지 완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수소차 같은 미래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또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뒷받침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2만 5,000대 정도 보급됐거든요. 금년부터는 아주 빠르게 보급을 늘려서 2022년에는 35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300만 대 전기차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물론 그와 함께 수소차도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2022년까지는 모든 고속도로와 스마트 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2030년에는 모든 도로, 모든 지역, 자기 집의 주차장에서 골목길을 거쳐서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거쳐 목적지의 주차장까지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의 완전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포니’ 차로부터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되었듯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도 자동차 강국의 꿈을 한번 꺾 봅시다.

감사합니다.

## 제132차 IOC총회 개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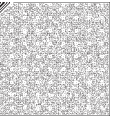
2018. 2. 5

존경하는 토마스 바흐(Tomas Bach) 위원장님, IOC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88 서울올림픽에 선수나 관중으로 함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눈부신 비약을 이뤘습니다. 나는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강원도민들과 함께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강릉은 한반도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산줄기 백두대간의 동쪽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한국 국민은 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산봉우리를 넘으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또 능선마다 감춰진 삶의 이야기에 공감을 느낍니다. 이곳 강릉은 한국 국민이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넓고 푸른 동해 위로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다짐합니다. 강릉은 이렇듯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곳 강릉에서 여러분의 꿈도, IOC의 이상과 목표도 함께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이곳 강릉에 다섯 개의 빙상 경기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웃한 평창과 정선에는 일곱 개의 설상 경기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장들에서 멋진 경기와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풍성한 기록을 보여줄 선수들을 설레며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하나의 경기, 때로는 0.01초에 지나지 않는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자신을 단련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를 뜨겁게 응원할 것이고, 선수들이 흘려 온 땀방울이 관중의 환호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전 세계인과 함께 즐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세대,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4일 후면 그리스 헤라 신전(Heraion)에서 피운 올림픽 불꽃이 남북한 인구 7,500만 명을 상징하는 7,500명 성화 봉송 주자들의 손을 거쳐 성화대에 불을 밝힙니다. 올림픽의 정신이 높이 타오르고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나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데 특별한 의미를 느낍니다. 한국의 겨울은 바람도 매섭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68년 전 한국인에게 이 겨울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모진 추위와 싸우며 생사를 넘나든 그해 겨울은 한반도에 깊이 새겨진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 휴전선과 지척의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 사실이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

모두의 기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겨울 축제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우리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시작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열린 제123차 IOC총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세 번에 걸친 도전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자크 로게(Jacques Rogge) 전(前) IOC 위원장이 평창을 외치던 순간 이미 자정이 넘었던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기쁨에 겨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벅찬 감격과 뜨거운 환호가 넘쳤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예스 평창, 파이팅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부터 평창의 꿈, 평창의 약속은 우리 국민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경기장을 짓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문화 공연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보탰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세계인을 맞이할 꿈을 꿔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렇게 국민 모두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7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약속했던 대로 평창은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따뜻한 우정부터 최첨단 ICT 기술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 올림픽 정신을 더욱 높이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와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훌륭한 선수와 코치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명실상부한 선수 중심의 대회입니다. 모든 경기장이 30분 거리 안에 배치되어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금껏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올림픽으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은 세계 최초로 구축된 5세대 이동통신 시범망을 체험하고, 지상파 초고화질과 대화면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와 더불어 세계를 하나로 잇는 또 하나의 힘이 문화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회 기간 내내 열리게 될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의 특별한 힘을 함께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성공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선수들과 관중,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이었고, 동시에 IOC의 협력과 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담긴 평화와 우정, 관용과 희망의 정신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웅 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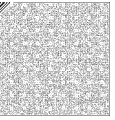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 한두 달 전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입니다. 남북한이 개최식에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합니다. 지금 IOC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 온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해 9월 IOC 페루총회를 기억합니다. 바흐 위원장께서는 “올림픽은 모든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며, 대화와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IOC는 북한의 출전을 지지하며, 북한 선수들의 출전 자격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그때 평화올림픽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IOC의 협력과 활약이 평창 평화올림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또 그것이 바로 올림픽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東京), 2022년 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우리 모두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벅찬 성취를 위해 나는 이 자리에서 IOC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아시아 모든 나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평창이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하나의 가치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올림픽의 핵심 가치입니다. 올림픽의 지속성과 미래를 위해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의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사회 목표를 지지합니다. 유엔과 IOC의 협력에 뜻을 같이하며 ‘올림픽 어젠다 2020’에 기여할 것입니다.

평창이 열어 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겨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 의식이 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나의 이 믿음이 이 자리의 여러분께도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132차 IOC총회를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IOC의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세계는 곧 강원도의 겨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평화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평창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제132차 IOC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32차 IOC총회 개회식 서면 축하

2018.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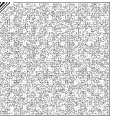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

제132차 IOC총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4일 후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출발한 올림픽 성화가 이곳 강릉을 거쳐 평창에 도착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IOC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평창의 꿈, 평창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설레며 기대됩니다.

7년 전 우리는 가장 역동적인 땅 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올림픽 정신을 드높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IOC의 결정은 우리의 약속과 결의에 대한 신뢰였고, 세 번에 걸쳐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함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IOC의 결정에 감격했고, 이에 호응해 올림픽정신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동계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을 초청해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모든 경기장을 30분 거리 안에 배치했고, 지금껏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은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에 환호하는 도전과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계패럴림픽은 장애인 선수들의 성취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 성화가 상징하는 평화와 우정, 관용과 희망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IOC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두터운 지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에도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평화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힘써 주었습니다. 이제 IOC의 협력과 활약이 평창평화올림픽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 양 진영이 화합하여 올림픽정신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평창에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저는 평화를 향한 평창의 도전과 성공이 하나가 되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 세계는 평창을 통해 올림픽정신의 위대한 가치를 거듭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된 올림픽이 2020년 도쿄(東京), 2022년 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집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계속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우리 모두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벅찬 성취를 위해 IOC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아시아 모든 나라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제132차 IOC총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과 IOC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가 ‘올림픽 어젠다 2020’의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깊은 우정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람이 가득한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IOC 위원 소개행사

2018. 2. 5

존경하는 토마스 바흐(Tomas Bach) IOC 위원장님, 세계 각국에서 오신 IOC 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OC 위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도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될 소중한 친구와의 첫 만남 같은 설렘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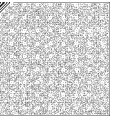
실제로 IOC와 대한민국은 오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전 함께 손잡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평창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한 후 오늘까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평창에 앞서 아시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은 단 두 번 밖에 없었습니다. 평창은 그 자체로 동계올림픽 역사에서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7년간 여러분이 하셨던 그 선택을 빛내 주셨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평창의 노력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IOC 위원 소개(2018. 2. 5)

그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IOC의 협력과 지원은 특히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으로 개최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IOC는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올림픽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큰 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와 대한민국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IOC의 신뢰와 지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우리가 나누어 온 신뢰와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는 오늘 나의 이 기대와 희망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악수를 나누기 전에 좀 특별한 구호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번 대회에서 서로 힘을 북돋우며 주고받을 인사말로 채택한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는 새롭게 길을 만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옆에 계신 토마스 바흐 위원장께서 며칠 전 올림픽조직위를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구호로 인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구호로 말을 마치는 것은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우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IOC와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아리아리’라고 외치면 ‘아리아리’로 함께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리아리!

##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감사 SNS 메시지

2018 .2. 5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추위가 매섭습니다. 강원도의 추위는 더 심할 터입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합니다.

모두 우리의 딸, 아들들이고 동생들입니다. 소중한 기회에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들을 보태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안내하고, 통역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심지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야 큰일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 올림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긍지가 되고, 의미 있는 추억과 보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십시오. 그러실 거죠? 저도 이 겨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2018. 2. 9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평화의 제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평창에 보내 주신 따뜻한 성원과 우정에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강원도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천혜의 바다와 산, 지역공동체의 전통 축제들, 자연이 내준 건강한 먹거리들은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은 강원도의 자랑입니다. 그중에서도 겨울 추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강원도가 준비한 특산품입니다. 다행히 요즘 강원도가 제대로 춥습니다. 얼음은 매끄럽고 설원은 풍성합니다. 추위와 함께 훈련해 온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위 덕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추위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보낸 따뜻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의 추위를 제대로 즐겨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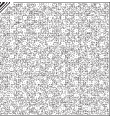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2018. 2. 9)

이겨 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근대 올림픽은 위대한 한 사람의 열정에서 출발했습니다. 19세기 말 피에르 드 쿠베르탱(Coubertin, Pierre de)은 스포츠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육체적·도덕적 능력은 물론 평화를 향한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1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인은 다시 공정한 사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포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념과 체제, 종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몸과 마음, 의지의 향연을 펼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도전정신과 용기, 상대에 대한 존중, 공동체정신과 자기절제의 미덕을 익혀 왔습니다.



여러분께 30년 전 1988년 서울올림픽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회 요트 경기가 내가 자란 부산의 바다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중 갑자기 불어온 강풍으로 싱가포르 선수들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두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던 캐나다의 로렌스 르뮤(Lawrence Lemieux)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선수들에게 향했습니다. 물에 빠진 선수들을 구한 그는 결국 22위로 시합을 마쳤습니다. 그의 목에 메달은 걸리지 않았지만 세계는 그에게 스포츠맨십이라는 위대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1964년 인스부르크(Innsbruck)동계올림픽에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소중한 답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 봅슬레이 팀의 주장 에우제니오 몬티(Eugenio Monti)는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영국 팀에게 봅슬레이 썰매의 부품을 빌려주었습니다. 썰매를 고칠 수 있었던 영국 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 후 영국 팀 우승에 대한 소감을 묻는 언론에게 에우제니오 몬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품을 빌려준 덕에 우승한 것이 아니다. 영국 팀이 가장 빨리 달렸기 때문에 우승했을 뿐이다.” 그는 국제페어플레이위원회가 수여하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 페어플레이 메달(Pierre de Coubertin Medal)을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는 지난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창의 눈과 얼음 위에서 위협에 처한 선수를 도운 또 다른 로렌스 르뮤, 경쟁 팀이 자신과 같은 조건에서 시합할 수 있게 도운 또 다른 에우제니오 몬티를 만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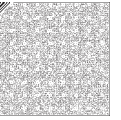
지금도 우리의 딸과 아들, 손녀·손자들은 놀이터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관에서 자신들만의 작은 올림픽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규칙과 공정함을 익힌다면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꿈꾸었던 우정과 평화의 세계는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스포츠를 통한 도전과 성취의 즐거움, 공정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는 일은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아이들의 믿음에 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이 다시 일상의 확고한 상식으로 스며들 수 있게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과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지구촌에 이런 스포츠대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림픽이라는 마당이 없었다면 어느 자리에서 지구촌의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서로 간에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도 몇몇 나라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세계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2.7g의 작은 공이 평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 평창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g의 탁구공이 27년 후 170g의 펙으로 커졌습니다. 남북은 내일 관동하키센터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은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의 큰 울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이미 생일 촛불을 밝혀 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스틱을 마주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선수들의 가슴에 휴전선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 특별한 빙상 경기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남북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작은 눈덩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 시인은 “눈사람은 눈 한 뭉치로 시작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지금 두 손 안의 작은 눈 뭉치를 우리는 함께 굴리고 조심스럽게 굴려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다면 눈 뭉치는 점점 커져서 평화의 눈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평창의 겨울이 눈부시게 깨어납니다. 아름다운 개막식과 함께 우정과 평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보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오늘을 기억하고 평화가 시작된 동계올림픽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평창으로 세계가 보내온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로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2018. 2. 9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찾아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국 정상과 동계 스포츠 선수 여러분, 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인 전 세계의 관객 여러분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냉전의 벽을 허물고 동서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마음을 담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은 간절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가 ‘평화’라는 올림픽의 정신에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평화롭고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타오를 성화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겨울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께 평화가 깃든 길을 밝게 비춰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선수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승패를 뛰어넘는 열정으로, 평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2018. 2. 9)

와 인류애라는 올림픽정신으로, 강원도 평창의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평화의 제전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축전

2018. 2. 11

임효준 선수에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에게 국민과 함께 축하를 보냅니다.

많은 국민이 임효준 선수를 응원했고 승리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곱 번의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임 선수의 승리는 은사님과 후배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며, 경기를 앞둔 다른 선수들에게도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다 같이 딛 메달이다”라는 임 선수의 소감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머지 경기에도 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 수여식

2018. 2. 12

여러분, 축하합니다.

먼저 유니스트(UNIST :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과학기술원) 졸업생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인 학부모님들, 그리고 총장님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니스트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울산시와 울산시민 여러분도 오늘 이 졸업식의 주인공이십니다.

유니스트에 와 보니 과학의 미래로 성큼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캠퍼스에 있는 아홉 개의 다리 하나하나에 우리 학생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그의 이름을 붙일 것이라 들었습니다. 오늘 과학의 열정으로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머지않은 날 새로운 다리를 더 많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리라면 정부가 얼마든지 비용을 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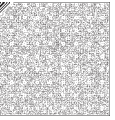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유니스트는 울산시민의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의 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3년 전 울산시민은 울산국립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국립대 설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울산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 수여식(2018. 2. 12)

일하게 국공립 대학이 없는 곳이었고, 지역 국립대 설립은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전국적으로 대학 정원이 초과된 상황이어서 국립대 신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국정철학에 따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울산과학기술대를 설



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 울산과학기술대를 과학기술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루어진 유니스트의 도약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울산시민은 지금도 유니스트를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유니스트의 설립과 도약에 힘을 보탠 것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가와 울산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인류사에 유례없는 지식의 폭발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426명의 탁월한 교수님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의 향로를 따라왔습니다. 13만여 권의 종이책과 43만여 권의 전자책, 100여 대의 가상화 기기를 갖춘 유니스트의 학술정보관은 든든한 뒷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입 당시 세계에서 4대뿐이었던 투과전자현미경, 국내 최초 도입한 초정밀 나노 가공기와 이미지 질량 분석기는 정확한 나침반으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뒷받침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의 앞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살면서 실패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당선도 재수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은 결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변호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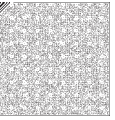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은 제 개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은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준 수많은 ‘우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도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많은 도움들이 더해져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유니스트와 지역사회가 여러분을 키워 주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 경비원, 조리사, 영양사, 시설 관리자 등이 흘린 땀도 여러분의 성취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오늘 유니스트에서 받은 격려와 응원을 떠올려 주십시오. 외롭게 느낄 때가 있다면 오늘 저의 축하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함께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서 사람을 생각하는 과학의 길을 봅니다. 2012년에 만난 유니스트 최초의 학생창업기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개발기업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 보니 모바일 광고 어플, 꽃배달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더해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육아에 지친 부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 주는 스마트 베개를 발명한 학생도 있고, 반려동물 용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여러분과 같은 열정으로 세계에 도전하는 다양한 전공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열정과 꿈들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사람을 위한 과학은 인류를 위한 대한민국의 과학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과학의 성취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선수들을 돕고 있는 과학기술의 힘을 보았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을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힘도 과학기술입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LED 디스플레이로 펼쳐진 디지털 아트와 증강현실로 되살아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범을 보인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결합된 <평화의 비둘기> 공연은 정말 가슴 벅찬 ICT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1,218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오륜기를 만들어 냈을 때 ‘저게 그래픽이 아닌 현실인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환상적인 개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계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학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개선하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과 유니스트 관계자 여러분!

이곳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0%를 담당하는 우리경제의 젖줄입니다. 유니스트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그 인재들이 다시 지역에서 취직하고 연구하고 창업해서 울산경제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을 키워 준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역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니스트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울산의 인재들을 미래 과학자로 길러 왔습니다. 창업 캠프를 운영하며 재학생은 물론 울산 지역의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기업가로서의 협력정신과 도전정신을 북돋아 왔습니다. 유니스트를 졸업한 후 울산에 자리 잡고 취직과 연구, 창업을 하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지역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울산의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유니스트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 교수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딸과 아들들이 이곳 유니스트에서 공부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설레는 세상이 우리의 졸업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학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빛나기 바랍니다. 더 많이, 더 자주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의 성취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맞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다 함께 축복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께 드리는 2018 무술년 신년 영상 인사

2018. 2. 15

〈2018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날은 평창올림픽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까치설날을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평창에서 운동복 대신 한복을 입고, 윷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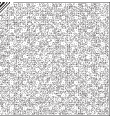
남북의 선수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민족 명절의 모습입니다.  
남북 선수들의 값진 도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도 가족들과 둘러앉아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겠지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뻐하면서 한 해의 꿈과 포부도 나누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설날처럼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올림픽으로 여는 희망찬 새해,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은메달 축하

2018. 2. 19

이상화 선수에게.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은메달은 평창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달입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오늘 흘린 눈물이 은메달로 하얗게 빛어져 빙판처럼 빛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상화 선수는 국민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힘들수록 빙판을 달리고 또 달리며 이상화 선수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밴쿠버(Vancouver)에서는 도전자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소치(Sochi)에서는 챔피언으로 수성을 이뤘습니다. 이번 평창은 ‘우리나라 올림픽’이라며 남다른 애정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이상화 선수를 사랑합니다.

이상화 선수는 국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세계 최고의 빙속여제(氷速女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딸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201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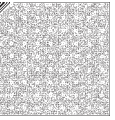
존경하는 정해구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범식 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무거운 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정해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부활된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가 무척 큼니다. 국민이 촛불로 만든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계해 줄 싱크탱크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민 기대가 더욱 클 것입니다. 저도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국민의 희망과 힘이 모여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에 국민의 엄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과제 하나로 꿰어 주실 분



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 정책을 하나로 잇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부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국정과제협의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국민께 그간의 국정과제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춧돌을 놓아야 할 정책 과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역시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미래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전략을 마련하는 일에서도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내년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강조해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조세·재정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 열정을 모아 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

이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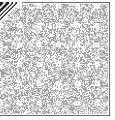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세·재정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정부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깨가 많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자주 또는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2018. 2. 25

평화의 제전을 펼쳐 주신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평창에서 함께한 17일간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과 올림픽 역사에서 빛나는 성취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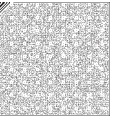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찼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92개국 3,000여 선수들이 땀방울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것은 승자의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승자를 축하하는 패자의 마음, 패자의 아쉬움을 껴안은 승자의 마음으로 메달은 더욱 빛났습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은 생일 촛불을 밝혀 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빙판과 설원은 차갑고 추웠지만 우리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함께 마음을 포개고 체온을 나누던 여러분의 모습은 세계인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평창에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평화의 싹을 틔웠습니다. 평창에서 내딛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세계 평화를 앞당기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의 시간은 끝나 하지만 평화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축제가 2020년 도쿄(東京)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평창에서 열린 평화의 지평을 더 넓혀 가겠습니다.



## 제58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018. 2. 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의 자랑스러운 2·28민주운동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치러지는 기념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첫 기념식에 제가 대통령으로 기념사를 하게 되었으니 개인적으로도 더없는 영광입니다.

정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행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국민의 삶이 짓눌렸지만 부패한 독재권력은 마치 거대한 절벽 같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58년 전 오늘도 그런 시절 중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대구에서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침이 오랫동안 온 나라를 가득 채웠던 체념과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살아 있다, 횡포를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엄혹했던 시절 바위에 계란 치기 같았을 최초의 저항. 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용기와 정의감이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천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결연한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 학생 대표들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입니다.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 있던 민주주의를 깨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

생들의 항거가 잇따랐습니다. 2·28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의 마음속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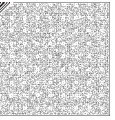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냈으며, 촛불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구 학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타오른 민주화의 횃불이 얼마나 위대한 시작이었는지 되새기고 있습니다. 2·28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구시민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면서 2·28민주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연대와 협력의 힘입니다.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오랜 기간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정통성을 확보한 것도 50년 만인 2010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2·28정신을 온전히 살려 냈습니다.

그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는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민주운동을 함께 기



넘었습니다. 대구시민과 대구 지역 정치권이 추진해 온 국가 기념일 지정이 드디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2·28정신은 대구를 한마음으로 묶었고, 멀게 느껴졌던 대구와 광주를 굳게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2·28민주운동이 보여 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도전들을 이뤄 나가는 데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대구시민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에 이어서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그날의 의로운 몸짓을 국가 기념일로 기리게 되었지만 대구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늘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대구·경북은 민족항쟁의 본거지였습니다. 혁신 유림과 항일 의병운동, 독립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진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지금도 대구·경북은 선비정신의 본거지입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선비정신은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2·28 반독재 민주운동을 낳았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9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낙동강 방어 전선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보루가 되었던 곳도, 경제발전을 이끈 산업화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도 바로 이곳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렇듯 자긍심 높은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념식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롭고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 온 대구시민의 자긍심이 더 높이 빛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와 자유

를 향한 대구의 기개와 지조가 잠자는 정신적 자산에서 깨어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실의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길, 국민이 함께 걷는 길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그 길을 오늘 다시 다짐합니다.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대구시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 육군학생군사학교 제5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2018. 2. 28

# 2018. 3

학군사관후보생 여러분의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장교 임관이 자랑스롭습니다. 하나도 하기 어려운 학업과 군사훈련을 모두 훌륭히 마쳤습니다. 참으로  
듬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닦아온 명예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청년 장교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권혁신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비롯한  
해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의 지휘관들과 교관, 훈육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장교 한 사람에게는 가족과 대학 은사님들의 깊은 애정과 기대가 함께합  
니다. 그동안 국가의 미래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여러분은 이제 신입 장교로서 조국의 평화를 지켜야 하고 만  
들어 나가야 합니다. 병사(兵士)는 여러분의 친구이며 전우입니다. 부하를 아끼고  
국민에게 헌신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길이 애국입니다. 나와 국민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켜 낸 명예가 대한민국  
의 명예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힘찬 발걸음마다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  
합니다.



## 제99주년 3·1절 기념식

2018.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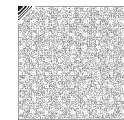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운동 아흔아홉 돌입니다. 3·1운동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고난과 죽음에 맞선 숭고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제화된 기념식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기념식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해마다 2,600여 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까지 10만여 명 가까이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사상범이라고 불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남쪽의 제주도에서 북쪽의 함경도까지 나이와 지역을 막론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실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자매가 함께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와 아내들이 이곳 형무소 앞 골목에서 샴바느질과 막일을 해 가며 자식과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수감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식(2018. 3. 1)



국민 여러분!

99년 전 오늘 마을과 장터에 격문이 붙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정주, 선천, 원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지방도시와 읍·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멀리 중국의 간도(間島)와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 미국 필라델피아(Philadelphia)와 하와이(Hawaii) 호놀룰루(Honolulu)의 하늘에도 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해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만 무려 1,542회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을 넘는 202만여 명이 이에 참가했습니다.

3·1운동의 경험과 기억은 일제강점기 내내 치열했던 항일 독립 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됐습니다. 3·1운동 이후 수백, 수천 명의 독립군이 매일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광복군총영을 구성하여 일제 군경과 피어린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뒤를 이어 강우규,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봉창...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의사들이 의열 투쟁을 이어 갔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에서 무려 3,600건의 크고 작은 무장 독립 투쟁이 있었습니다.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열여덟 살 유관순 열사는 지하 독방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순국했습니다. 열일곱 꽃다운 나이의 동풍신 열사는 함경북도 명천 만세 시위에 참가했고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태극기를 그린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 백범 김구 선생의 강직한 어머니 곽낙원 여사, 3·1운동 직후인 3월 9일 46세

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 서로군정서에 가입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근우회 사건을 주도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활동을 한 박차정 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경을 여섯 차례나 넘나든 정정화 의사... 우리에게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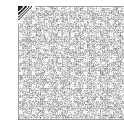
우리 선조들의 독립 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 낸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우리 선조들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의 힘이 약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은 애국지사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철시(撤市)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무꾼·기생·맹인·광부들, 이름도 없이 살던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누이들까지 앞장섰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층·지역·성별·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 당당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 주권의 역사를 되살려 냈습니다. 1,700만 개의 촛불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역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둠을 밝혔던 하나하나의 빛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혀 준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입니다. 2020년 문을 열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는 대한민국을 세운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길 것입니다. 3·1운동에 참가한 나무꾼도, 광부도, 기생들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국내외 곳곳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의 유적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충칭(重慶)의 광복군총사령부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복원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엔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해방과 국민주권을 가져온 민족의 뿌리입니다. 우리엔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함께 걸어갈 길을 밝혀 준 수많은 촛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낫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 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낼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역량과 자신감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反)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여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3·1운동을 생생한 기억으로 살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이 목표를 함께 이뤄 갈 것을 제안합니다. 빈부·성별·학벌·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 냅시다.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갑시다.

3·1운동이라는 이 거대한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이미 국민 마음 구석구석에서 99년 전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

2018.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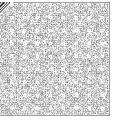
평창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 선수단 얼굴들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이제 패럴림픽이다. 우리는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아주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동계패럴림픽 차례입니다. 동계패럴림픽까지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진정한 스포츠 축제이고, 더욱 빛나는 성공이 되지 않을까?

불굴의 용기를 가진 선수단 여러분 덕분에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를 보고 와서 제게 그 감동을 전했습니다만, 선수 여러분의 용기와 투지가 패럴림픽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회가 시작되면 선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얀 눈밭과 은색 얼음판 위에 펼쳐 놓을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울림으로 우리 국민의 심장을 고동치게 할 것입니다.



동계패럴림픽 대표 선수단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선수 여러분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또한 모든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 왔을지 이루 다 짐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오늘을 준비해 온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저와 국민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전 서울패럴림픽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도 장애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도움 받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깨지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장애인 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은 이미 금메달입니다. 우리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이자 챔피언입니다. 알파인 스키에서, 스노보드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바이애슬론에서, 아이스하키에서, 그리고 휠체어 컬링에서 전 세계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즐겨 주십시오.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축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선수 여러분의 꿈과 용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평창에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 육군3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2018. 3. 2

육군3사관학교 제53기 사관생도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육군 소위 임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은 국가를 위한 길이며 이미 15만의 선배들이 영예로운 장교로 증명한 길입니다. 자신과 학교의 명예를 당당하게 빛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많은 분의 헌신과 함께 이뤄진 오늘입니다. 여러분을 육군의 정예 장교로 지도해 준 서정열 교장과 교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애정과 믿음으로 버팀목이 되어 준 가족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국의 평화를 지켜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조국이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일에도 힘껏 나서야 합니다. 국민에게 헌신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길이 애국이라는 자세로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부하 장병은 한없이 아꼈던, 또 한 사람의 이순진 대장이 여러분 중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힘찬 발걸음마다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식 및 임관식

2018. 3. 6

자랑스러운 육군사관학교 74기 졸업생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223명의 졸업생이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명예로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 갈 젊은 장교들의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늠름합니다. 귀한 딸·아들이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국간성(護國干城)의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교직원, 훈육관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곳 화랑연병장은 대한민국 수호의 요람입니다. 청춘의 땀방울이 애국과 충성으로 다져진 곳입니다. 고된 훈련 뒤에도 졸업생들은 무거운 눈꺼풀을 참아가며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화랑관 기숙사에는 고군분투의 날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20kg의 장비를 메고 300m 상공에서 뛰어내린 공수낙하훈련도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불타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어려운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해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군에 몸담고 있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단련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과 사관생도 여러분!

지난 3·1절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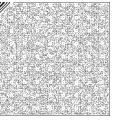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식 및 임관식(2018. 3. 6)

세워졌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참 뜻깊은 일입니다.

애국애민(愛國愛民),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우리 군의 역사는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 해산과 동시에 군인들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독립 투쟁을 전개했고, 독립군과 광복군이 되어 불굴의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깊고 강인합니다. 오늘 명예졸업증서를 받는 독립군 광복군 대표 김영관 애국지사를 비롯한 광복군 생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러운 청년장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나와 군의 사명입니다. 평화는 바로 우리의 생존이며 번영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근간은 바로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군사력과 안보 태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그리고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비와 인력 체계,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입니다. 사이버 안보에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 개혁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입니다. 국방 개혁은 군이 스스로 당당해지는 길입니다. 군이 국방 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될 때 우리 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더욱 빛낼 수 있습니다. 청년장교들이 이 길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청년장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있습니다. 또한 북핵보다 강한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 낸 자랑스러운 국민이 있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장교들의 꿈이 평화를 향한 국민의 꿈과 하나가 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과 사관생도 여러분!

군인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국가와 국민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국가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여야 합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장교의 길을 걷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보람 있어야 합니다. 장병들의 가슴에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나라가 있을 때 장병 한 명 한 명의 사기와 전투력이 최고로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충성하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이 길에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한 존재이듯 여러분이 지휘하게 될 부하장병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아들입니다. 젊은 장병들에게 군대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자신을 키워 가는 또 다른 사회입니다. 부하장병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서 가족의 품,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군대입니다.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서로 존중하고 사기가 충만한 군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랑스러운 육군사관학교 74기 졸업생 여러분!

오늘 새로 임관하는 장교들의 긍지 넘치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은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로 나라를 지켜 온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  
가 곧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입니다. 힘든 군인의 길이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도에 무운과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2018.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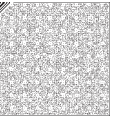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  
니라 해외에 있는 5,500여 개 한인교회에서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을 깨우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따뜻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별  
히 올해는 희년의 해를 축복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습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죄  
인과 노예, 빚진 사람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방과 안식의 해였습니다.  
약자는 속박으로부터, 강자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경계와 벽을 허무는 포용과 화합의 정신이 희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  
천을 다짐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130여 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대한민국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당한 침략과 지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찾고 불평등과 억압으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2018. 3. 8)

로부터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한국교회는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국민을 생명과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이분들의 사랑이 기독교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었습니다. 조수옥 전도사는 신사참배 거부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평양형무소에서 만난 아이들이 눈에 밝혀 자신의 최악한 몸을 돌보지 않고 1946년 9월 고아원인 마산 인애원을 세웠습니다. 그 후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문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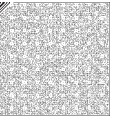
도사는 병든 자의 의사, 문맹퇴치 선봉자이자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1950년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다해 이웃을 사랑한 흔적들이 전남 신안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을 정말 강합니다.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즘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받은 미투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 교육과 근대 의료が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움과 치료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 교회, 병원,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사회를 깨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서도 한국 교회의 역할과 기여가 아주 큼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 온 성도 여러분의 발자취가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성취에 우리들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은 함께 빙판 위에서 땀 흘리며 언니-동생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성원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를 전에는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습니다. 오랜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포용하고 화합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열흘간 평창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선수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전 세계의 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평창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서훈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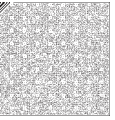
2018. 3. 8

축하드립니다.

체육훈장 청룡장은 체육훈장 가운데에서 최고 훈장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위원장께서 기울이신 노력에 대해 아주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훈장은 우리 국민이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그 훈장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제가 직접 수여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공군사관학교 제6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2018. 3. 8

공군사관학교 제66기 사관생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메추리 훈련에서부터 가장 힘들다는 중력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에 이르기까지 힘든 군사훈련과 학업을 훌륭히 마쳤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든든합니다. 이제 성무대(星武臺)를 떠나 조국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임 공군 장교 여러분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젊은 장교들을 정예의 호국간성(護國干城)으로 키워낸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교장과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애정과 믿음으로 함께 애써 주신 가족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국의 영광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敎訓)을 잊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주십시오. 국민은 여러분의 애국과 헌신에 사랑과 신뢰로 응답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26세의 나이로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하며 나라를 지킨 김두만 장군의 기상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이 정의롭고 나라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武運)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서면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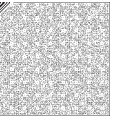
2018. 3. 8

지방정부, 지방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힘을 모은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을 축하합니다. 지방정부의 일자리정책,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 청년일자리 특별 전시까지 지역 일자리의 큰 마당이 열렸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관계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토대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를 꾸려 가고 결혼·출산도 가능합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내일의 꿈도 키워 갈 수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도 한 사람의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한 일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일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예산·세제·조달·금융 등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너나없이 함께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노력해 공공 일자리를 늘려 가고 민간에서 함께 협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박람회가 이러한 노력의 모



범인 것 같아 아주 뜻깊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인구 구조적 특성으로 앞으로 3~4년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특별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요술 방망이는 없습니다. 몇 명, 몇 십 명, 또 몇 천 명 정성스럽게 만들고 공공에서, 민간에서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것이 해법입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이 더 많이 유입되고 지역도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로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박람회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른 지방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례들도 공유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좋은 정책이나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도화선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며 일자리 정책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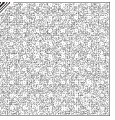
##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서면 축하

2018.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 열리는 한국여성대회가 올해로 34회를 맞았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날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 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대회조직위원회, 그리고 모든 여성운동가 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0회를 맞는 여성의 날이 올해는 여러모로 더욱 뜻깊은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여성의 날이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과 함께 중요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110년 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연대가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진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이 가리키는 방향도 명확합니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를 성평등과 여성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나아가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가자고 이끌고 있습니다. 아픈 현실을 드러내고, 공감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명감을 느낍니다.



2차 피해와 불이익, 보복이 두려워 긴 시간 가슴속에만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꺼낸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성폭력이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 안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약자에 대한 일상화된 차별과 억압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하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젠더폭력에는 한층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의식 변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가능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성평등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 주신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여성들이 일터와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가 한 걸음 더 빨리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굳건한 연대의 손을 내밀며 제34회 한국여성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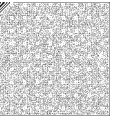
2018. 3. 9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평창의 설원과 빙판이 여러분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창의 새로운 감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용기·투지·감화·평등의 축제가 열립니다. 동계패럴림픽이 더욱 흥겨운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평창의 겨울 축제는 진정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강원도민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동계패럴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동계패럴림픽을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량을 펼쳤고 명승부로 대회를 빛내 주었습니다. 세계인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울린 대회에 갈채를 보냈고, 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힘 없는 것이 힘'이라는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시작된 작은 평화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커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2018. 3. 9)

저 가고 있습니다. 남북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 오늘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 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마음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동계패럴림픽 개회식장에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함께 성화를 들고 입장합니다. 평화올림픽에 이어 평화패럴림픽의 메시지가 또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동계패럴림픽의 불꽃을 함께 밝힐 것입니다.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계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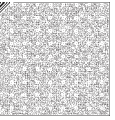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장소, 같은 시기에 동반해서 치러진 최초의 올림픽이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대한민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현대 패럴림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들의 도전을 보았고 벅찬 감동을 느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서울 엠블럼은 IPC(International Paralympics Committee :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에 평생 헌신하신 황연대 여사를 기려 제작한 황연대성취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남녀 선수 한 명씩에게 이상이 수여될 것입니다.

저는 IPC와 대한민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이룬 이 모든 성취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평등과 통합의 나라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평창동계패럴림픽은 더욱 특별합니다. 평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히 하나로 어울리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평등과 화합이 평화와 함께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평창은 패럴림픽 역사상 최초로 '등급분류제로정책(Classification Zero Policy)'이 시작됩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패럴림픽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경기장을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선수와 경기가 중심이 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을 준비했고 전담 봉사팀도 구성했습니다. 6,000명의 자원봉사자들도 한 명 한 명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선수들이 눈과 얼음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희망의 역사를 써 왔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금메달이고 챔피언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성취와 자긍심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어야 합니다.

30년 전 서울패럴림픽이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듯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구별 없이 어울려 사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신의현 선수는 대학 졸업 하루 전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신 선수는 지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노르딕스키 세계 랭킹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를 세상으로 이끈 것이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였습니다.

스포츠는 도전정신과 용기를 주며 우리의 가슴을 고동치게 합니다. 평창동계 패럴림픽이 세계의 장애인과 용기를 잃은 모든 분께 희망과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북미정상회담 환영 SNS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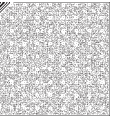
2018. 3. 9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이전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입니다.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 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 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 나가겠습니다. 성실하고 신중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8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2018. 3. 9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8기 사관생도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재난·외상 특성화 교육을 비롯해 인문·교양, 군사훈련까지 모두 훌륭하게 수료한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빛나는 계급장은 여러분이 흘린 땀의 결정체입니다.

청년 사관생도를 늠름한 간호장교의 길로 이끌어 준 권명옥 교장과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결 같은 믿음과 자부심으로 간호장교의 길을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간호장교의 역사는 굳건한 애국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간호사의 독립운동 단체인 ‘간우회’를 설립하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박자혜 지사와 같은 불멸의 사표가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추며 지키고 있습니다. 3년 전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맞서 남다른 헌신과 활약을 펼쳐 온 것도 간호장교들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대한민국 간호장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역량과 용기는 국민과 군이 재난과 역경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희망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마다 무운(武運)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2018. 3. 13

자랑스러운 청년경찰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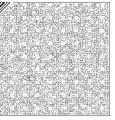
오늘 경찰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의 용기가 뜨거운 사명감으로 담금질되어 눈부신 결실을 맺었습니다. 힘들고 치열한 교육과 훈련을 잘 이겨 내었습니다. 늠름하고 당당한 169명 청년경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준 가족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국가와 국민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과 사명감을 키워 준 교직원 여러분의 열정도 잊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동반자이자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람과 가치가 될 것입니다.

청년경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경찰, 공정하고 따뜻한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빛나는 모습이 듬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될 경찰의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경찰 영웅들이 있었 습니다.

3일 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추서식이 열렸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무관으로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 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부상당한 시민들을 돌보았습니다. 보안사령 부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88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정의로운 경찰 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있어 30년 전 광주시민도, 민주주의도 외롭지 않았 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 말고도 많습니 다. 그동안 경찰이 권력의 벽이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벽에 가려져 잘 보 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의로운 경찰을 믿었습니다. 경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오래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난해 촛불광장은 민주주의의 길을 밝히며 경찰이 국민의 품으로 다가오는 길도 함께 비추었습니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던 평화의 광장은 국민과 경찰 이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국민과 경찰 사이에 믿음이 자랐습니다. 완벽한 안전 관리로 평창동계올림픽도 잘 치러 났습니다. 경찰이 국민 앞에서 위 상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찰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시간입니다.

자랑스러운 청년경찰 여러분!

지금 경찰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 민경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에게도 아주 명예로운 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수사 역 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 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자 하 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끈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 개혁

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경찰 개혁을 힘차게 이끌어 가는 강력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힘껏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경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가슴 표장에는 해와 달을 뜻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 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 달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등 범죄와 폭력에 취약한 국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십시오.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 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 주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도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찰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같은 무인 수송 수단의 보급으로交通安全 규칙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상 상을 넘어서는 변화에 경찰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야 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못 지않게 청년으로서의 정의감과 공감 능력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매일 아침 경찰복을 입을 때마다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겠 다는 오늘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십시오. 힘들고 고된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청년경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교정을 떠나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상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찰 인력은 부족하고 처우와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박봉의 격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숙명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값진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  
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애타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여  
러분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듯 국민은 불의와 범죄에 맞서 싸우는 여  
러분에게 가장 큰 응원 부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여  
러분의 명예로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국민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2018.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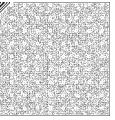
해군사관학교 제72기 사관생도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해군사관생도로서의 명예와 기상을 가슴 가득 품고 항해장교, 기관장교, 해병  
대장교, 항공장교, 전문병과 장교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  
니다.

청년 사관생도들이 흘려 온 뜨거운 땀방울을 조국의 바다를 향한 힘찬 물결로 이  
끌어 온 부석중 교장과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없는 믿음과 지원  
으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 준 가족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하고 당당한 해군장교가 되기 위한 길은 4년 전 ‘옥포만 의식’으로 시작해  
3만 4,369km에 달하는 순항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98일간 이어진 강도  
높은 순항 훈련을 통해 현장 교육·훈련과 연합 작전은 물론 한국문화와 평창동  
계올림픽 홍보 등 군사·외교 활동도 훌륭하게 수행하여 아주 믿음직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조국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파도와  
거센 조류라 해도 국민의 안전과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여러분의 열정은 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마다 무운(武運)과 영광이 함께 빛나길 기원합  
니다.



##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2018. 3. 15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월 말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청년일자리대책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입시 과열과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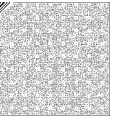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청년일자리대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현재의 고용절벽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특단의 한시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모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할 정부 대책도 이 점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중점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과 협력하여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서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2018. 3. 15)

를 획기적으로 늘려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은 특단의 한시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되어야 청년일자리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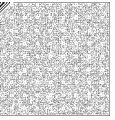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모두 누구나 정부의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산과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세수에 의한 결산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추경은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보고되는 청년일자리대책이 실현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이 우리 모두의 딸과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정책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故) 스티븐 호킹 박사 조전

2018. 3. 15

스티븐 호킹 박사 타계를 세계인과 함께 애도합니다.

슬픔에 잠겼을 가족들과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영국이 인류에게 선사한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를 손에 잡힐 듯 친절하게 보여 주고 안내해 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근원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육체적 장애를 이겨 내고 가치 있는 삶을 일구어 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주의 심연에서 자유롭게 걷고 사색하길 바랍니다.

우주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는 한 그의 이름도 영원할 것입니다.

##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2018. 3. 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경남도민 여러분, 해운·항만 종사자 여러분!

부산항의 바닷바람이 시원합니다. 쉼 새 없이 오르내리는 컨테이너들을 보니 가슴이 뻥뻥합니다. 전 세계가 여기 부산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역과 해운·항만의 힘찬 기상이 느껴집니다.

부산항이 활기차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작년 한 해 4억 톤이 넘는 화물이 부산항을 오갔습니다. 컨테이너만 해도 2,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換積港), 동북아 최대 환적 중심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이 이 항구에서 밤낮없이 흘린 구슬땀이 세계 6위 수출 대국의 위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해운 경기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 낸 너무나 값진 성과입니다. 해운·항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부산의 발전과 함께 저도 성장했습니다. 부산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부산항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였습니다. 부산항의



현대화가 시작된 70년대부터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된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는 아시아의 대표 항만이 되었습니다.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부산항이 이제는 최첨단 우리 제품을 전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100개국 500개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물류 허브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해양 강국 대한민국,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여러분의 열정을 모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해양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부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이을 때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유라시아의 광대한 대륙, 남쪽으로 아세안과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대양, 이 대륙과 대양을 잇는 다리가 바로 부산항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내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의 운명도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 수도를 넘어 아시아의 해양 수도가 될 것입니다. 철도·공항과 함께 육해공이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항의 미래 혁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성공 여부도 부산항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부산의 열정과 대한민국의 소망을 담아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 부산항을 만들어 냅시다.

존경하는 해운·항만 종사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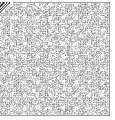
지금 세계는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상하이(上海), 싱가포르(Singapore), 로테르담(Rotterdam) 같은 권역별 허브 항만들은 터미널의 대형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구축하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산항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원격으로 빠르게 싣고 내리는 무선 인식 기술로 항만을 드나드는 컨테이너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첨단 항만 기술이 잘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해상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 냅시다. 자율운항 선박, 초고속 해상 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항만 모델을 우리가 선도합시다.

정부가 나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부산항의 첨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부산신항이 메가 포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1선석 규모를 2022년까지 29선석, 2030년에는 총 40선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컨테이너 3,0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박용 LNG 공급기지, 대형 선박 수리 조선단지 조성은 부산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항만 배후단지도 지금보다 8배 넘는 규모로 확대하여 생산과 가공, 물류와 비즈니스가 서로 연계된 종합 물류 허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도심에 위치한 북항은 부산 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북항 구역은 서울 여의도보다 2.5배 큼니다. 관광·문화·해양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풍부합



니다. 북항이 개발되면 시민들은 자연과 문화와 첨단시설이 어우러진 친수 공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해양공원이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11년 전 참여정부 때 기획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기반을 다져 왔고 국제여객터미널도 새로 개장했습니다. 이제 더욱 속도를 내서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시작한 사업, 문재인정부가 끝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철도 부지, 조선소 부지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해양산업과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침체되었던 원도심도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통합 개발의 방향과 계획은 부산시민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운·항만 종사자 여러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운산업 되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 당시 해운·한만 구조조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운산업은 중고선 한두 척에서 시작해 세계 5위의 선제 규모를 이루어 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열정과 저력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고효율 선박 발주를 위한 금융 지원, 안정적인 화물 확보와 국적선사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7월에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산을 해양 수도라고 부르지만 십여 년 전만 해도 항도(港都) 부산이라 불렀습니다. 부산항이 부산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고 아시아의 심장으로서 세계 경제를 활기치게 뛰게 할 것입니다. 대륙과 대양이 만나는 부산항, 사람과 사람이 만나 꿈을 꾸는 부산항, 더 큰 희망을 키우는 부산항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부산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우리 해운·항만의 기상이 바로 여기 부산항에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열정과 함께 해운·항만인들의 저력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2018. 3. 18

을 멋지게 완성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를 환하게 빛나게 한 성화는 잠시 후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남긴 가치와 유산은 우리 안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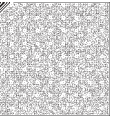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에 함께 환호했고, 치열한 투지에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기와 결단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일깨워 준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간 선수들의 열정은 평창의 얼음과 눈 위에서 타올랐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장애와 장애의 구분이 가능과 불가능을 뜻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극복한 한 인간의 도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직접 보았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안의 뜨거운 인류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창에서 평화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올림픽에 이어 동계패럴림픽에서도 남과 북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목소리로 서로를 응원했고, 그곳에 차별과 편견은 없었습니다. 평창에서 이룬 공존과 화합, 그리고 평화의 울림이 2020년 도쿄(東京)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동계패럴림픽이 성공하게 되기까지 뜨겁게 응원하며, 평창동계올림픽



##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2018. 3. 19

오늘 회의는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부 혁신의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잘 준비해 주었습니다. 많은 국민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들을 모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혁신의 설계도가 잘 준비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정부 혁신이 실행이 돼서 국민께서 달라진 정부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종합 계획이 잘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혁신과제들을 관통하는 정부 혁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두 정부 기간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이후 출범한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부터 혁신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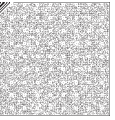
채용비리 문제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되어 부정하게 합격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입니다.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리천장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외래어로 된 법령 용어와 행정 용어 때문에 법령과 행정 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행정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령과 행정 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아주 잘해 왔습니다.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공직 내 성폭력 행위 엄단, 행정 용어의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 등을 비롯한 정부 혁신을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수고와 성과에 대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



민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18. 3. 20

오늘 두 번째 회의죠.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회담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 최초로, 이 점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거나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 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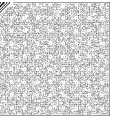
##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

2018. 3. 22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착공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대원장으로 선출된 금동화 원장님과 이사회 여러분께도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정부와 국민의 꿈과 의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꿈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고, 의지는 현실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끕니다. 과학기술연구원 착공으로 베트남은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이 베트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꿈도 함께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국은 베트남과 굳게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넓은 땅은 양국의 과학기술 인재들과 기업이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교류·협력의 산실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뻗습니다.

“친구와 의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베트남 속담이 있습니



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습니다. 양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설립하는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우리의 신뢰와 협력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 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욱 풍요로워질 양국의 미래입니다.

나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 청사진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이 베트남의 산업과 미래성장 동력을 이끄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착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텅(Dang Thi Ngoc Thinh) 베트남 국가 부주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베트남 방문] 베트남 동포 만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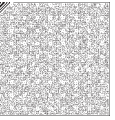
2018. 3. 22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다낭(Da Nang)을 찾았을 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베트남 정부, 국회, 기업, 학계 인사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역대 주한 베트남 대사 여섯 분과 전(前) 주북한 베트남 대사님도 와 주셨습니다. 남과 북, 베트남을 연결해 주는 귀한 손님들께 환영의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아주 잘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우리의 전통문화가 만나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2만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 흠’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세계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함께 손잡고 한반도기와 성화를 들었습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 땀 흘리며 언니-동생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얼어붙어 있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과 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이제 곧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연이어 만나게 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입니다. 과정도 조심스럽고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동포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베트남에 대한 제 마음은 아주 각별합니다. 양국 국민의 마음도 비슷할 것입니다. 식민 지배와 분단과 전쟁을 겪었던 아픔, 가족 중심의 공동체정신, 교육열이 높고 명예를 존중하는 정신,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문화까지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사회·문화적으로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서로 닮은 양국이 손잡은 지난 25년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의 교역액 규모는 640억 달러에 달했고, 상호 방문자 수가 2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국 국민 간 끈끈한 우정과 협력입니다. 우리와 베트남이 함께 만든 영화와 드라마는 베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베트남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과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아시아축구연맹대회 준우승은 우리의 감독들이 베트남 선수들과 하나의 팀이 되어 이룬 쾌거입니다. 양국 국민에게 메달보다 값진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한류문화와 음식과 패션이 베트남 국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쌀국수와 분짜(Bun Cha), 달콤 짭짤한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가수 하리원(Hari Won) 님, 자랑스럽죠? 지난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 준 신의현 선수와 그의 아름다운 베트남 아내 마이 킴 히엔 님,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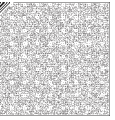
베트남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호앙 쉐언 빈(Hoang Xuan Vinh) 선수 어디 계시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박충건 감독님, 그리고 양궁 김선빈 감독님, 신무엽 감독님, 강동우 감독님, 이명식 공안부 태권도 사범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양국을 가족같이 친밀하게 이어 주는 주인공들입니다.

동포 여러분!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기여가 정말 컸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경제·문화·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주셨습니다. 양 국민을 하나로 묶는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 주신 동포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외교적·경제적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으로 넓히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베트남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신남방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공동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양국 관계를 튼튼히 엮어 내는 바탕은 무엇보다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입니다. 저는 동남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베트남 동포 사회의 단합된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넘어 동포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국땅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



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최근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과 함께 베트남 치안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동포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국제학교,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모국 연수를 늘려 미래세대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양국의 가교가 되고 2세대들이 멋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낸 국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도,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하는 개헌도 잘 이루어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바로 한국인이야'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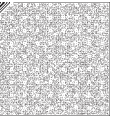
## 한·베트남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8. 3. 23

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신 쩌 다이 쩡(Tran Dai Quang) 주식님,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베트남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 다낭(Da Nang)에서 쩡 주식님과의 짧은 만남이 아쉬웠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주식님께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와 일정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무엇보다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교류의 역사, 특히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두 나라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뿌리 깊은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개발협력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도 베트남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을 통해 서로 간의 깊은 우정을 확인했고, 양국의 번영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질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정상회담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양자 방문 또는 다자



회의와 같은 다양한 계기를 활용할 것입니다. 정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호혜적인 무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상대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타결된 사회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팜 주석님께서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양국의 긴밀한 상생협력이 베트남의 산업화 목표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교통·인프라 건설 분야와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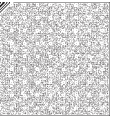
셋째, 양국 국민 간의 특별한 인연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양국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국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콜센터, 보호시설, 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뢰 및 불발탄 제거, 병원 운영, 학교 건립 등을 통해 양국 국민 사이의 우의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넷째, 저는 팜 주석님께서 우리의 한반도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팜 주석님께서 편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팜 주석님과 베트남 국민의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감언(감사합니다).



[베트남 방문]

## 아세안 청년일자리 협약식 및 취업 박람회

2018. 3. 23

함께해 주신 청년들과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도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 청년들을 채용하는 '1사 1청년일자리 운동'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업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1사 1청년일자리운동은 인도네시아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처음 제안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나중에 업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에코붐 세대의 성장으로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의 청년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3월 15일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문제에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일자리 1개, 10개, 100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모아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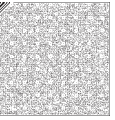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에 진출한 한인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사 1청년일자리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세안의 한인기업들이 1명씩만 추가 고용해도 약 9,000여 명의 청년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주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야를 넓혀 더 넓은 세상과 경쟁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에 진출한 청년들이 잘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해외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과 연결해 주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K-Move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정착지원금과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200개 기업이 1사 1청년일자리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벌써 200개 일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나라 한인 상의회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아세안을 넘어 전 세계로 널리 퍼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준 청년들, 반드시 구직에 성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운동에 참여해 준 기업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18. 3. 23

전 다이 팡(Tran Dai Quang) 국가주석님, 응우옌 쑤언 폭(Nguyen Xuan Phuc) 총리님,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 상의 회장님,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한국과 베트남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나의 첫 해외 순방으로 하노이(Hanoi)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다 보니 곳곳에서 고층 빌딩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물결에 더해 부쩍 늘어난 자동차로 도로가 붐비고 분주히 걸어가는 하노이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 이하 젊은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고 연평균 6%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심장 베트남의 역동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취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베트남 경제인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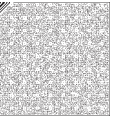
지금 베트남 흥행순위 1위 영화가 <고고 시스터즈>, 베트남어 제목으로 <Thang nam ruc ro>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씨니>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합작회사가 제작한 영화인데, 한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고 흥행 1위를 이루어 냈습니다.

호앙 쑤언 빈(Hoang Xuan Vinh) 선수는 한국의 박충건 감독을 만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 때 내린 폭설이 아니었으면 우승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박항서 감독과 함께 이루어 낸 일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하면 이렇듯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한국의 5,500개 기업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100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한국의 기업들은 유능하고 성실한 베트남 노동자들을 만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남국(安南國)의 왕자 리룡명(李龍祥)은 한국의 중세 왕조 고려에 귀화해 한국 화산(花山)이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학자 이수광은 레(Le) 왕조의 사신 풍 각 코안(Phung Khac Khoan)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문학, 학문, 사상을 교류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 열강의 지배에 항거했던 과거의 역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한국의 4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 중에서 최대 투자국입니다. 지난 한 해 연간 270만 명의 국민이 양국을 오갔습니다. 베트남 국민은 한류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국민은 베트남 쌀국수를 즐겨먹고 다낭(Da Nang)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양국이 수교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나는 작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만들어 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상생 번영,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3P 전략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나의 정치적 소신과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도 양국 국민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켄 다이 팡 주식님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목표를 이루기로 합의했습니다. 1,000억 달러 교역 목표는 아세안 전체 국가와의 교역 목표 2,000억 달러의 절반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한국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어느 일방의 수출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상호 호혜적 교역을 이루고 양국 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상생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만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체결한 양국 간 소재·부품산업 협력 양해각서는 베트남 기업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동차·기계·섬유 등 기간산업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양국 간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경제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집중, 교통 체증,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 강화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나는 아세안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작년에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등 4대 분야의 경제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미 도로,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베트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도 함

께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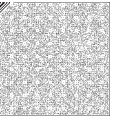
오늘 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및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건설·도시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계획 중인 아세안 국가들에게 양국의 역량과 협력 모범 사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축적된 경험 이 베트남이 추구하는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어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과 산업화를 주도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한 연구원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 주는 교류가 한국과 베트남을 더 친밀한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함께 연구하며 우정을 쌓아 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정부는 혁신성장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2020년까지 5,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함께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청년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두 나라 젊은이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랑스러운 양국 경제인 여러분!

지난 25년간 양국의 눈부신 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바로 경제인 여러분이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인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호치민(Ho chi Minh) 선생의 묘소에서 30여 년 독립 투쟁을 이  
끌었던 굳은 신념,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에게 모범이 되었던 지도자의 강  
직함을 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베트남의 역사와 베트남 국민의 자존심을 느꼈  
습니다. 나는 베트남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확신합니다. 베트남의 번영이 한국  
에게 기회가 되고 한국의 번영이 베트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

감사합니다.

## [UAE 방문] UAE 동포 간담회

2018.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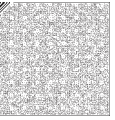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바이(Dubai)에서도, 라스 알-카이마(Ras al-Khaymah)에서도 먼 길들을 오셨습  
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께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잘 마쳤다는 보고를 먼  
저 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건배를 할 때 건배 구호로 ‘영미’ 라고 외치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옛날에는 ‘김치’ 했는데 요즘에는 ‘영미’ 라고  
합니다. 컬링 팀 이야기입니다만 컬링 팀뿐만 아니라 올림픽에도, 패럴림픽에도  
아주 뜨거운 감동들이 많았습니다. 고국의 겨울이 그리우셨을 여러분에게 모처  
럼 즐거움과 위안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최근 우리와 UAE 사이에 관련된 뉴스가 많았습니다. 왜곡된 보도가 많아서  
혹시 현지 동포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러나 여러분,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국 간에 특사가  
오가고 제가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UAE를 선택했을 만큼 두 나라 관계는 특별  
하고 굳건합니다. 한국은 UAE에게 동아시아 최고의 협력 파트너이고, UAE는



한국에게 중동 지역 최고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지난 일로 양국은 오히려 더욱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하메드(Mohammed bin Zayed bin Sultan Al-Nahyan) 왕세제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중동 국가 가운데는 최초입니다. 양국은 이제 아크부대라는 이름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개척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범위가 지식재산, 의료, 관광, ICT,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우주 탐사에까지 이릅니다. 양국 사이에 튼튼한 가교가 놓여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동포 여러분입니다.

2020 두바이 엑스포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양국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전 세계에 함께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두바이 엑스포가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크게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도록 양국을 끈끈하게 이어 주는 우리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UAE 동포 사회는 불굴의 도전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한국과 UAE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1970년대 아부다비(Abu Dhabi)에 진출한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태양을 이겨 내며 사막 위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1세대의 땀으로 빚어진 결실이 조국으로 전해졌고, 오일 쇼크의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바꾸어 냈습니다. 그 도전과 열정이 지금 UAE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전·병원·호텔·항공사·학계·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 주며, 양국을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로 묶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우수함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병원과 레스토랑에서는 고유의 섬세함으로 현지 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을 도약의 기회로 바꾼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UAE는 탈(脫)석유 시대를 내다보며 중동에서 미래산업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UAE의 지혜와 한국이 가진 정보통신 역량과 첨단 기술력이 합쳐질 때 지능정보화 시대를 양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개척해 나갈 새로운 양국 협력 분야도 바로 우리 동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정상 간 두터운 우정과 신의를 바탕으로 모든 실질 협력 분야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특히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중동은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권익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UAE 내에 우리 기업의 수주 실적이 늘고 미수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잘 치러 냈습니다.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찬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이 함께 얼음 위에서 땀 흘리면서 언니-동생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정신이 다시 한반도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창에서의 감동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와 번영으로 가져 가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고비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가장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득 품을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꼭 완성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UAE 방문]

## UAE 원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

2018. 3. 26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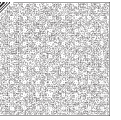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바라카(Baraka) 원전 건설의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수고하신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원전1호기 건설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에 UAE 왕세제와 함께 참석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역만리(異域萬里)에서 우리 힘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 냈습니다. 2,717명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느낍니다.

바라카 원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입니다. 우리는 원전 기술을 수입하던 시대에서 수출하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그 첫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고유의 기술과 모형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키워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둘째로 UAE 최초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UAE 원전 근로자 격려(2018. 3. 26)

있습니다. 현재 UAE는 탈(脫)석유 시대를 내다보며 에너지원과 산업 구조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UAE에 기초 인프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개척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카 원전 건설의 성공에 힘입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양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바라카 협력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풍부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함께 손잡고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양국 협력은 에너지산업, 보건·의료, 반도체, 과학기술, 항만 운영, 농업 분야 등으

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전 모하메드(Mohammed bin Zayed bin Sultan Al-Nahyan) 왕세제와 함께 원전1호기 건설 완료 기념식을 갖고 현장도 잠시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자랑스롭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원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과 달리 바라카원전은 공사 기간 준수,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막·고온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전 건설의 새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무하마드 왕세제는 그간 우리 노동자, 기업,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술에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라카지역을 비롯한 아부다비(Abu Dhabi) 서부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최우선적인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말 바라카 원전1호기가 준공돼서 가동되면 세계 원전 중 최초로 3세대 원전의 상업 운전과 사막에서의 최초 원전 건설을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그간 1호기 건설 완료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최고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까지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사업은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운영, 연료 공급, 정비, 인력 양성 등 협력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UAE의 원전 사업 장기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의 자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40년 전 중동 건설 노동자 1세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모래바람과 더위를 이겨가며 벌어들인 오일 달러는 경제발전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 세대가 건설한 도로, 주택, 항만 같은 기반 시설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손으



로 세계 최고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UAE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 UAE에서 땀으로 써 내려가는 삶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역사의 또 하나의 빛나는 성취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더 큰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개헌안 발표 SNS 메시지

2018.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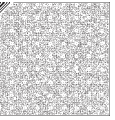
오늘 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되찾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 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 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과 시민 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전문

2018. 3. 26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의사의 숭고한 애국평화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하얼빈(哈爾濱) 의거로 불의한 일제의 침략을 세계에 알렸고, 옥중에서도 동양 평화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사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소망하셨던 동양 평화의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 미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UAE 방문]  
아크부대 방문

2018. 3. 27

여러분, 고맙습니다.

격려를 하러 왔는데 거꾸로 내가 격려를 듬뿍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나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 130기, 공수특전단 출신 대통령입니다. 앉은 채로 차렷 자세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편히 쉬어. 명령입니다.

세계 최강무적을 자부하는 아크(Akh)부대원 여러분, 공수특전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습을 직접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군의 자랑이자 한국과 UAE 협력의 상징입니다. 잇그제 정상회담에서도 모하메드(Mohammed bin Zayed bin Sultan Al-Nahyan) 왕세제가 아크부대가 양국 간 협력의 차원을 높여 준 주춧돌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내 나라를 떠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異域萬里) 사막에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고 있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흘리고 있는 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크부대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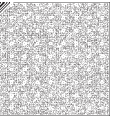


UAE 아크부대 방문(2018. 3. 27)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강한 군대, 신뢰받는 군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방 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목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굳건한 안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보는 단지 평화를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국가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크부대는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크부대는 강합니다. 강한 정신력과 고도의 전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막 훈련 및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



전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특수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 해상 훈련, 대테러 훈련, 고공강하 훈련. 아까 부대장은 국내에서는 6~7년 정도 소요되는 훈련을 8개월 만에 달성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놀라운 성과입니다.

강한 군대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태양의 후예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들 자부심 가지고 있죠? 함께 박수로, 함성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또한 아크부대는 비(非)분쟁지역에 파병된 첫 사례로, 국방 협력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UAE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동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UAE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UAE군을 정예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크부대의 존재로 인해 양국은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형제국이 되었습니다.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군의 역사를 독립군, 광복군으로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을 기억하며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듯이 여러분의 후배들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여길 것입니다.

아크부대는 세계 최강, 무적을 자부하는 최고의 부대입니다. 나는 조국에 젊음과 열정을 바친 여러분의 빛나는 얼굴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크부대 장병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 바랍니다.

## [UAE 방문] 한·UAE 비즈니스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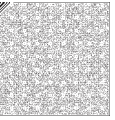
2018. 3. 27

알 구라이르(Al-Ghurair) 두바이 상의 회장님,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님, 양국의 경제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아부다비(Abu Dhabi)는 사막 위에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두바이(Dubai)에 도착하니 사막 위의 파라다이스라는 칭송이 실감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창의적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왔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누구보다 경제인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경제 지도자 여러분!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진 양국 교류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846년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후르다드비(Ibn Khurdadhbh)는 자신의 문헌에 당시 한국의 고대 왕조 신라를 남겼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정착하면 떠나기 싫은 나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고려 왕조 시대 벽란도에는 아랍의 상인들이 향료와 약재를 가져와 고려청자, 인삼과 바꾸어 갔습니다. 한국을 부르는 영문명 코리아도 고려를 부르던 아랍 상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70년대 열사의 땅 건설 현장에서 흘린 한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양국 간 우정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양국의 산업 구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UAE는 든든한 원유·가스 공급처입니다. 170여 개 한국기업은 건설, 에너지, 보건·의료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UAE의 경제발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UAE는 사막 위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도전과 개방의 정신으로 사막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 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이해하며 형제의 국가로 우정과 협력을 이어 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중동 국가 중 맨 먼저 UAE를 방문한 이유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나는 모하메드(Mohammed bin Zayed bin Sultan Al-Nahyan) 왕세제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어 새로운 100년을 함께 열어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어제는 바라카(Baraka) 원전 건설 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막 위에서 양국의 굳건한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솟아오른 4개의 돔은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의 바라카 원전은 양국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최초로 수출한 상업 원전이자, 탈(脫)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UAE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바라카 협력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양국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UAE의 ‘에너지 플랜2050’과 한국의 ‘재생에너지3020’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지능형 전력망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제3국에 대한 공동 진출까지 성공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과 UAE가 협력할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UAE는 반도체, 조선, 자동화 항만, 신재생에너지, 우주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는 모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했고 UAE는 그에 더해 인공지능 특임장관직까지 신설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정보통신, 우주 개발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제휴, 인력 양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운영되었던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산업·에너지·과학·정보통신 협력 채널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국 경제인 여러분!

내가 이번에 UAE를 방문해 정말 놀란 것은 양국의 협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사이 한국을 방문하는 UAE 국민이 80%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국민의 아부다비, 두바이 여행도 작년 한 해 2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양국은 직항 항공편의 증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나는 아크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사막에서 흐리는 두 나라 용사들의 땀방울이 양국 사이의 깊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



한 믿음이 있었기에 셰이크 칼리파 병원(SKSH : Sheikh Khalifa Speciality Hospital)의 운영을 한국 병원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한 해 3,500명의 UAE 국민이 한국에 직접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한국 의료진의 진료로 우리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2020년에 열리는 두바이 엑스포는 더욱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두 번의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대형 한국관을 설치하여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성원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올해는 고(故) 자이드 대통령(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 탄생 100주년입니다. 자이드 전 대통령님은 위대한 아랍 국가 건설을 목표로 UAE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미래세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 확신했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석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씀으로 사람중심 가치를 설파하셨습니다. 1970년대 영국이 UAE에서 물러난 이후에 토후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곳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금의 UAE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이드 국부(國父)입니다. 자이드 전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 UAE가 중동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UAE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지력을 갖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위대한 지도자와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일구어 낸 합작품입니다.

한국은 이제 UAE가 열어 갈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여정에 든든한 형제이자 친구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라”고 아랍의 속담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먼 여행의 동반자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에 투자할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여러분의 투자가 결실을 맺고, 더 많은 사업 기회도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두 나라 공동 번영의 주역입니다. 나와 한국정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껏 돕겠습니다.

양국의 우정이 자이드 전 대통령님을 기념한 그랜드 모스크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리랑무용단 고국 공연 서면 축하

2018. 3. 29

2018. 4

파독(派獨) 간호사 1세대와 후손들이 함께 만든 '아리랑무용단'의 고국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입니다. 1달러의 외화가 절실하던 시절 파독 간호사들은 병원의 온갖 고된 일을 감당하며 고국의 경제발전에 소중한 디딤돌을 놓아 주었습니다. 파독 간호사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성실한 삶을 통해 독일 사회에 한국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었습니다. 독일에 간 많은 유학생과 기업인들이 파독 간호사들이 만든 든든한 기반 위에 자신의 길을 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파독 간호사 여러분이 이국땅에 뿌리내리며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를 넘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통 춤사위를 익혔고, '아리랑무용단'을 만들어 독일 사회에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 왔습니다. 그 깊은 조국애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나무는 겨울 동안 묵묵히 봄을 기다립니다. 아리랑무용단의 공연이 그동안 쌓인 그리움만큼 기쁨과 반가움의 꽃을 활짝 피워 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새봄처럼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축전

2018. 4. 1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하신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께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기쁨의 소식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의 좁은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라의 독립과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한국교회가 이 역사적 과업에 뜨거운 기도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2018. 4. 3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은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4·3을 잊지 않았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한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침묵의 세월을 딛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4·3의 통한과 고통, 진실을 알려 온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도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도 없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던 죄 없는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산간마을을 중심으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



니다. 중산간마을의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마을 주민 전체가 학살당한 곳도 있습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념이 그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학살 터에만 있지 않았습니 다. 한꺼번에 가족을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은 연좌제로 대물림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식들의 열망을 제주의 부모들은 스스로 꺾어야만 했습니다. 4·3은 제주의 모든 곳에 서려 있는 고통이었지만 제주는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할 세월 동안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 다. 4·3을 역사의 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한 눈물어린 노력도 끊이지 않았습니 다. 1960년 4월 27일 관덕정광장에서 “잊어라, 가만히 있어라”고 강요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제주의 청년·학생들이 일어섰습니 다. 제주의 중·고등학생 1,500여 명이 3·15부정선거 규탄과 함께 4·3의 진실을 외쳤습니 다. 그해 4월의 봄은 얼마 못 가 5·16 군부세력에 의해 꺾였지만 진실을 알리려는 용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 다. 수많은 4·3 단체들이 기억의 바깥에 있던 4·3을 끊임없이 불러냈습니 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등 많은 단체들이 4·3을 보듬었습니다.

4·3을 기억하는 일이 금기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되었던 시절 4·3의 고통을 작품에 새겨 넣어 망각에서 우리를 일깨워 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신독재의 정점이던 1978년 발표한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 삼촌》, 김석범 작가의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 이산하 시인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 3년간 50편의 4·3 연작을 완성했던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 지다》, 4·3을 다룬 최초의 다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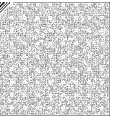
멘터리 영화 조성봉 감독의 〈레드헌트〉, 오명 감독의 영화 〈지슬〉, 임흥순 감독의 〈비념〉과 김동만 감독의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고(故) 김정률 감독의 〈끝나지 않는 세월〉, 가수 안치환의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때로는 체포와 투옥으로 이어졌던 예술인들의 노력은 4·3이 단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 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오래도록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알려 준 분들이 있었기에 4·3은 깨어났습니 다.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승리가 진실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2000년 국민의정부는 4·3 진상규명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



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제주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3 명령들 앞에서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극렬한 대립이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낳았지만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은 이념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었습니다. 고(故) 오창기 님은 4·3 당시 군경에게 충상을 입었지만,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3기로 자원 입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아내와 부모, 장모와 처제를 모두 잃었던 고(故) 김태생 님은 애국의 혈서를 쓰고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4·3에서 빨갱이로 몰렸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화해와 용서로 이념이 만든 비극을 이겨 냈습니다. 제주 하귀리에는 호국영령비와 4·3 희생자위령비를 한자리에 모아 위령단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희생자이기에 모두 용서한다’는 뜻으로 비를 세웠습니다. 2013년에는 가장 갈등이 컸던 4·3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가 조건 없는 화해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시작한 화해의 손길은 이제 전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낡은 이념이 만들어 낸 증오와 적대의 언

어가 넘쳐 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가 정의로 경쟁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공정으로 평가받는 시대여야 합니다.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이념이 드리웠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 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것이 오늘 제주의 오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의 진상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4·3의 명예 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주를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 왔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추념식이 4·3 명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

2018. 4. 4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온종일돌봄정책을 발표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도, 지역공동체도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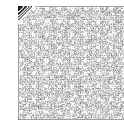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어렵습니다. 5세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데 비해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장 직장을 많이 그만두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경동초등학교 온종일돌봄교실 방문(2018. 4. 4)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려는 것이 온종일돌봄 체계입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초등학교생들의 학원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현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초등 어린이 267만 명 중에서 방



과 후에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현재 약 3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방과 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 어린이, 혼자 있는 아이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엄마·아빠가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소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 초등돌봄 중에 학교돌봄이 약 24만 명, 마을돌봄이 약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돌봄 이용 아동 수를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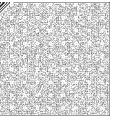
학교돌봄의 경우에는 이용 대상 학년과 운영 시간도 늘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점차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려 가겠습니다. 마을돌봄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지역 내 공공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학교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 어린이들은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마을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돌봄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온종일돌봄의 확대를 위해 각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방금 전에 경동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에 가 봤습니다.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돌봄전담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아주 잘 돌봐 주

는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돌봄이 확대되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또한 돌봄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돌봄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이 격차가 심한데,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돌봄과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우리 정부가 소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1월에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온종일돌봄정책도 정책 취지가 같습니다. 정책은 현장과 소통하는 속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돌봄전담사들께서도 편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12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서면 축사

2018. 4. 5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및 전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국민의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5대 사회보험 완성, 기초생활보장 도입 등 한 걸음씩 꾸준히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민의 삶 속으로 복지정책이 스며들도록 애써 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 덕분에입니다. 국민의 서러움과 아픔을 보듬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다행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수준이 개선되었고, 대체 인력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의 휴식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앞으로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보람과 행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장은 복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

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서비스를 누려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바로 복지국가 실현의 주역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확대되고,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는 등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국민의 손을 꼭 잡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성별·장애·연령·지역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국민복지 향상에 애써 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축전

2018. 4. 6

자랑스러운 예비군 여러분, 전국 각지의 예비군부대 지휘관과 지역 및 직장 방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일상과 한반도의 평화, 국가안보를 지켜 온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75만 예비군 모두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당당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지난 50년간 예비군은 동원 훈련, 일반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내어 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예비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비역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일당백의 전력입니다. 군 복무 기간 익힌 여러분의 경험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군복을 입고 총을 드는 훈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가는 마땅히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 50주년 기념일인 오늘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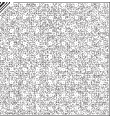
다.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 '예비전력 정예화'의 길을 함께 열어 가고자 합니다. 275만 예비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훈련이 보람되고 알차다고 느낄 때 비로소 대한민국 예비 전력은 정예가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역들이 갖추고 있는 전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훈련 대기 시간과 인도 인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훈련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내 사격장과 영상모의 사격장 같은 안전하고 과학적인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잠자리와 식사 등의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비군은 유사시 전력이기 이전에 일상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주역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 주길 바랍니다.

전국 260여 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질 때까지 저와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킬 만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2018. 4. 11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제 보름 남짓 남았죠. 그동안 준비위원회에서 의제와 협상 전략, 행사 운영, 대국민 소통 등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더 다듬고 세부 일정 하나하나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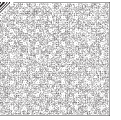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두가 꿈꿔 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입니다. 우리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평화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회가 큰 만큼 도전도 엄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시기·장소·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서로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의 동반 성공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외교부와 안보실 등 관련 부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협의해 주길 바랍니다.



##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

2018. 4. 12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문위원직을 흔쾌하게 수락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장 역할을 맡아 주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이 남북문제 전문가를 넘어 남북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이끌어 오셨던 주역들이십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꼭 필요해서 원로자문단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얻기 힘든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 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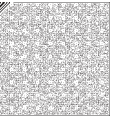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경험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남북 합의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그런 경험과 성과들이 있었기에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2018. 4. 12)

남북 관계는 지난 10여 년간 파탄 난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병행되어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원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남북 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 관계를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설득력을 갖고 계신 원로 자문위원들께서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문위원님들 모두 고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의제나 전략, 합의에 담을 내용이나 일정까지 뭐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참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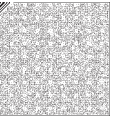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

2018. 4. 13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믿음과 응원으로 힘이 되어 주신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이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온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용산구 쪽방 지역을 신바람 나는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낸 행복드림담당관도 계시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당당한 사회인이 되도록 도운 울산광역시 공무원도 계십니다. 고구마 신품종을 개발해 일본 품종을 대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관과 ‘묻지마 살인 범죄’를 최첨단 동위원소 분석 기법으로 해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관도 계십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공적을 모두 소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대통령은 각자의 공적을 모두 다 읽어 보았으니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 곁을 지켰습니다.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2018. 4. 13)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될 때 정부와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촛불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우리의 희망임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공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관행을 뿌리

내려야 합니다.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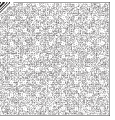
그러나 공무원에게 요구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폭증하는 업무에,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공무원의 경우 업무는 위험하고 근무 여건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내년은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정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더욱 키우면서 성공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적폐를 걷어 내야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공직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을 뵈니 저도 오늘 힘이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공직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여정에 여러분이 다시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월호 4주기 메시지

2018. 4. 15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영결식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 주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슴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슴속에서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낼 것입니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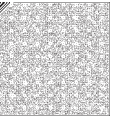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됩니다.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민과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세운 세월호도, 가능한 한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시시때때로 가슴이 저려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견디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나눠 함께 아파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합동영결식에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슬픔을 이겨 내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해 대통령인 저보다 더 큰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가치를 소중히 품고,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냅니다.

합동영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 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

2018. 4. 17

존경하는 불교 지도자와 불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주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설정 큰스님과 여러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께 각별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설정 큰스님의 봉행사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법회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일주일간 전국 사찰에서 조식으로 축원하시겠다는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 불교의 소중한 유산인 화쟁(和諍)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이루는 것이 화쟁사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화쟁의 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되어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의 화쟁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 관계를 풀어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우리 사부대중(四部大衆)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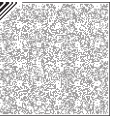
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세계사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지혜를 찾습니다.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비의 실천이 아닐까 합니다. 남과 북 사이의 담을 허물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경제·문화적 교류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불교계가 바라는 묘향산 보현사, 금강산 신계사, 개성 영통사 관련 사업 등 종교적 교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구도를 해체하여 전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이루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불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빈자일등(貧者一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극한 성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평화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불자대중이 모아 주신 염원을 되새기며 저도 더욱 지혜롭고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승대덕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

불교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국난을 겪을 때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대사는 전국에 격문을 돌리고 승병을 일으켰습니다. 서산대사의 제자 사명대사는 전란 후에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3,000여 명에 이르는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불교가 앞장서 보여 주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불교 신도가 아니어도 불교의 정신은 알게 모르게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배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을 실천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과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행(慈悲行)은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2018. 4. 17)

다.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불자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이르고 사업 분야는 식수, 교육, 지역 개발에서 지뢰 제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군부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종교의 영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0·27법난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 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어 한국불교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이 청정해지고 여러 사람이 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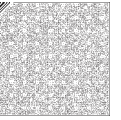
해지면 온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원력으로 불교가 한국 사회를 정의롭게 이끄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저는 불교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벽암록과 조사들의 선문답을 읽으며 접한 불교의 세계관이 저의 세계관의 한 축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맑은 기운을 듬뿍 받으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다사로운 봄이 왔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018. 4. 18

오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기대가 매우 큼니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국민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동안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개혁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해 그동안 무너졌던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했고, 반부패정책 수립부터 부패의 감시와 통제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에 둔감했던 의식이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관의 협력,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사회 전반에서 반부패 개혁을 이끈다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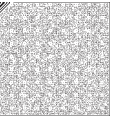
내용적으로도 개별 범죄나 현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은 주로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반부패정책과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우리 사회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입니다.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부패와 공공 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협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개혁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부패의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반부패 의제의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비리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새로운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정 채용된 당사자를 퇴출하고 역울한 탈락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은 돈과 연줄에 기댄 불공정 채용이 발붙일 틈을 아예 없애고 출발선부터 기회의 공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가려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과 시설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로 반부패 종합 계획이 잘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갑질 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적 관행



간 괴리가 아주 큰 분야입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둘째,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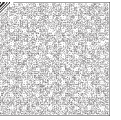
셋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고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데에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공고하게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은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자정 노력과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국민이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해야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부패 개혁은 한두 달 또는 1~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구는 우리 정부의 사명인 촛불정신을 구현해낼 핵심 기관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께서는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의 공동 설계자입니다. 앞으로 정책 설계자를 넘어 정책의 추진자, 감시자, 평가자 역할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부패 척결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것입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위원들께서도 항

상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니다. 그러나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각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부패 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게 결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2018. 4. 19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에 밝은 곳이 언론이지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 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사 대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청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 간에 대화가 시작된 후에도 올림픽이 끝나고 4월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 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작년 7월 저의 신베를린선언을 두고도 꿈같은 이야기라고 평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전략이 판을 바꾸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조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명한 바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대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입니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남북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보다 먼저 남북 교류를 시작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여러 언론사의 잇따른 방북과 교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연재하는 등 언론의 선구적인 노력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후인 2000년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마흔여섯 분이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함께 남북 언론기관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잊힌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새삼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언론이 먼저 국론을 모으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때 두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더 빨리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입니다. 저와 정부의 상상력과 해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큼니다. 언론사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언론사 대표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탄없는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많은 분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 주도 혁신성장 현장 방문

2018. 4. 20

강서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LG 임직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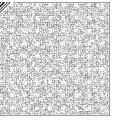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 개장을 축하합니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이곳 마곡지구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세우겠다고 꿈꿔 왔습니다. 오늘 서울시의 꿈에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훌륭한 연구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단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의 연구기관이 서로의 장점을 살리며 혁신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주변 단지에 100여 개 대·중소기업의 연구기관까지 입주하면 협업하여 더 많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쏟아 낼 것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장과 과학 체험관도 들어섭니다. 뮤지컬을 보고 인공지능 로봇 체험을 한 아이들이 창의적인 미래 과학자로 커 가리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구본준 부회장님을 비롯한 LG 임직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에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 다양한 콘텐츠가 만나 탄생했습니다. 중국의 중관촌(中關村)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정신과 아이디어를 무기 삼아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혁신적인 창업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융합적인 사고와 산업 간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드론은 우주항공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결과물입니다. 인공지능은 의학·기계공학과 결합할 때 우리의 실생활에 유용한 결과물로 탄생될 것입니다. 기존 산업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입니다. 연구원 여러분은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입주한 기업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사업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입니다.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주인공, LG 임직원 여러분께도 기대합니다.

첫째, 혁신성장의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추진하는 가정용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개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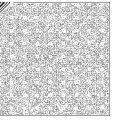
이기도 합니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신약 15개를 개발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바랍니다. 정부도 혁신형 기술 개발 자금, 혁신신약 창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수한 연구자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LG사이언스파크에만 2만 2,0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 4조 6,000억 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로 연 19만 명의 고용창출과 3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 내에 현재의 2배 수준인 2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지원 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고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반 성장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 교육, 기술 지원, 창업 보육 같은 상생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비 창업인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업으로 희망을 갖고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면 LG는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대기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내일은 과학의 날이고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그 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70년대에는 우리 기술로 포니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90년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했습니다. 2000년대 세계 최초로 선보인 CDMA 상용화 기술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산업의 버팀목도 연구·개발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그 결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린 시절 모두 한 번쯤은 과학자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이야기하고 그 꿈을 행복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LG사이언스파크가 아이들에게 희망의 산실이 되길 바랍니다. 연구자와 기업인 모두의 큰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2018. 4. 27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평화를 바라는 8,000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 4. 27)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영원한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 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

2018.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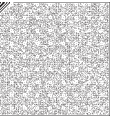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안고 만났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우리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매우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북측 속담에 “한 가마 밥 먹은 사람이 한 울음을 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아온 손님에게 따듯한 밥 한 끼 대접해야 마음이 놓이는 민족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나누고 풍성한 합의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평양냉면이 오늘 저녁의 의미를 더 크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기까지 우리 겨레 모두 잘 견뎌왔습니다. 서로 주먹을 틀어대던 때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서러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남북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봄을 기다려 오신 남과 북 8,000만 겨레 모두 너무나 고맙습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 4. 27)

귀빈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다 보면 남과 북을 가로막는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희미해져서 끝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우리는 너무나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벽은 더욱 높아져 철했처럼 보였습니다. 10년 세월을 가르고 단숨에 장벽을 다시 연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세계평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

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받아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남과 북은 오늘 대담한 상상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서 화해의 악수를 건넨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평화를 염원하며 뜨겁게 환영해 주신 남쪽 국민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통전부장은 특사로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터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처럼 남북이 마주앉아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북측의 계관시인 오영재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다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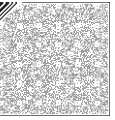
이 수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혈육들의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민족이 죽습니다



반세기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도  
 한순간의 만남으로 다 풀리는  
 그것이 혈육입니다  
 그것이 민족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민족 모두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 가마 밥’을 먹으며 함께 번영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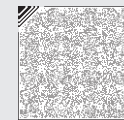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측 속담이 참 정겹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제를 옛날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평화의 길도 번영의 길도 통일의 길도 성큼 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영변의 진달래는 해마다 봄이면 만발할 것이고, 남쪽 바다의 동백꽃도 걱정 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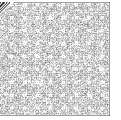
이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잔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북측에서는 건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위하여!’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2018. 5



## 근로자의 날 SNS 메시지

2018. 5. 1

노동은 숭고합니다.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합니다.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작년 오늘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생 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노동제 역시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 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 지침 폐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주52시간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 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취 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 문제가 그 핵심입니다.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 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 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 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탬 것입니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 장해 갈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 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 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 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 제7차 한일중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8. 5. 9

이번 정상회의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한중 양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아베 총리님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3국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베(安倍晋三) 총리,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저는 3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특별히 3국 정상의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그 성과와 혜택을 체감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염병,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ICT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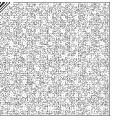


제7차 한일중 정상 공동 언론 발표(2018. 5. 9)

질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져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 2022년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야말로 두 번 다시 없을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 체육 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3,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과 같은 청년 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3국의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



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으로서 협력사무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전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 전 세계 교역액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책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뜻을 모으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어 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쾌히 뜻을 모아 주신 두 분 정상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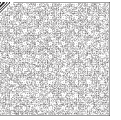
2018. 5. 9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회장님, 장쩌웨이(姜增偉) 회장님, 박용만 회장님, 3국의 경제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오늘 아베(安倍晋三) 총리,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우리 3국과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3국 간의 공고한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이 오늘 함께 채택한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위한 공동 선언문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3국 간의 교역이 작년부터 호조를 보이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유교의 고전 《맹자》에 “우환이 있는 곳에서는 살고, 안락한 곳에서는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3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국이 협력하여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 더 포용적이고 더 혁신적인 성장 방식을 찾아낸다면,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2018. 5. 9)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높은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고 한중일 FTA에서도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공동 R&D와 인력 양성 등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제인 여러분!

우리 3국은 그동안 경제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 성장을 넘어서서 3국의 국민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 갈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환경, 보

건·의료, 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이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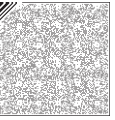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시작된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기술 협력 네트워크'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에너지 분야도 협력할 여지가 많습니다. 세계 LNG 시장의 최대 수요자인 3국이 협력한다면 천연가스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공동체를 향한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 사업도 민간 차원의 연구부터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3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광·문화·체육 등 3국 간 인적 교류를 크게 확대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경제인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과 투자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국 협력의 주역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시장을 향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임 1주년 SNS 메시지

2018. 5. 10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5월입니다.

대한민국 1년과 대통령으로서의 1년을 돌아봅니다.

쉽 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역사의 정의  
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핵과 전  
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 주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멍니다.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분명  
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  
로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합니다. 하지만 국민께서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손을 꼭 잡아 주  
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국민입니다. 단지 저는 국민과 함  
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문재인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년 전 그날의 초심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부록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에 따른  
찾아보기**

# 문재인정부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                                  |                                 |
|-------------|-------------------------------|-----------------------------------|-------------------------------------------|----------------------------------|---------------------------------|
| 5대<br>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br>정부                 | 더불어 잘사는<br>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br>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br>지역                   | 평화와 번영의<br>한반도                  |
| 20대<br>국정전략 | 1. 국민주권의<br>촛불민주주의<br>실현      | 5. 소득 주도<br>성장을 위한<br>일자리경제       | 10. 모두가<br>누리는<br>포용적<br>복지국가             | 15. 풀뿌리<br>민주주의를<br>실현하는<br>자치분권 | 18. 강한<br>안보와<br>책임국방           |
|             | 2. 소통으로<br>통합하는<br>광화문<br>대통령 | 6. 활력이<br>넘치는<br>공정경제             | 11. 국가가<br>책임지는<br>보육과<br>교육              | 16. 골고루<br>잘사는<br>균형발전           | 19. 남북 간<br>화해협력과<br>한반도<br>비핵화 |
|             | 3. 투명하고<br>유능한<br>정부          | 7. 서민과<br>중산층을<br>위한<br>민생경제      | 12. 국민안전과<br>생명을<br>지키는<br>안심사회           | 17. 사람이<br>돌아오는<br>농산어촌          | 20. 국제협력을<br>주도하는<br>당당한<br>외교  |
|             | 4. 권력기관의<br>민주적 개혁            | 8. 과학기술<br>발전이<br>선도하는<br>4차 산업혁명 | 13. 노동존중·<br>성평등을<br>포함한<br>차별 없는<br>공정사회 |                                  |                                 |
|             |                               | 9. 중소벤처가<br>주도하는<br>창업과<br>혁신성장   | 14. 자유와<br>창의가<br>넘치는<br>문화국가             |                                  |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국정전반                 |                                      |   |     |
| 국정전반                 |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 상 | 49  |
|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 상 | 107 |
|                      | 국정과제 보고대회                            | 상 | 226 |
|                      |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 상 | 257 |
|                      |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상 | 268 |
|                      |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 하 | 12  |
|                      | 2018 신년 산행 SNS 메시지                   | 하 | 168 |
|                      | 2018 무술년 신년 인사회                      | 하 | 170 |
|                      | 2018 신년 기자회견                         | 하 | 191 |
|                      | 장차관 워크숍                              | 하 | 234 |
|                      | 국민께 드리는 2018 무술년 신년 영상 인사            | 하 | 280 |
|                      |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 하 | 283 |
|                      | 취임 1주년 SNS 메시지                       | 하 | 444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     |
| 국민주권의<br>촛불민주주의 실현   |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상 | 66  |
|                      |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 상 | 102 |
|                      |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 영상 축하                 | 상 | 168 |
|                      | 제1회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영상 축하               | 상 | 236 |
|                      | 제54회 방송의 날 서면 축하                     | 상 | 290 |
|                      |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 상 | 339 |
|                      |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상 | 368 |
|                      | 촛불집회 1주년 SNS 메시지                     | 상 | 437 |
|                      | 제58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 하 | 288 |
|                      | 제99주년 3·1절 기념식                       | 하 | 294 |
|                      |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 하 | 385 |
|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하 | 412 |
|                      |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 하 | 416 |
| 소통으로 통합하는<br>광화문 대통령 |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br>대국민 보고대회 | 상 | 278 |
|                      | 국민개헌안 발표 SNS 메시지                     | 하 | 371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 상 | 87  |
|              | 제19회 미주한인체전 축전                       | 상 | 123 |
|              | (미국 방문) 워싱턴 동포 간담회                   | 상 | 184 |
|              | (독일 방문) 독일 동포 간담회                    | 상 | 196 |
|              | 일본군 위안부 고(故) 김군자 할머니 추모 SNS 메시지      | 상 | 230 |
|              | 제3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서면 축하            | 상 | 250 |
|              |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간담회                  | 상 | 252 |
|              | 장준하 선생 서거 42주기 추모사                   | 상 | 272 |
|              | 제14회 병역 명문가 시상식 서면 축하                | 상 | 299 |
|              | (러시아 방문) 한·러 우호 증진을 위한 초청 오찬         | 상 | 303 |
|              | (미국 방문) 뉴욕 동포 간담회                    | 상 | 330 |
|              |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 | 상 | 377 |
|              | 전사·순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 상 | 389 |
|              | 제44회 LA 한인축제 서면 축하                   | 상 | 401 |
|              | 오사카 '사천왕사 왓소 2017' 서면 축하             | 하 | 30  |
|              |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 하 | 39  |
|              | (필리핀 방문) 필리핀 동포 간담회                  | 하 | 64  |
|              | (중국 방문) 중국 동포 간담회                    | 하 | 105 |
|              |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1주년 기념 서면 축하            | 하 | 145 |
|              | 일본군 위안부 TF 조사 결과 관련 SNS 메시지          | 하 | 165 |
|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초청 오찬 간담회                | 하 | 180 |
|              | 제13회 미주 한인의 날 서면 축하                  | 하 | 201 |
|              |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 하 | 342 |
|              | (베트남 방문) 베트남 동포 만찬 간담회               | 하 | 349 |
|              | (UAE 방문) UAE 동포 간담회                  | 하 | 363 |
|              |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전문                 | 하 | 373 |
|              | 아리랑무용단 고국 공연 서면 축하                   | 하 | 382 |
|              |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및 오찬               | 하 | 403 |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SNS 메시지               | 상 | 403 |
|              | 2018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 하 | 325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     |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 상 | 143 |
|                       | 주요 기업인과의 대화                          | 상 | 231 |
|                       | 제9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 축전           | 상 | 357 |
|                       |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 상 | 413 |
|                       |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                       | 하 | 92  |
|                       | 2017 인터넷 기업인의 밤 영상 축하                | 하 | 97  |
|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 하 | 155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하 | 217 |
|                       |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하 | 221 |
|                       |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                         | 하 | 240 |
|                       |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서면 축하        | 하 | 315 |
|                       |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 하 | 330 |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 영상 축하 | 상 | 170 |
|                       |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 하 | 147 |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식                   | 하 | 203 |
|                       | 규제혁신 토론회                             | 하 | 223 |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2017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영상 축하              | 상 | 166 |
|                       | 201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영상 축하            | 상 | 220 |
|                       | 제6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서면 축하                | 상 | 224 |
|                       | ITU 텔레콤 월드 2017 영상 축하                | 상 | 366 |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 상 | 397 |
|                       |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 상 | 408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 하 | 160 |
|                       |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 하 | 162 |
|                       |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 영상 축하          | 하 | 227 |
|                       |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식 간담회                     | 하 | 250 |
|                       |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 수여식                | 하 | 274 |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 하 | 79  |
|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및 벤처 창업 페스티벌             | 하 | 85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br>창업과 혁신성장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 하 | 210 |
|                        | 민간 주도 혁신성장 현장 방문                   | 하 | 419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     |
| 모두가 누리는<br>포용적 복지국가    |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장 방문                   | 상 | 82  |
|                        | 치매국가책임제 SNS 메시지                    | 상 | 84  |
|                        |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                | 상 | 243 |
|                        | 건강보험정책 발표 SNS 메시지                  | 상 | 248 |
|                        |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하            | 상 | 335 |
|                        |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인사 및 오찬 간담회            | 하 | 183 |
|                        | 제12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서면 축하      | 하 | 394 |
| 국가가 책임지는<br>보육과 교육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 하 | 151 |
|                        |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 하 | 229 |
|                        | 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                        | 하 | 390 |
| 국민안전과 생명을<br>지키는 안심사회  |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현장 방문                 | 상 | 59  |
|                        | 현장 소방대원들과의 대화                      | 상 | 93  |
|                        | 웅산소방서 방문 후 SNS 메시지                 | 상 | 98  |
|                        |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 상 | 137 |
|                        |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축하           | 상 | 192 |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 상 | 240 |
|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간담회                  | 상 | 266 |
|                        | 2017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영상 축하          | 상 | 282 |
|                        | 제64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 상 | 319 |
|                        |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 상 | 418 |
|                        |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마무리<br>SNS 메시지 | 상 | 431 |
|                        |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하 | 25  |
|                        | 포항 지진 피해 관련 SNS 메시지                | 하 | 68  |
|                        |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점검                     | 하 | 74  |
|                        | 밀양 화재 현장 방문                        | 하 | 232 |
|                        | 세월호 4주기 메시지                        | 하 | 406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노동존중·성평등을<br>포함한 차별 없는<br>공정사회 |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                          | 상 | 54  |
|                                | 2018 여성계 신년 인사회 영상 축하                  | 하 | 187 |
|                                |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서면 축하                      | 하 | 317 |
|                                | 근로자의 날 SNS 메시지                         | 하 | 436 |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br>문화국가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 상 | 152 |
|                                |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돌 SNS 메시지                | 상 | 328 |
|                                | (미국 방문)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 상 | 351 |
|                                | 제44회 관광의 날 영상 축하                       | 상 | 381 |
|                                | 한글날 SNS 메시지                            | 상 | 395 |
|                                |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 상 | 405 |
|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 상 | 423 |
|                                |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                     | 상 | 427 |
|                                | 종교지도자 간담회                              | 하 | 99  |
|                                | KTX 경강선(서울~강릉) 시승 및 오찬 간담회             | 하 | 141 |
|                                |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자<br>워크숍 격려 방문    | 하 | 143 |
|                                | 대한불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6주년<br>봉축 법요식 축전 | 하 | 209 |
|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및<br>오찬 간담회    | 하 | 214 |
|                                | 제132차 IOC총회 개회식                        | 하 | 253 |
|                                | 제132차 IOC총회 개회식 서면 축하                  | 하 | 259 |
|                                | 평창동계올림픽 IOC 위원 소개행사                    | 하 | 262 |
|                                |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감사 SNS 메시지               | 하 | 265 |
|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 하 | 266 |
|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 하 | 271 |
|                                |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축전          | 하 | 273 |
|                                |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은메달 축전        | 하 | 282 |
|                                |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 하 | 286 |
|                                | 평창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                       | 하 | 301 |
|                                |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 하 | 309 |
|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서훈 수여식                  | 하 | 313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br>문화국가    |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 하 | 319 |
|                        |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프로그램북 인사말             | 하 | 340 |
|                        |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축전             | 하 | 384 |
|                        |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               | 하 | 408 |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     |
| 풀뿌리 민주주의를<br>실현하는 자치분권 | 제1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 상 | 120 |
|                        |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 상 | 434 |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 70주년 축전              | 하 | 73  |
| 골고루 잘사는<br>균형발전        | 쇄빙LNG선박 건조 현장 방문                   | 하 | 174 |
|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 하 | 244 |
|                        |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 하 | 335 |
| 사람이 돌아오는<br>농산어촌       |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 상 | 75  |
|                        | 서해안 유류 오염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 상 | 323 |
|                        | 2018 농업인 신년 인사회 영상 축하              | 하 | 189 |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     |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국방부 순시                             | 상 | 62  |
|                        | 합동참모본부 순시                          | 상 | 65  |
|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상 | 100 |
|                        | 한미연합사령부 순시                         | 상 | 117 |
|                        | 6·25 한국전쟁 제67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 상 | 148 |
|                        | 이순진 합참의장 이임식 SNS 메시지               | 상 | 280 |
|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상 | 293 |
|                        |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 관련 대국민 SNS 메시지        | 상 | 316 |
|                        |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영상 축하              | 상 | 337 |
|                        |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상 | 383 |
|                        |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 간담회                | 하 | 101 |
|                        | 육군학생군사학교 제5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하 | 292 |
|                        | 육군3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하 | 303 |
|                        |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식 및 임관식              | 하 | 304 |
|                        | 공군사관학교 제66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하 | 314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8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하 | 324 |
|                       | 해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식 및 임관식 축전            | 하 | 329 |
|                       | (UAE 방문) 아크부대 방문                    | 하 | 374 |
|                       |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축전                     | 하 | 396 |
| 남북 간 화해협력과<br>한반도 비핵화 |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 상 | 370 |
|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 상 | 439 |
|                       | 북미정상회담 환영 SNS 메시지                   | 하 | 323 |
|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 하 | 345 |
|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 하 | 398 |
|                       |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                 | 하 | 400 |
|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 하 | 423 |
|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               | 하 | 427 |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br>당당한 외교  |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당선 축전         | 상 | 86  |
|                       |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 상 | 124 |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           | 상 | 130 |
|                       | (미국 방문)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 상 | 156 |
|                       | (미국 방문) 한미 비즈니스 서밋                  | 상 | 160 |
|                       | (미국 방문)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상 | 172 |
|                       | (미국 방문) CSIS 전문가 초청 만찬              | 상 | 175 |
|                       | 방미 귀국 인사                            | 상 | 190 |
|                       | (독일 방문) 독일 의료 지원단 접견                | 상 | 194 |
|                       | (독일 방문) 한독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상 | 200 |
|                       | (독일 방문) 쾰른버제단 초청 연설                 | 상 | 203 |
|                       |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기조연설               | 상 | 214 |
|                       |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 상 | 217 |
|                       |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4세션               | 상 | 222 |
|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개회식 | 상 | 284 |
|                       | (러시아 방문) 한·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상 | 295 |
|                       |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면 축하             | 상 | 301 |
|                       | (러시아 방문) 제3차 동방경제포럼(EFF) 전체회의       | 상 | 308 |

| 주제                   | 행사                                          | 권 | 쪽수  |
|----------------------|---------------------------------------------|---|-----|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br>당당한 외교 | (미국 방문)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 상 | 344 |
|                      |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 상 | 358 |
|                      |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위로전                         | 상 | 392 |
|                      | 2020 세계국제물류협회(FIATA) 세계총회 유치 지원<br>영상 축사    | 상 | 393 |
|                      |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민방한 만찬                          | 하 | 32  |
|                      |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하 | 35  |
|                      |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 하 | 44  |
|                      | (인도네시아 방문) 한·인도네시아 MOU 서명식 및<br>정상 공동 언론 발표 | 하 | 50  |
|                      | (베트남 방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 하 | 54  |
|                      | (필리핀 방문)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 연설               | 하 | 56  |
|                      | (필리핀 방문)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 하 | 62  |
|                      |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민방한 만찬                       | 하 | 82  |
|                      | 제53회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서면 축사                     | 하 | 90  |
|                      | (중국 방문) 한중 비즈니스 포럼                          | 하 | 109 |
|                      |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                        | 하 | 116 |
|                      | (중국 방문) 베이징(北京)대학 연설                        | 하 | 119 |
|                      | (중국 방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 하 | 130 |
|                      | (중국 방문) 한중 산업협력 총칭 포럼                       | 하 | 132 |
|                      | 2017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간담회                         | 하 | 136 |
|                      |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br>착공식        | 하 | 347 |
|                      |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하 | 353 |
|                      | (베트남 방문) 아세안 청년일자리 협약식 및 취업 박람회             | 하 | 356 |
|                      | (베트남 방문)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하 | 358 |
|                      | (UAE 방문) UAE 원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               | 하 | 367 |
|                      | (UAE 방문) 한·UAE 비즈니스 포럼                      | 하 | 377 |
|                      | 제7차 한일중 정상 공동 언론 발표                         | 하 | 438 |
|                      |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 하 | 441 |

|                                                        |       |                      |
|--------------------------------------------------------|-------|----------------------|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br>제1권(하)<br><br>2017. 11. 1 ~ 2018. 5. 9 | 발행    | 대통령비서실               |
|                                                        |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
|                                                        | 발행일   | 2018년 7월 31일         |
|                                                        | 인쇄·제본 |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

